

건축사

칼럼
시론
기획특집

건축사공제조합의 출범에 즐음하여!
지붕위의 축제
한국에서 예술 아카이브 현황, 건축계는?
건축 설계시장의 현황과 발주제도 등 개선방안



499
<http://www.kira.or.kr>
201011

건축사공제조합의 출범에 즈음하여!

At the Launching Moment of Architect's Mutual Benefit Association

미국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는 취임 연설에서 "국민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건축사와 건축사협회와의 관계를 놓고 그대로 대입시켜 보아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은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건축재산의 보호, 국제경쟁력 확보와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여 건축사의 업무 수행 중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보증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제사업의 추진 경위는 익히 알듯이 1995년 1월 건축사공제사업의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IMF 등 사회여건의 미흡으로 지지부진하였으나, 2007년 제41회 정기총회에서 공제사업 시행안을 의결시켰고, 2008년 제42회 정기총회에서 공제사업 준비자금 차입안을 승인한데 이어 동년 국토해양부의 건축사 공제사업 승인(손해배상공제 우선시행), 2009년 3월 17일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및 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발의,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23일 건축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0392호)됨으로써, 전면적인 공제사업 개시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출자금 모집을 개시하였으며, 금년 12월 창립총회 개최, 2011년 1월 사업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시행령',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시행령'개정 등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인 절차도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의 희망이 되는 공제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사 공익을 위하여 협회의 발전은 곧 건축사 자신의 발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 하는 조합원이 되어야겠습니다. 기히 시행되고 있는 유관 공제조합을 이용하기보다는 출자금이 보다 저렴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을 활용함으로써 협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예정된 공제조합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 예의 가입이 의무사항인 만큼, 자원하여 출자금을 납부하는 회원들이 많아져서 조합의 살림살이 기반이 다져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시·도 건축사회의 회장님이 회원들에게 공제조합 참여를 적극 권유하여 주시고, 회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하시어 공제조합 가입과 이용률을 높여 공제조합이 탄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공제조합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통해 건축사들의 역할수행에 따른 대 국민적 신뢰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안심하고 설계를 의뢰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는 자신의 업무수행에 따른 지금채무를 보증 받음으로써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회원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건축사에게 희망을" ■



손원태 / Son, Won-lae, KIRA
대한건축사협회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학력

- 동아대·연세대학원
- 부천시건축사회 회장
- 부천시건축심의위원
- 현 동서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지붕위의 축제

Feast on the Roof

지붕 위 실루엣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영화 지붕위의 바이올린의 감동이 다시 생각나며 또한 EMT건물 지붕위에서 계릴라형식의 공연으로 세계에 계릴라 콘서트란 새 장르를 만든 영국의 비튜즈도 지붕 그 현대의 평평한 지붕을 감사할 것인가 생각이 든다. 한참 전 한남동에 사무실을 틀 무렵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한 옆집의 지붕은 늘 다양한 박스에 담긴 야채들이 즐비하여 도시의 새로운 상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잘 생긴 옥상정원은 물론 아니었고 재활용으로 얻은 박스들 안에는 가지런히 흙이 담겨 상추나 고추 등등 여러 야채를 키워내는 참으로 어쭙잖은 옥상재전이었다.

이젠 시절이 바뀌어 이런 모습은 보기 어려워졌고 도시의 옥상은 전원도시의 새로운 상상을 시작해 내는 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친환경이란 사고의 구조는 건축을 일면 다양하게 녹화하는 양상으로 드러났고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건축의 모습을 새로운 당의 조직을 보여주는 풍경의 변화를 일구어 냈다.

에밀리오 암나즈가 만들어 가는 건축들처럼 우리의 건축도 아주 친근한 모습의 자연적 웃으로 모습을 바꾸어 등장하기 시작했고, 건축물의内外부가 푸른 웃을 입고, 지붕은 대자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 사색적 모습을 의태하여 땅을 닦아가는 지행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박스들은 사라지고 단단한 지붕은 흙으로 덮여 땅이 기우던 그 식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안고 있다.

전원도시의 축제를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조하던 건물의 옥상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잔디와 나무들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도시의 새로운 휴식공간이 틈을 타고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틈의 미학인 수도 있고 자연에 대한 깊은 향수 때문이기도 할 것이나 전원을 그리워하고 식물과 동행하고자 하는 생물학적 본능이 부른 행태일 수도 있다.

일찍이 영국의 전원도시의 이상은 “과밀로 얹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레이몬드 안원의 가는시티 누브먼트를 시작으로 확대되었고 그들 사고의 사유와 실천적 측면 모두를 사로잡아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상도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런던교외의 험스테드와 험스테드 히스는 이런 전원도시를 실현하려 했던 대표적인 지역으로 기억된다. 공원에 난 길로 한 시간 쯤 걸어야 도달하는 파빌리온은 산책의 반환점이기도 하고 휴식과 만남, 미술과 음악 등 지역이벤트가 있는 공동체의 집합과 풍경의 정점이 되는 랜드스케이프의 원리를 구현한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주거지의 풍경은 당연히 자연과 경계를 지니면서도 자연의 일부로 건축이 포함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한편 지금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어떠한가.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끊과 이상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질문해 보면 답은 모두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지 못함을 암시워할 것이다. 그 도시의 틈바구니 속 지붕을 위해 비워둔 한줌 지붕 마당위에서 어렵게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바라보며 거창한 화두로 시작된 우리건축의 생태성과 친환경성을 조심스레 생각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좀 어렵게 보이는 과장된 모습들도 드러나기 시작하여 불안감을 주기도 하며 실현 가능한 우리사회의 건강한 조지인지 먼저 살펴보는 지혜도 아울러 같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 ■



김병윤 / Kim, Byung-yoon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의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 영국 AA School 수학
- 한국건축기협회 편찬위원회 위원장
- SAKIA 총괄교수

한국에서 예술 아카이브 현황, 건축계는?

The present condition of Korean Art Archive
and How about the Field of Architecture?

몇 년 사이 한국 문화계에도 예술아카이브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물 관리, 기록관, 아카이브와 같은 용어가 대두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 등도 부쩍 늘어났다. 2008년 2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시각예술 분야 아카이브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세미나, 2009년 11월 서울대 미대 조형연구소 주최로 '한국 근현대 미술/디자인과 자료' 세미나가 열렸었다.

그리스에 기원을 둔 아카이브(Archive)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영구보존 자료를 선별하고 수집하여 보존하는 장소 '기관'을 지칭하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구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아 선별된 '보존자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술아카이브는 개인 및 미술관련 조직이 수행하는 미술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되어 관리하는 기록으로서 미술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술적, 학문적 자료이다.

내국 미술아카이브의 첫 사례는 삼성미술관 리움의 부설인 한국미술기록보존소로 1999년에 개소하였다. 1998년 미술평론가 이구열 씨가 기증한 4만 건의 자료를 중심으로 안국동 옛 백상기념관 뒤편 송현동에서 출발했다. 2001년부터 일반 공개를 시작했으며 2002년 운니동으로 이전했다가 2005년 용인 호암미술관으로 옮겼다. 수집자료 범위는 1900년 전후를 기점으로 현재까지이며 수집대상은 인쇄자료(전시 카탈로그, 신문·잡지 기사), 시청각기록물(사진, 비디오/오디오테입), 서류(작가 및 미술계 관련), 실물자료(편지, 일기, 메모, 스케치) 등이다. 이어 2008년 3월 근현대 디자인박물관과 10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개관하였다. 국내 최초의 무용자료관인 연극재가 조동화 씨의 자료를 기증받아 2006년 3월 개관하였다. 한국춤문화자료원은 김천홍 선생 유물을 수증 받아 2008년부터 무용인들이 춤문화자료관 구축을 위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2009년 12월 공연예술박물관이 국립극장 내에 개관하였다. 사진계에서는 최인진 씨가 1978년 한국사진사연구소를 개소하여 「사진사연구」 등을 발간해왔으나 최근 년에 주춤하고 있다. 한미사진미술관에서는 2009년 1월부터 한국사진문화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기관으로는 서울대학교 미대 조형연구소에서 2009년부터 기록관리실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3년 기록관리실 증축을 발표했다. 이런 흐름 속에 건축계의 아카이브 문제는 필자가 과문하여 상황은 잘 모르지만 아카이브 설립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오랫동안 필요성이 요청되어온 국가기관인 국립예술자료관이 금년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있던 아르코 예술정보관이 독립기관으로 출범하였다. 국립예술자료원은 예술 관련 기록과 정보의 허브로서,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아카이브로서, 예술자료의 가치를 새롭게 재생산하는 연구기관을 표방하고 있다. (재)국립예술자료원은 예술 활동과 관련된 각종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있다. 조직은 원장, 사무국장, 기획사업팀, 정보서비스팀, 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국립예술자료원은 새로운 아카이브를 위해 자료수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각 기관과 단체가 제각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실을 한곳에 통합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 관리를 위해 코라스(KORAS)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급했듯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자료 정보의 생산체인 미술관, 화랑, 미술대학, 미술재단, 그리고 각 자료실에 공급해주면 나중에 네트워크가 쉬워진다. 한 예로 일본의 아트도큐멘테이션연구회는 1989년 설립되어 미술/문화재에 대한 정보활동을 주력해왔는데 2004년 8월 연구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제3회 아트 도큐멘테이션 연구포럼'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미술/문화재 정보의 네트워크화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기획하여 필자도 발표한 바 있다. 홍콩의 아시아아트아카이브는 2000년에 설립하여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아시아 현대미술 자료를 보유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아카이브에 관심을 두고 시작한 개인이나 단체가 공간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예술아카이브는 국가의 유산이고 공공의 기록물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카이브 시스템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이고 문화적 경쟁력이다. 아카이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

김달진 / Kim, Da-jin
김달진미술연구소장

학제

- 현 월간 서울아트카이드 편집인
- 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 현 대전시립미술관 운영위원
- 현 2011 청주국제공연비엔날레 운영위원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의 현주소 돌아보는 권위 있는 행사”

‘2010한국건축문화대상’시상식이 지난 10월 20일 일산 캠퍼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해양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종승 서울경제신문 사장을 비롯해 정부관계자 및 수상자들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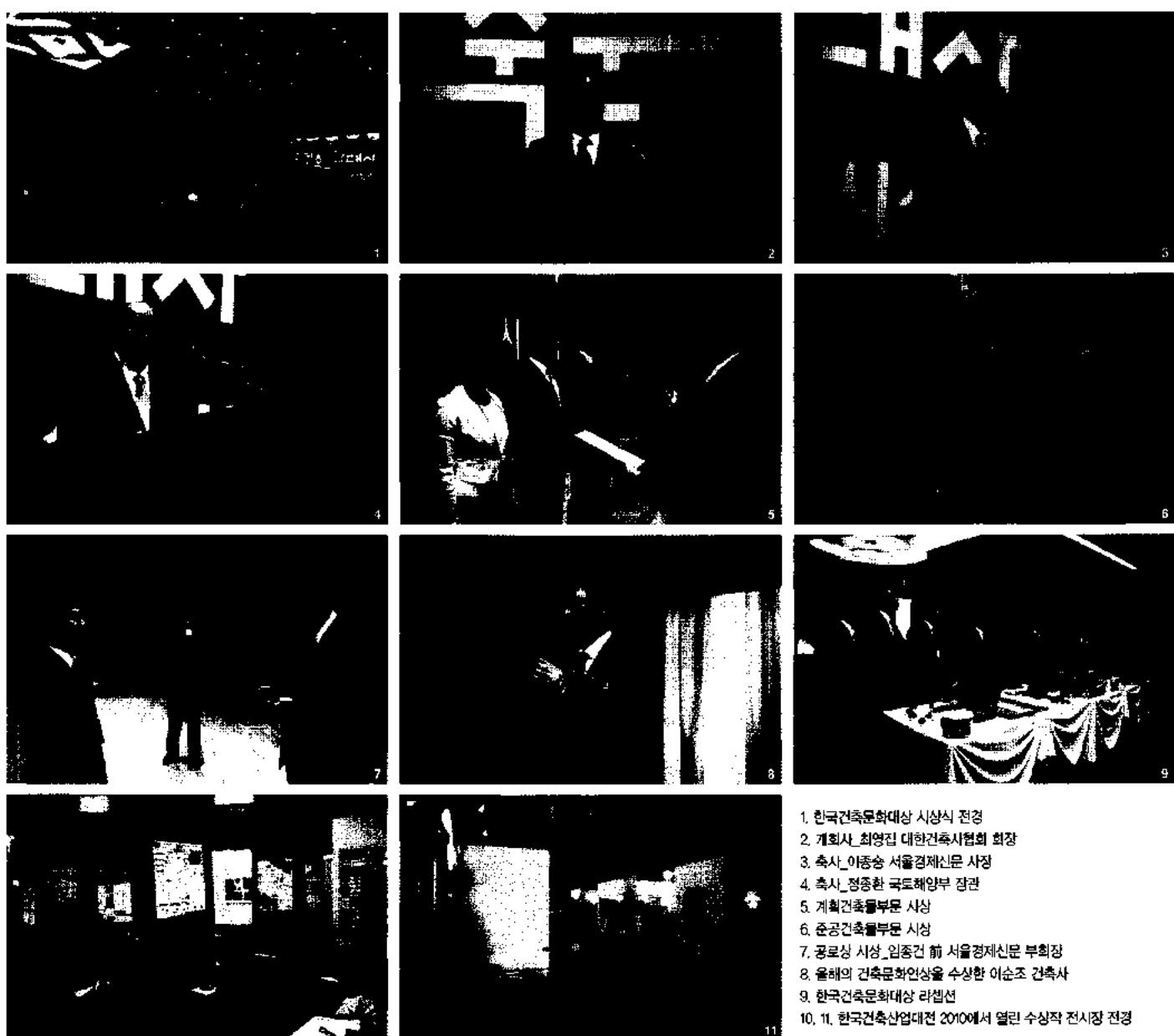
최영집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그동안 개발과 양적성장이 급선무였던 시대에 건축문화 창들을 추구하며, 삶의 질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국격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행사였다.”며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건축문화 품격을 높여가면서, 문화와 예술, 건축문화로 힘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건축문화 선진국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인 박종근 호서대학교 교수의 심사보고 이후 시상식에서는 준공건축물부문, 계획건축물부문,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공로상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치사에서 “건축문화대상은 19년 동안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건축문화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고품격 국토경관을 위해 경관심의를 의무화하는 경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 건축사의 건축문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

수상작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동 장소 제3홀 ‘한국건축산업대전2010’ 전시장에서 전시됐다.



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전경
2. 개회사_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3. 축사_이종승 서울경제신문 사장
4. 축사_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5. 계획건축물부문 시상
6. 준공건축물부문 시상
7. 공로상_임종근 前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8.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을 수상한 이순조 건축사
9. 한국건축문화대상 리셉션
10, 11. 한국건축산업대전 2010에서 열린 수상작 전시장 전경

한국건축산업대전 2010

5일간 3만 여명 방문… 연계행사도 풍성

올해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친환경 건축의 미래'란 주제로 개최된 '한국건축산업대전 2010'이 10월 20일부터 5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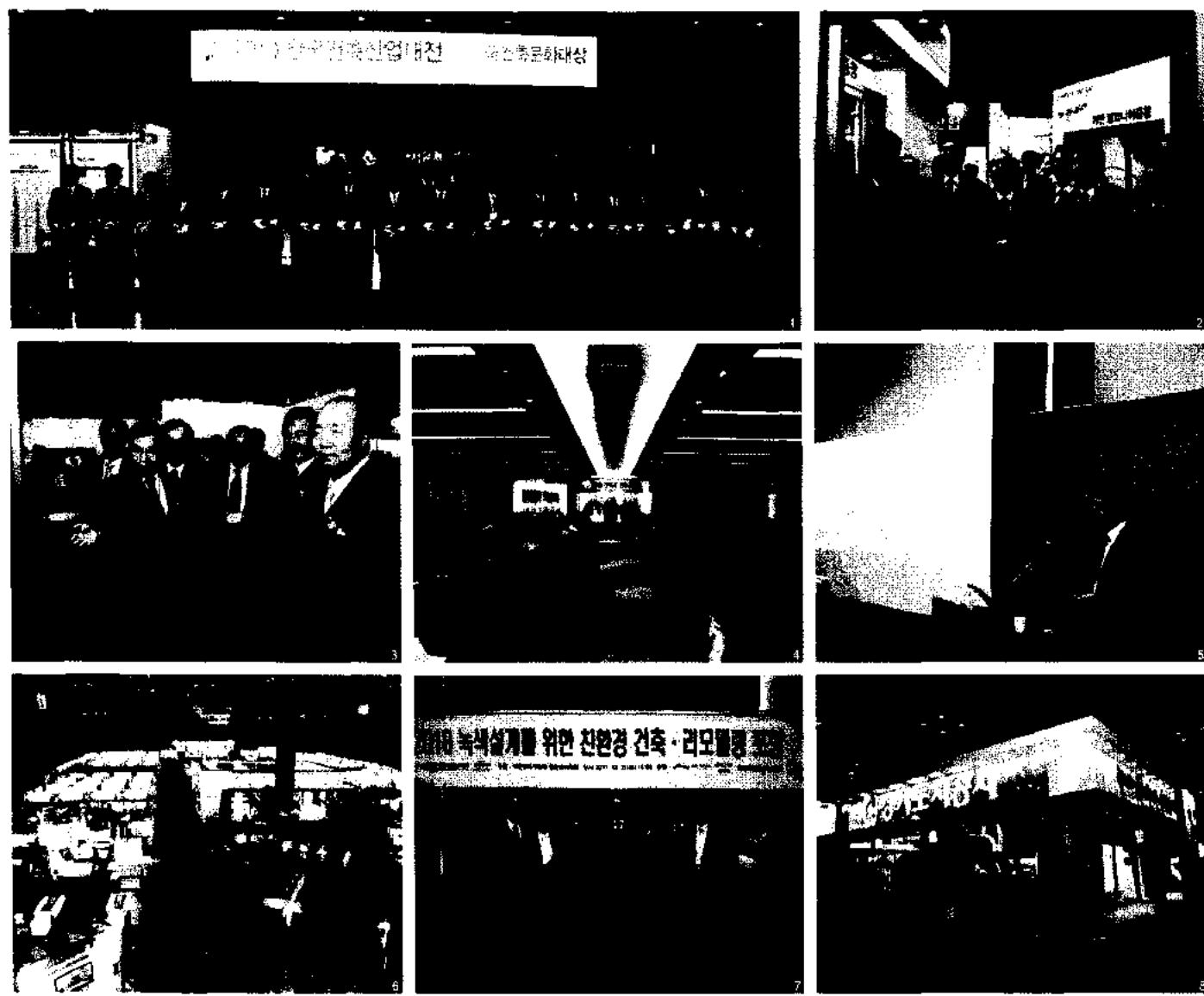
지난 20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최영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종승 서울경제신문 사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 컷팅 후 정 장관과 내외빈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참여한 업체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최근 화두인 '친환경건축'을 보다 폭넓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친환경건축자재 전시를 비롯해 첨단시스템과 설비, 포럼 및 강연회는 친환경건축을 아우르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건축사사무소의 참여로 일반인과 건축전문가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또한 동시에 진행된 건축사전문교육은 △주거단지 환경설계 △친환경과 BIM △제로에너지 하우스 소개 △친환경 패시브 건축 등의 주제로 열려, 건축사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친환경건축 학습의 장'이 되기도 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한국농어촌건축대전 등과의 연계로 전국의 많은 건축사들의 참여도 눈에 띠었다. 광주에서 올라온 한 건축사는 "작년에는 전시회를 관람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행사들이 동시에 열려 꼭 참석하고 싶었다. 미국의 AIA대회와 같이 교육과 전시가 함께한 행사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리드엑스포와 공동주최로 진행하여 국내외 84개 업체 총 367부스로 구성되었으며, 3만 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1. 2010한국건축산업대전 개막식

4. 건축사 연수교육 전경

7. 친환경 건축·리모델링 포럼

2.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내외빈들

5. Ar. Knut Goepert 특별강연

8. 참가업체(경기도시공사) 홍보부스

3. 한국건축사미술전을 관람 중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엔 무측)

6. 전시장 전경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전국 4,000여명 건축사 참여, 녹색비전 선포

'녹색도시를 창조하는 건축사'란 슬로건 아래 지난 10월 22일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4,000여명의 건축사들이 참가, 화합과 교류의 장을 이뤄냈다.

이번 대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정동영 의원,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건축계에서는 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과 유관단체장이 참석했다.

큰 울림으로 시작된 1부 오프닝 공연 '수목화대복'은 대회장을 가득 매운 수천 명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사회를 맡은 김병찬 아나운서는 몇몇 실수를 노련한 진행으로 재치 있게 무마시켜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했다. 내외빈과 16개 시도건축사회의 입장에 이어 안길원 대회조직위원장과 16개 시도회장은 전국에서 참석한 건축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수천 명의 건축사들은 큰 박수로 환영했다.

안길원 대회조직위원장의 개회선언과 녹색비전 선포식 이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건축은 도시의 얼굴이며, 도시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건축

사 여러분이 만든 건축물들은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생명력 있는 예술작품이자 관광상품이다. 이번 대회가 참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고 우리 건축 문화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건축사들의 창작행위에 대해 언제나 감사함과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건축사 업무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며, 본인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국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최영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본 대회에 참석한 일본(타로 아시아라), 태국(타와짓 찬드리사카), 라오스(쌍캄 피니스)의 건축단체장들에게 명예회원증을 수여했으며, 백승천 경기도건축사회 회장이 경기지역 여성건축사들의 불우이웃돕기 일환인 '경기무한돌봄사업'에 기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2부 '축제의 한마당'에서는 개그맨 배동성의 사회로 초청가수 축하공연, 회원 장기자랑(김용철 건축사, 김완식 건축사),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막을 내렸다.

2012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전경
5. 건축사헌장을 낭독_권영호(맨 좌측), 이미정(중간) 건축사
9. 환영사_김문수 경기도지사
13. 축사_최성 고양시장
17. 회원장기자랑(김용철 건축사)
2. 전국 건축사회의 입장
6. 7. 개회선언 선서 증인 내외빈들
10. 환영사_백승천 진행위원장
14. 해외 건축단체장 명예 회원증 수여식
18. 2부 행시_행운권 추첨
3. 사회_아나운서 김병찬
11. 축사_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
15. 차기 개최지(광주광역시건축사회) 대회기 전달
4. 안길원 조직위원장과 16개 시도회장의 '녹색비전 선포식'
8. 대회사_최영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2. 축사_무소속 이인제 국회의원
16. 경기무한돌봄사업 기금 전달

문정현

Mun Jeong Heon

김태윤 / 정회원 에이엠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Kim, Tae-yun, KIRA

산책로적 건축 (promenade) _ 공간경관을 누적시키는 산책로적 건축개념은 내부와 외부의 순차적인 조망과 함께 중첩된 벽체들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는 공간의 깊이감과 전방향성을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진입부에 놓여진 절지된 형태의 출입구는 또 다른 공간으로의 전이를 위한 오브제이다. 진입 공간을 들어서는 순간 마치 부유하는 듯한 불ーム의 형적가벽으로 둘러쌓인 집이 오버랩되어 나타난다. 수평적인 흐름을 강조하는 노출콘크리트 가벽은 보다 적극적인 시선유도의 방식으로 사용되며 시각적으로 부각된다. 평활한 벽면에서 들출된 캔틸레버 장식보를 통해 둥적한 각도로 길게 떨어지는 자연의 빛은 콘크리트의 물결과 함께 자연스럽게 현관앞의 대크로인도되어 신입가벽과 함께 수출입구의 위치를 인지시킨다. 또한 콘크리트 가벽의 흐름을 타고 길게 이어지는 사선은 사설나무 암장을 지나 먼 산사락에 심사 어부를 나.

내부로 들어서면 먼저 두명한 유리창 너머로 바닥과 일자로 이어지는 진리를 따라 후장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는 시각적으로 공간의 무한한 수평적 확장을 유도하는 건축적 요소이며, 나시 목노를 따라 거실로 놓여서는 순간 천장을 통해 은은하게 내려오는 화산된 빛의 기운을 느낀다. 솔리드와 보이드를 반복하는 벽체의 구성은 자연체광과 함께 내부와 외부공간을 순차적으로 느끼게 하는 건축적 산책유수로 작용하며 긴장감 있는 진입방향성을 유도한다.

선택적조망을 위한 가벽 _ 거실에서 보이는 안뜰은 선택적 조망을 위한 가벽과 함께 변화하는 계절의 풍경을 담아내고, 서재와 시각적으로 연결된 뒷마루를 통해 노출콘크리트 가벽의 끝단에 걸린 먼 산의 풍경을 간접적으로 주시한다. 이러한 건축적요소는 자연을 선택적으로 끌어들이는 장치가 되며,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간밀한 유통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커워 커 사이의 공간을 통해 생성된 영역성은 시신과 동선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다양한 형태의 벽과 함께 자연과 소통한다. 목도와 후정, 거실과 안뜰, 서재와 뒷마루도 이어지는 내외부공간의 유기적인 설정은 끊임없는 산계의 흐름의 건축을 만들어 낸 것이다.

Architecture like Promenade _ The concept of Architecture like Promenade, which accumulates spacial experience, well expressed in piled walls with sequential view of interior and exterior, which servers as an element to add sense of depth and the direction of entry.

The controlled form of the entrance placed in the entry part is an objet for moving toward another space. On going into the entry space, the house, surrounded by horizontal free-standing walls floating in the air, appears overlapped. Free-standing walls of exposed concrete to emphasize horizontal stream are used as a method to attract people's eyes and become visually magnified.

The light of nature falling long in dynamic angles through the cantilever decoration beam protruded from the flat surface of the wall, the light of nature falling is naturally ushered to the deck in front of the entrance with the property of concrete, and makes the place of main entrance recognized with free-standing walls. Also, the glance extending long along the stream of free-standing wall stays a little far in the foot of the mountain passing over spindle tree fence.

Enter the inside, over the transparent window, we can see a tree in the back yard along the grass extending the floor all in one, which is the architectural element to induce boundless horizontal extension of the space visually.

As soon as we go into the living room along the corridor, we can feel the energy of the extended light going down softly through the ceiling. The composition of walls repeating solid and void serves as an element of architectural promenaded which makes us feel the outside and inside space sequentially with the natural light, and guides the direction of entry with tension.

Free-Standing Walls for Selective View _ The inner garden seen from the livingroom expressing the changing seasons with free-standing walls for selective view keeps an indirect eye on the landscape of distant mountain hanged at the end of exposed concrete free-standing walls through toenmaru connected visually with the study. Such architectural element becomes a device to draw nature selectively, and to makes a metaphoric communication between interior space and exterior space possible.

The domain created through a layer and a layer communicates with nature along with various forms of walls controlling the visual and spatial movements. Organic setting up of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connecting to corridor, back yard, living room, inner garden, study and toenmaru creates the architecture of incessant relationship and stream. ■

Project Team A.M Architects & Partners

Client Mun, Kwang-ho

Location Kyungpook Kimcheon-si Bongsan-myun Taehwa-ri

Site Area 519m²

Building Area 109.69m²

Gross Floor Area 99.82m²

Building to Land Ratio 19.23%

Floor Area Ratio 21.13%

Structure R.C

Structural Engineer Jinseon

Electrical Engineer Hanguk

General Contractor Lee, Yeong-s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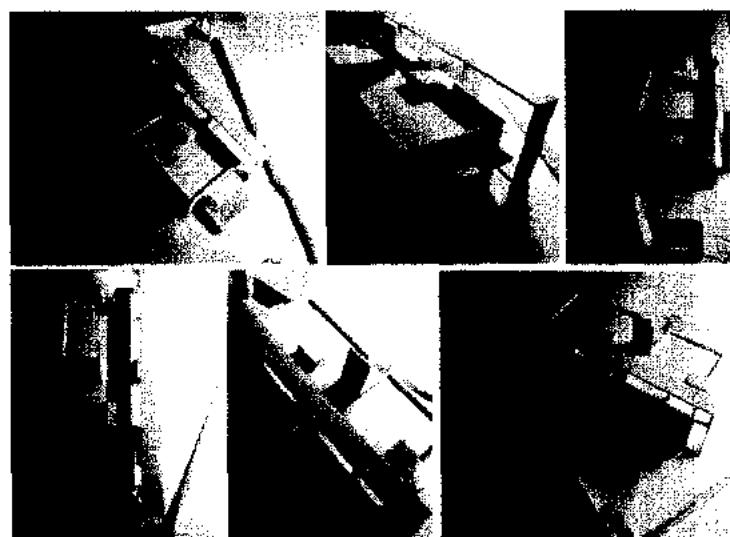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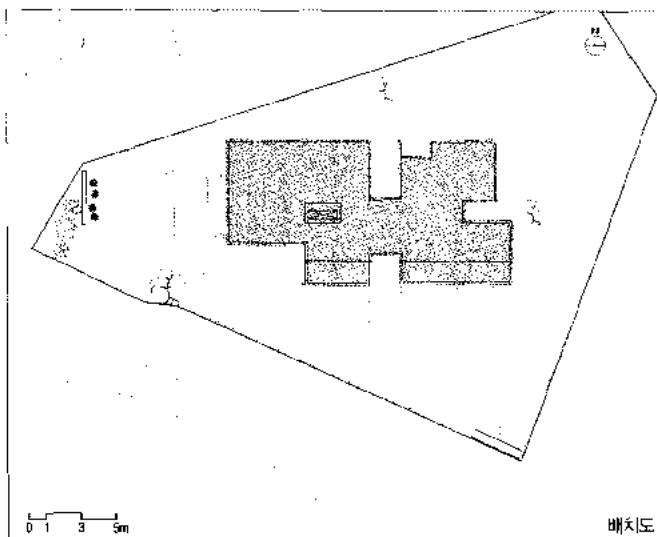
Building Scope 1F

Finishing Materials Exposed concrete, Wood p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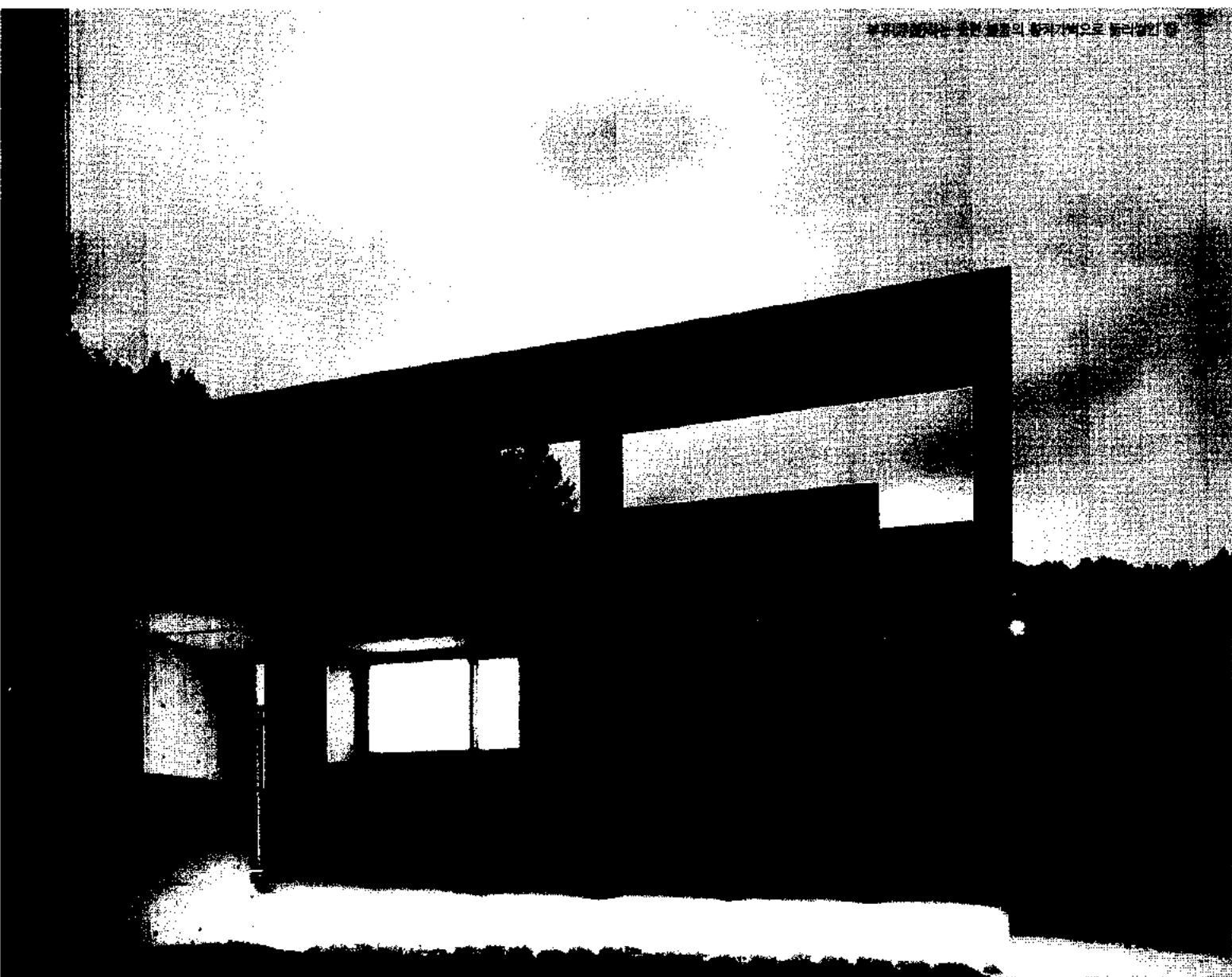
Photographer Kim, Jae-kyeong

Cost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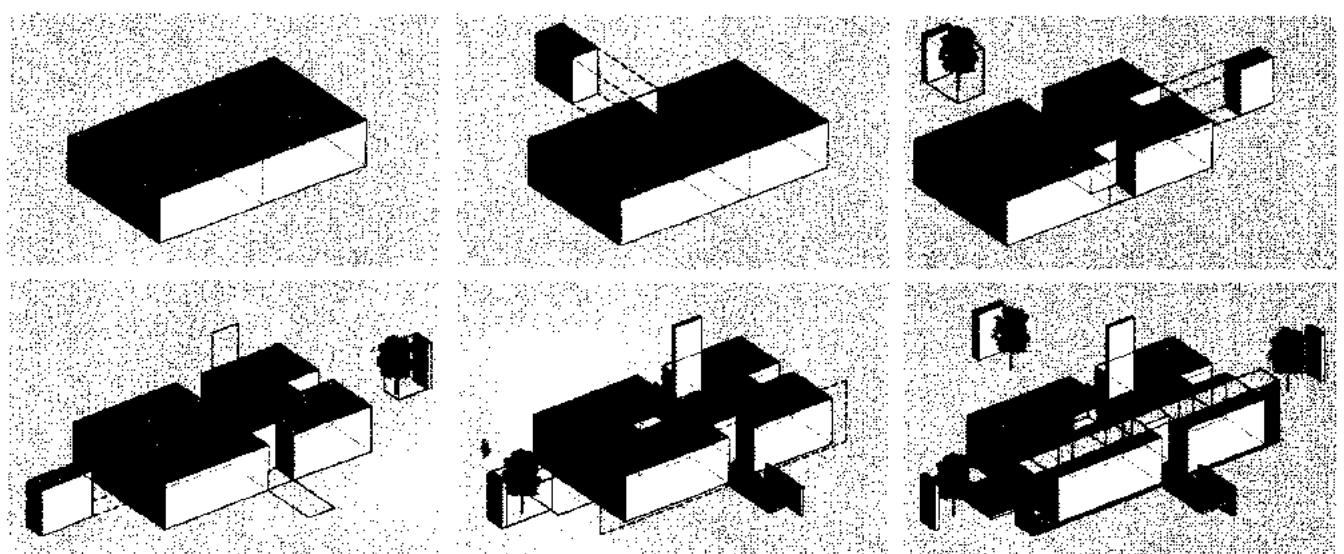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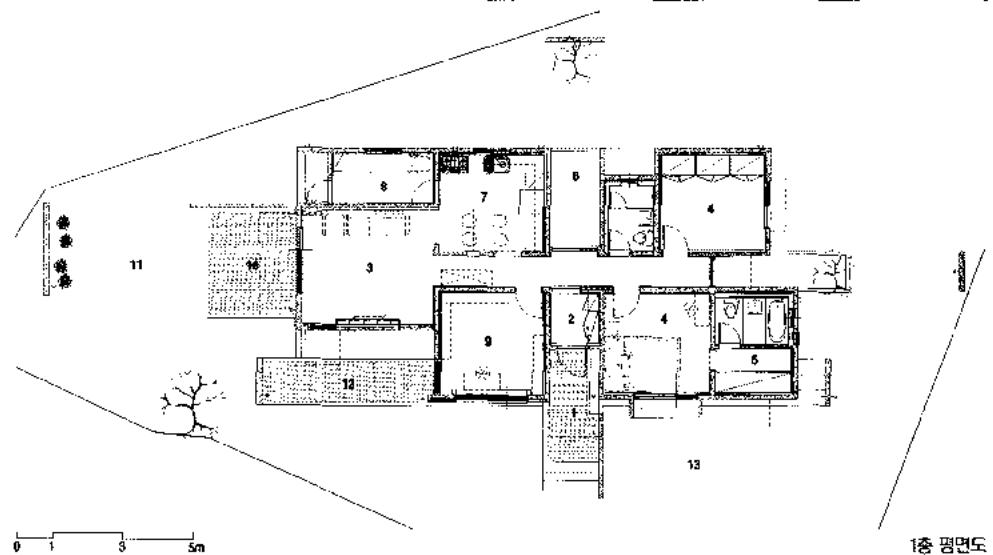
한국전통건축의 특수재료로 짜여진 목조건물의 특징기법으로 놀라운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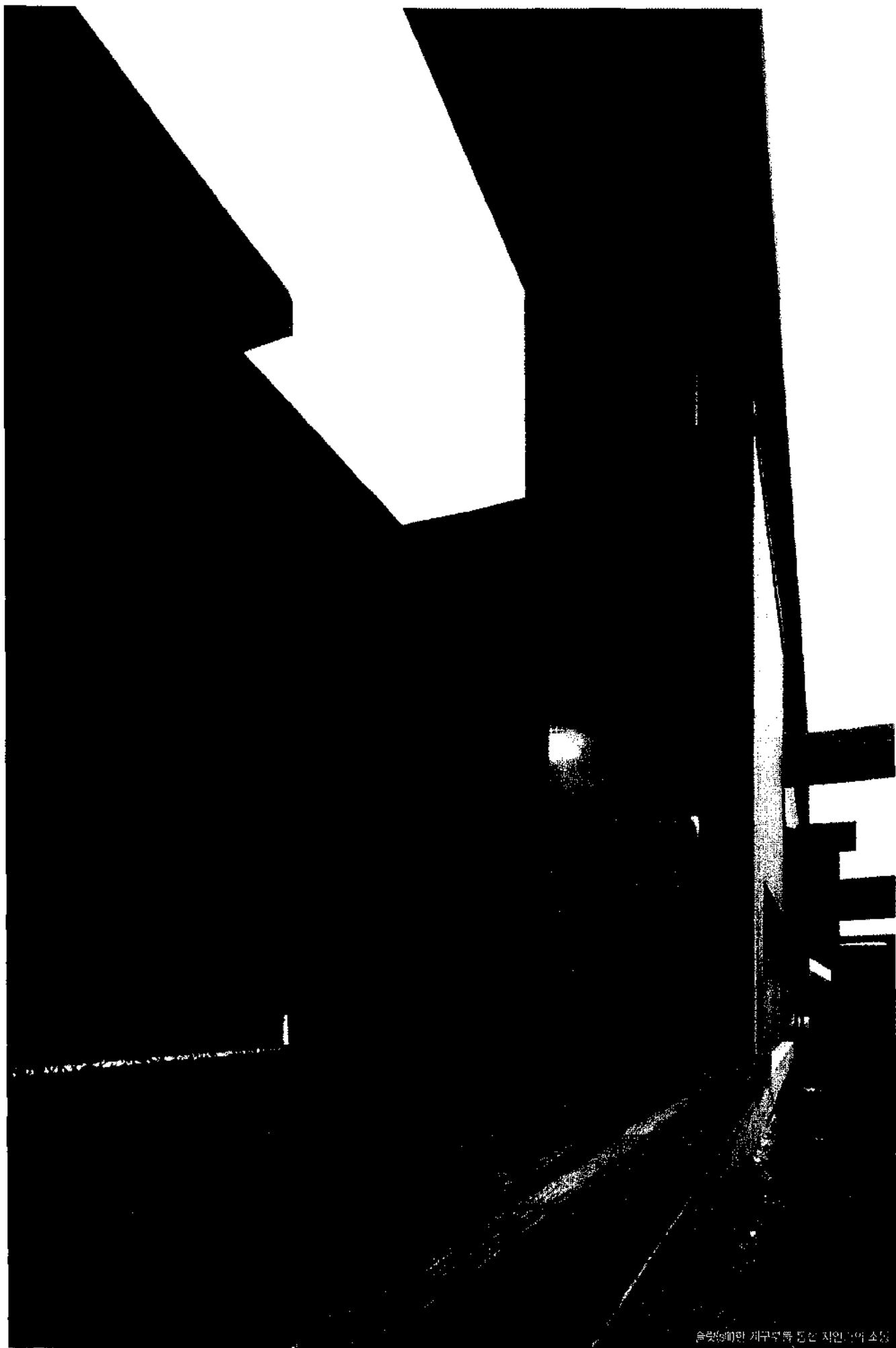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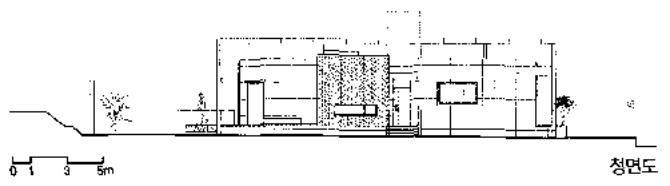
左: 1층 평면도 (1st floor plan) / 右: 2층 평면도 (2nd floor plan)

- 01_ 토지
- 02_ 흙
- 03_ 거실
- 04_ 침실
- 05_ 드레스룸
- 06_ 빛의창원
- 07_ 주방/식당
- 08_ 다용도실
- 09_ 서재
- 10_ 베란다
- 11_ 비단의 정원
- 12_ 옷마루
- 13_ 마침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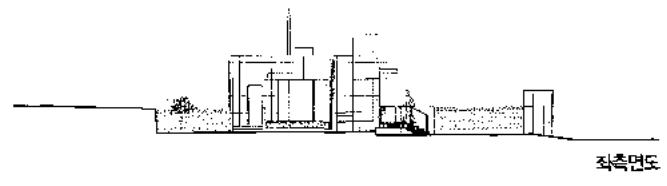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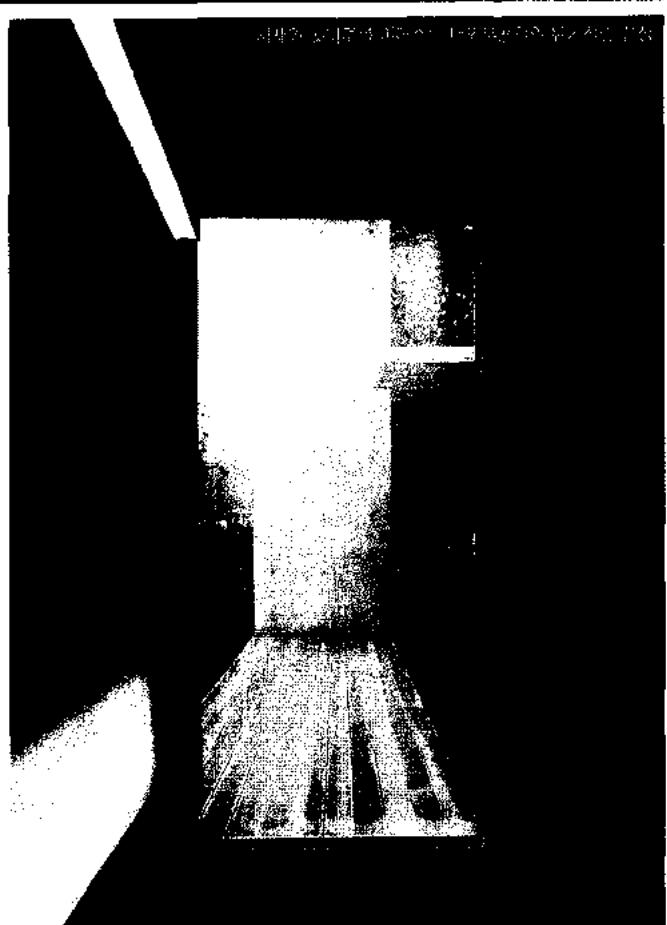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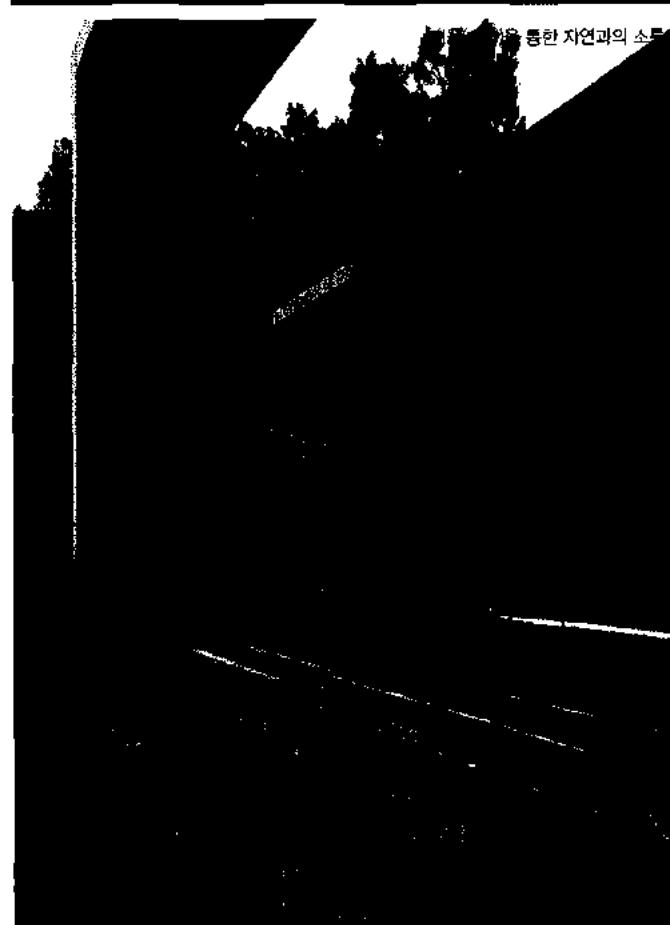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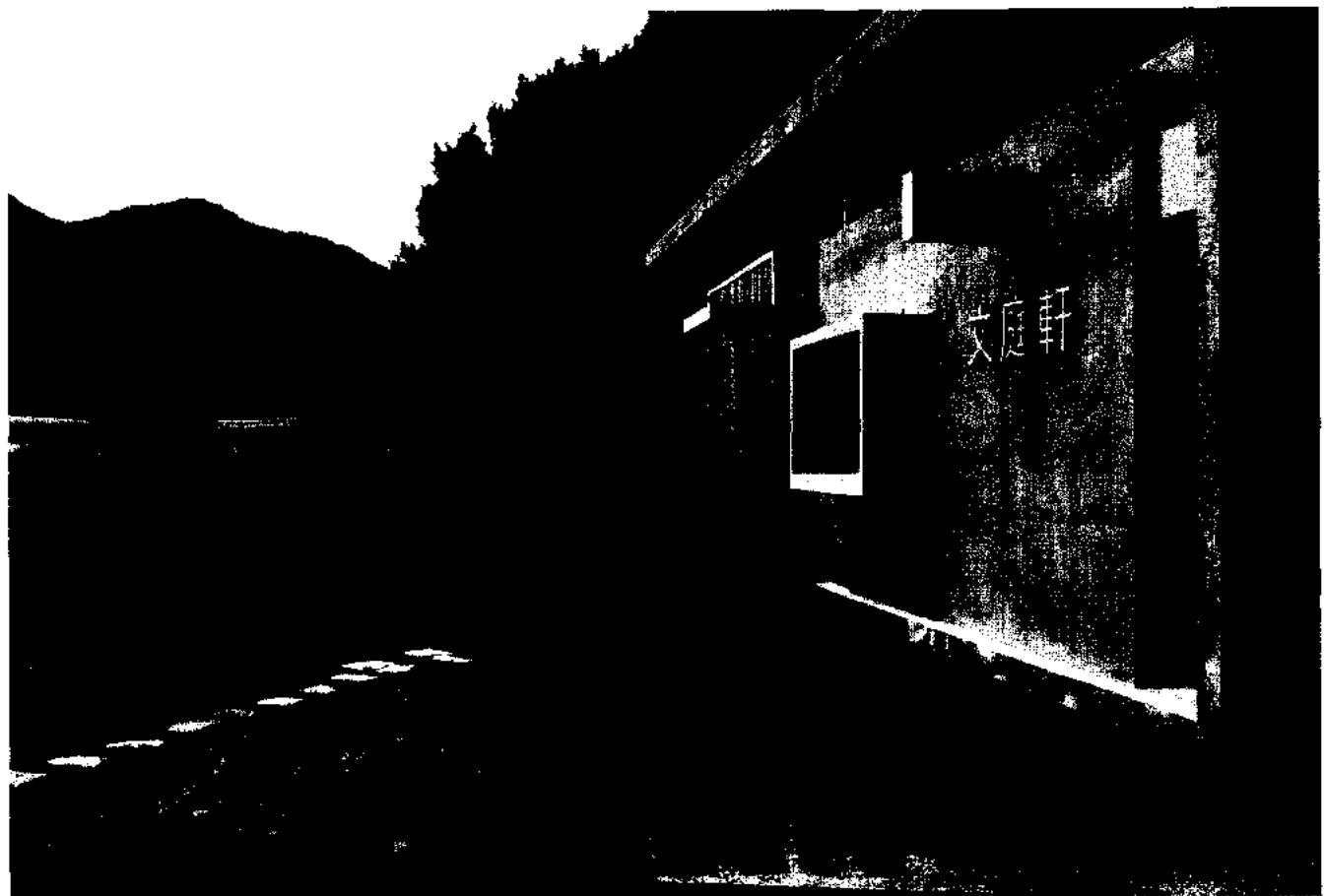
슬릿(slit)한 계단문을 통한 자연광의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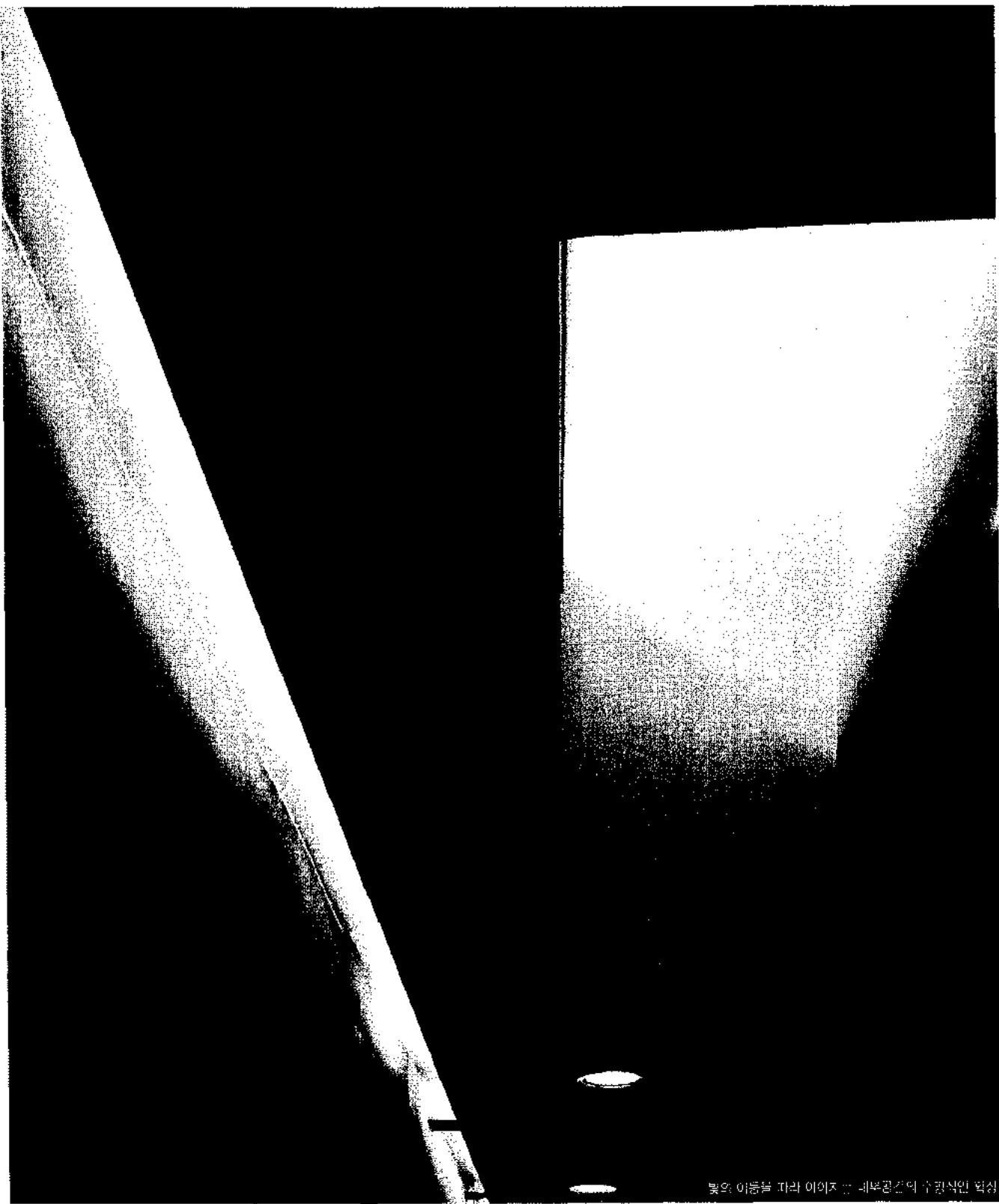


청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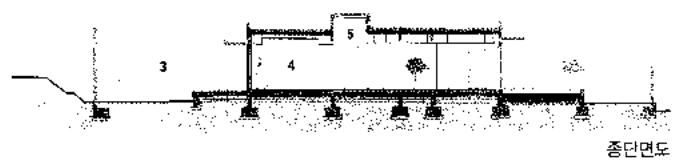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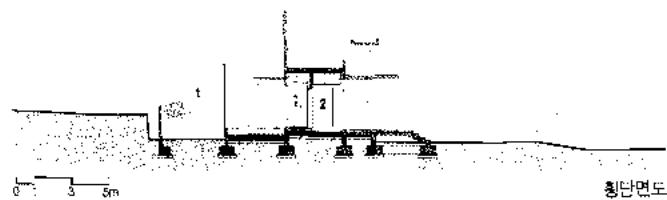


롯의 이름을 따라 이어지며 내부공간이 수평식인 혁성

01. 빛의 정원
02. 현관홀

03. 바위의 정원
04. 거실

05. 천장



모노타워

MONO TOWER

송춘식 / 정회원 (주)아카드림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Song, Choon-sik, KIRA

Project Team: Yang, Seung-yeol · Kim, Kil-soo · Yoon, Jae-min · Park, Myung-jin.

Client: EBiznetwork

Location: Seoul Gangnam-gu Yeoksam-dong 695-30

Site Area: 258.80m²

Building Area: 154.36m²

Gross Floor Area: 720.91m²

Building to Land Ratio: 59.64%

Floor Area Ratio: 199.15%

Structure: R.C.

Structural Engineer: Power Structure Consultants

Electrical Engineer: Ye-Won Eng

General Contractor: Woo Duck Const Co

Building Scope: B1, 6F

Finishing Materials: T9.5 gypsum board, Water paint, T35 base panel

Photographer: not disclosed

Cost: 130 bn KRW

'모노타워'는 강남구 역삼동 선릉과 면한 대로의 뒤편 이면도로에 위치한 건물이며 지난 5월 6일 수용되었다. 건축주로부터 외회를 받고나서 준공까지는 계획(2개월), 건축 협약 및 실시설계(2개월), 공사관리(10개월) 등 총 1년 2개월이 걸렸다.

마지막 2면 도로로 둘러싸인 모퉁이 터지였고,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쪽이 두면 모두 6m이어서 건물이 양면으로 도로시선을 직접 받는 터지였기 때문에 안정대지에 인해 있어서 양조관에 대한 세인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도로 자체도 2면 도로 모두 모서리 꼭짓점을 향해서 약 1m 정도의 내리막 경사가 있어서 1층 바닥만 설계가 무식 아니까닭에 건물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기울여 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떠한 제약 없이 그 건물이 그러한 자태로 원래부터 서 있을 것 같은 모습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건물에 수용해야 할 직원 수도 많아서 평면 계획과 함께 지리 배치까지 고려해야 했다.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모노타워를 최상의 업무용 건축물로 만들어낸과 동시에 동네에 품고 있는 조용한 아름다운 속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의 주 용도가 회사의 사옥이기 때문에 보다 미래지향적인 하이테크 이미지와 독창성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서 현수와 사선을 석구석으로 사용하여 사각형 위주의 간결함과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며 역동적이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우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외장재로서는 주물성이 좋은 노출콘크리트와 맑고 밝은 느낌의 커튼월 시스템을 선택하였다.

지상 5층에는 아담하면서 깨끗한 느낌의 정원을 계획하여 직원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6층 CEO실에서는 동쪽의 선릉 공원을 보여 각별한 도심속에서 자연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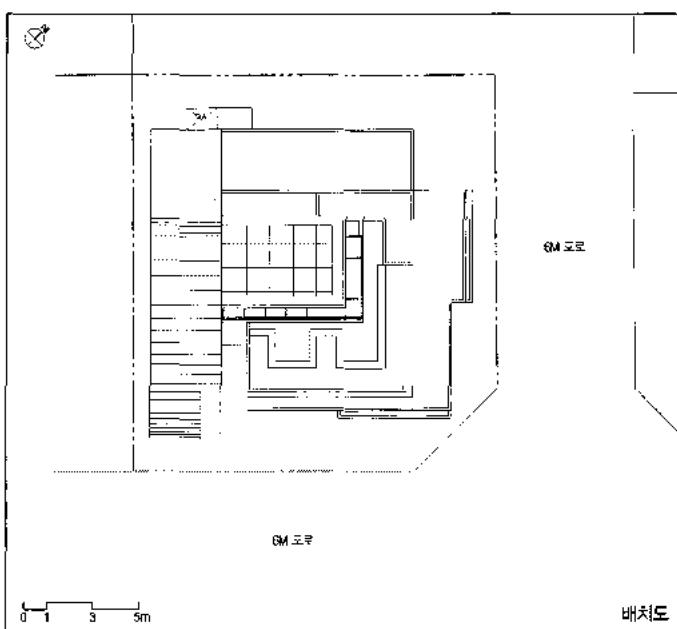
MONOTOWER, which is located on side streets nearby Seolleung park, Yeoksam-dong, Gangnam-gu was completed on May 6th. After receiving requests from client to completion, planning works(2months), final design(2months), construction supervision(10months), it took total 1year 2mon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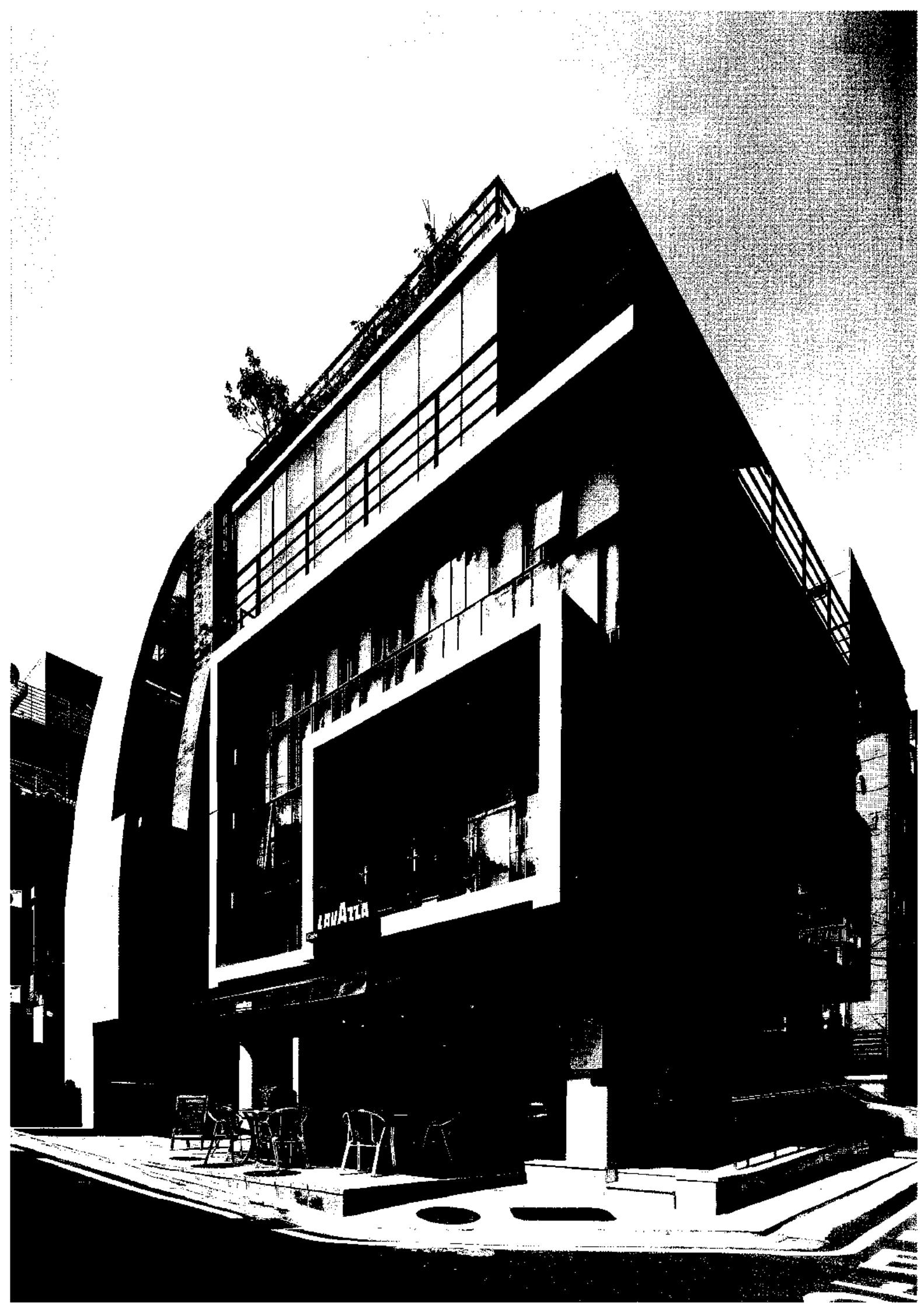
The site was a cornerlot surrounded by 2roads. The site has some diagonal line limit about 2roads and north side right to enjoy sunshine. And first floor slab was very difficult to design because 2roads are sloped toward corner of the site about 1m height. So we gotta make various kinds of attempts to overcome the site conditions. And we tried to find a appearance that it was standing from the original without any restricts.

And we gotta consider the seat planning with floor planing because there are many staffs to accommodate. Among these concerns, we made MONOTOWER to the best business building and made it permeate into a quiet town bea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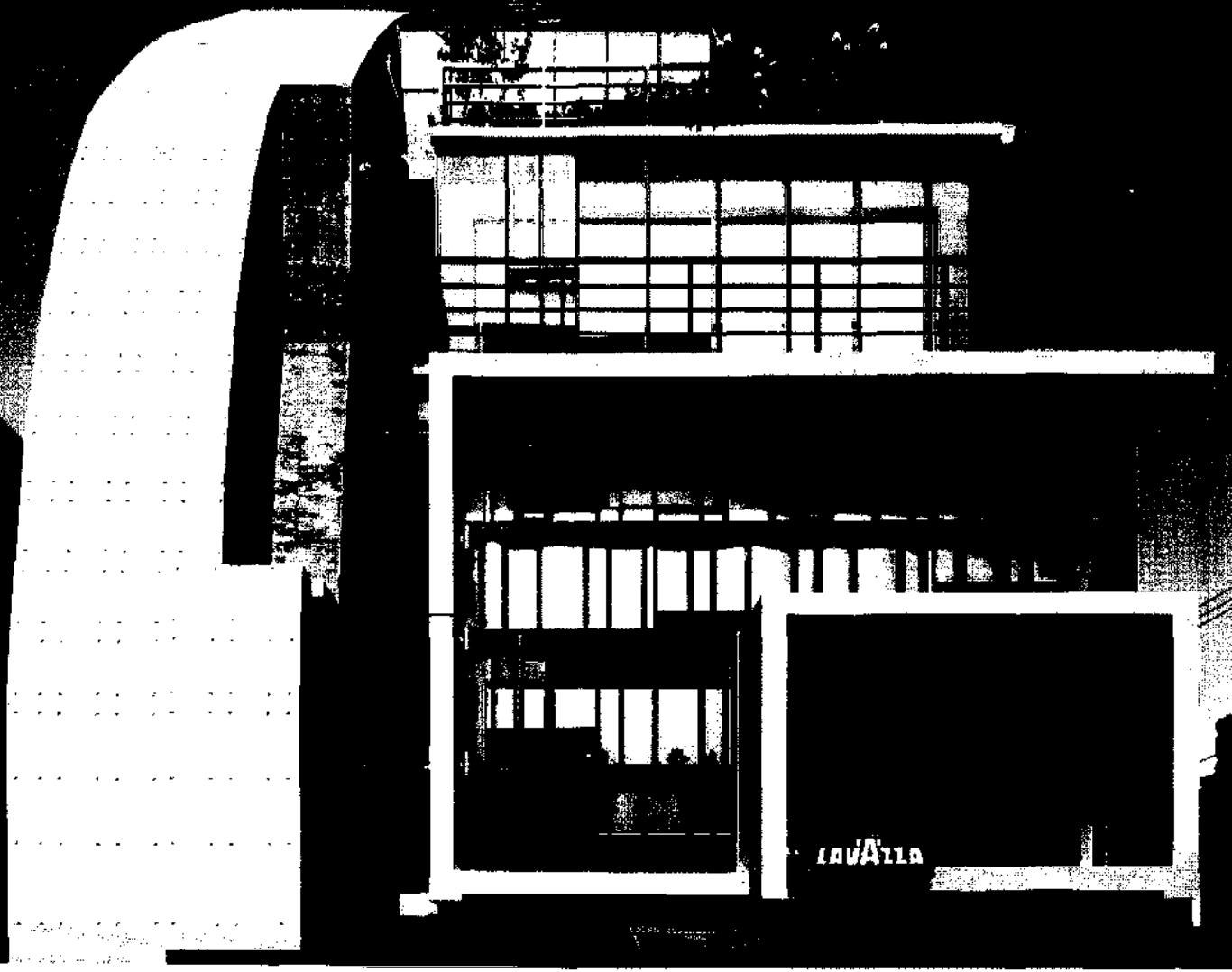
As main use of a building was the office building of an IT company, we attempted to differentiate with a rectangular building by using a circular arc and diagonal line, induced a dynamic and smooth image, to implement a future-oriented high-tech image and originality at the same time. Because of such a reasons, we selected a exposed concrete that sculptural nature was good and a bright clear curtain wall system in exterior materials.

On the 5th floor, we put all of staff in the way of enjoying their rest by planing a garden of warm ambience, on the 6th floor ceo room, planned to communicate with nature while looking at Seolleung park in the eastsid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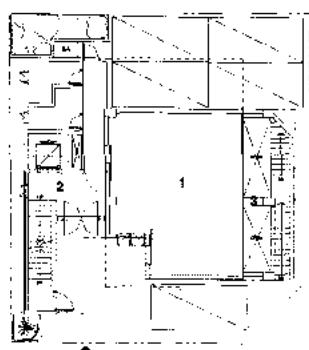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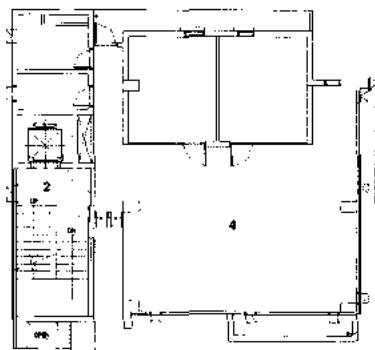


01_근린생활시설
02_홀
03_선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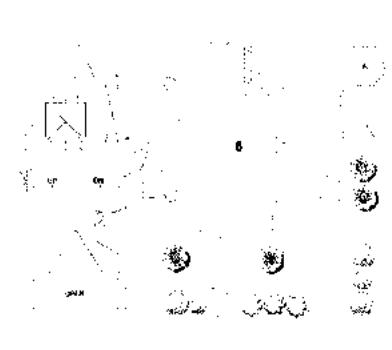
04_사무실
05_발코니
06_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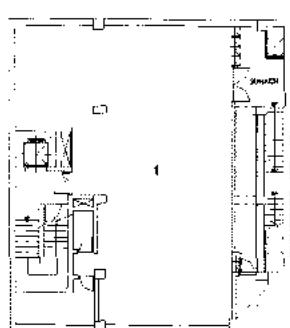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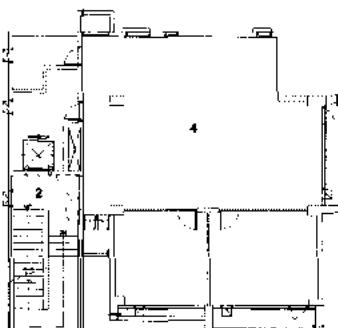


6층 평면도



0 1 3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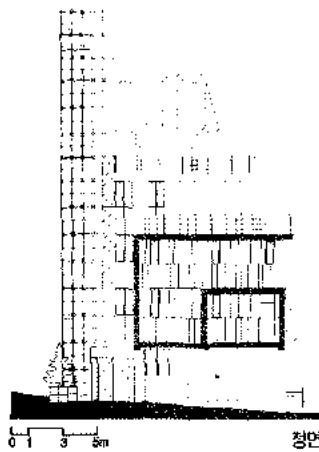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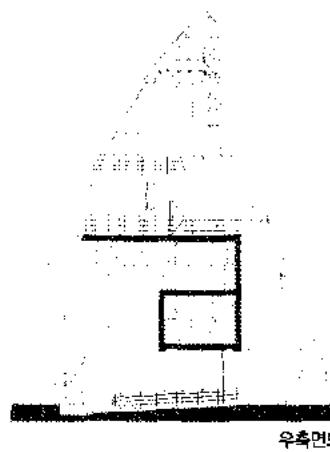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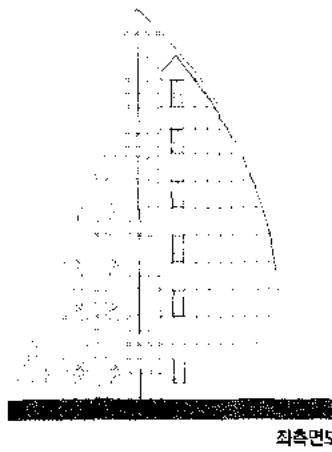


0 1 3 5 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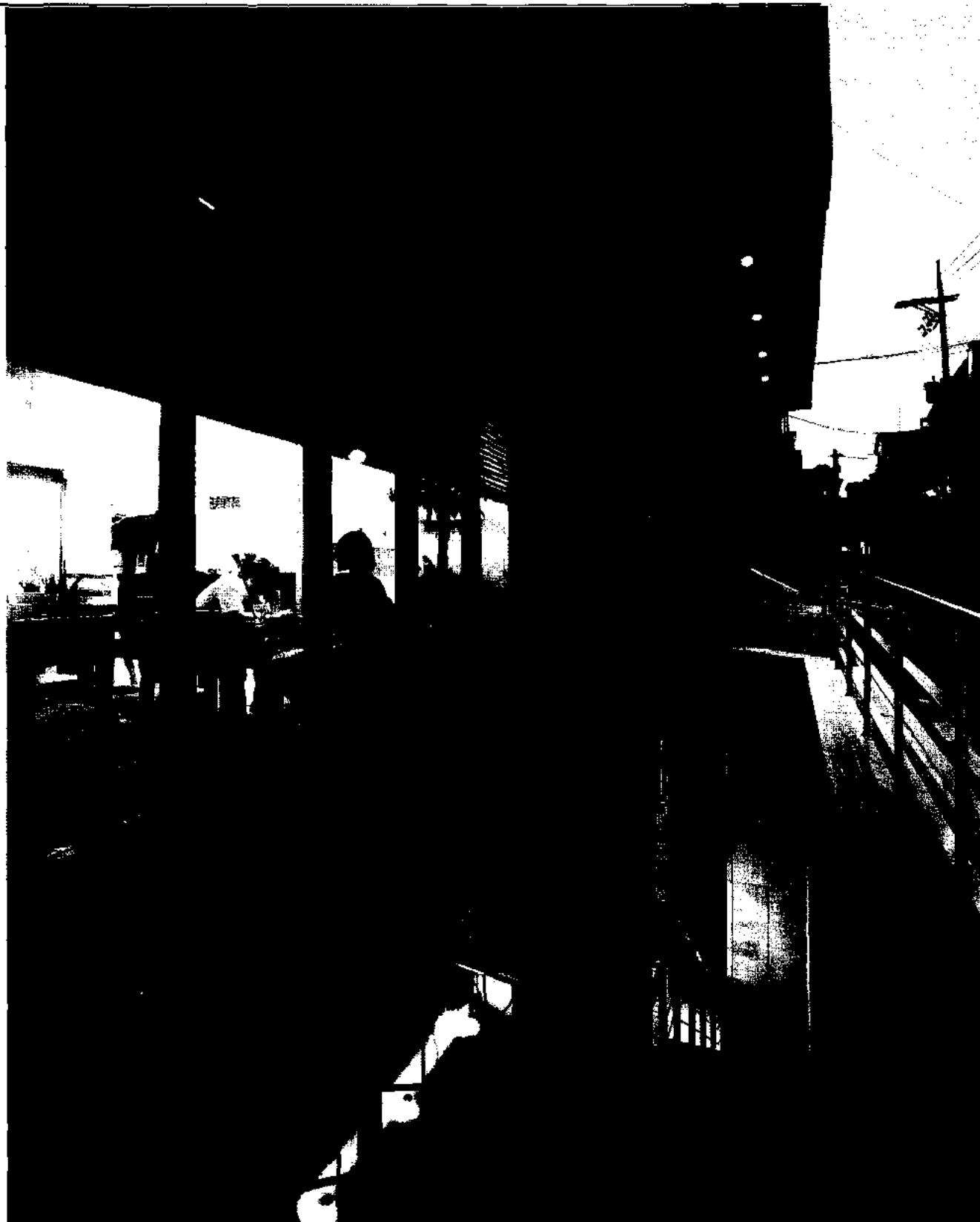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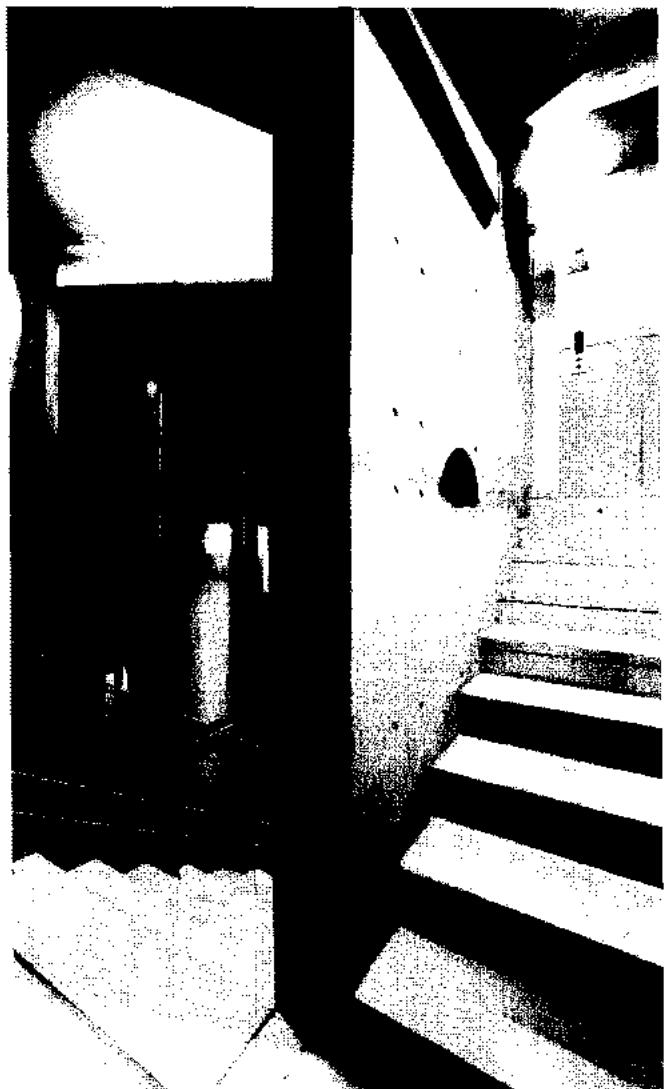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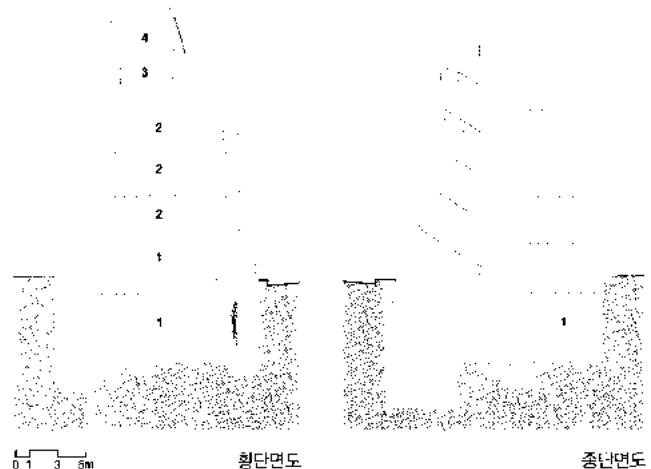
좌측면도





01. 근린생활시설
02. 사무실

03. 옥상정원
04. 시장실



송담 실버타운

Silvertown Songdam

우종직 / 정희원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Architects / Woo, Hong-jig, KIRA

배경 및 장소 _ 동해의 외도운침 올릉도

유일하게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올릉도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시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실제 고령의 독거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올릉도는 국토의 막내등이 독도(울릉도 동쪽으로 87km)와 더불어 우리나라 동해비다리를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삼이다. 포항으로부터 217km 강원도 동해로부터 16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는 1만5천여명이 거주하며 성인봉(해발 983.6m)을 중심으로 전체 해안선이 56.5km에 달한다.

배치, 구성 _ 우리 부지는 시면 태하리의 일주도로에 관한 시각 해안가의 '학포'라는 작은 어촌마을에 자리 잡은 것으로 네다쪽이 확보한 약 20m 이상 높이를 가진 경사지였다.

경사지 극복이 배치계획의 관건이었으며 해결방법으로 해안가 지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冤이 배치로 여섯개의 넓은 단의 마당을 만들어 Mass를 형성하였다. 육지의 가장 가까운 곳이라 맑은 날이면 육지가 어렴풋이 보인다고 한다. 섬사람들이 육지와 가고 싶은 동경의 대상으로 건물 Mass 전망대를 점진적으로 들출시켜 한걸음 한걸음 육지에 가고 싶은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재료 _ 외장은 노출콘크리트와 붉은 벽돌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이며, 건물 주변에 많은 용기 된장단지는 건축주가 올릉도의 깨끗한 바닷물(남해수)로 초박된장을 개발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것이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어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는다고 한다.

예산과 거리상 간접업무의 한계로 일부재료와 디테일이 의도와 다르게 변형된 것이 아쉬움으로 넘는다.

Background and Place

Ulleungdo, a solitary island in the East Sea of Korea was the only region which had not had any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in Korea. However, aging rate of Ulleungdo is more rapidly increasing compared with other cities and counties and in fact, many old people live in this island.

Ulleungdo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islands which keep its own position firmly in our East Sea along with Dokdo, the island belonging to our last territory 87km far from the east of Ulleungdo. It is located 217km and 161km far from Pohang city and the east sea of Gangwon-do each and has 15,000 inhabitants, and its total coastline length amounts to 56.5km centering around Mt. Seorinbong (which is 983.6m above the sea).

Arrangement and Composition

Our building site was a slope with the level of over 20m which has open sea as the place that has been located at a sea village called "Hakpo," on the west seashore facing a running road of Taeha-ri, Seo-myeon. Overcoming a slope was a key for our arrangement plan, and formed a mass by making six yards with wide raised ground using 'Daraengi arrangement' which can be easily seen in topographies of seaside as its solution. It is said that land can be seen dimly on a clear day because it is the closest by land. Its composition expresses "yearning" that makes them wish to go to land step by step by gradually bringing the building mass into prominence as land is a longing object of islanders to which they want to go.

Materials

This silver town is nature-friendly because exposed concrete and red bricks were used as its facing materials, and many pottery soybean paste pots contain pumpkin duenjang which is being developed using clear seawater (deep water) of Ulleungdo by an owner who constructed its building. It's said that this building is loved by many tourists since it is in harmony with surroundings and forms special scenery.

We feel something wanting because its some materials and details was transformed in unintended way due to the limitations of construction supervision service in terms of budget and distance. ■

Project Team Cho, Seung-oh · Seo, Won-duck · Bak, Han-jeong · Kang, Ju-yeon

Client Social Welfare Corporation Youngbulwon

Location Gyeongsangbuk Ulleung-gun Seo-myeon Taehari 450

Site Area 5,359m² Building Area 1,509.55m²

Gross Floor Area 2,458.54m² Building to Land Ratio 28.17%

Floor Area Ratio 43.58% Structure R.C

Structural Engineer Beom Structural(Jang, Woo-hyuk)

Electrical Engineer Hankook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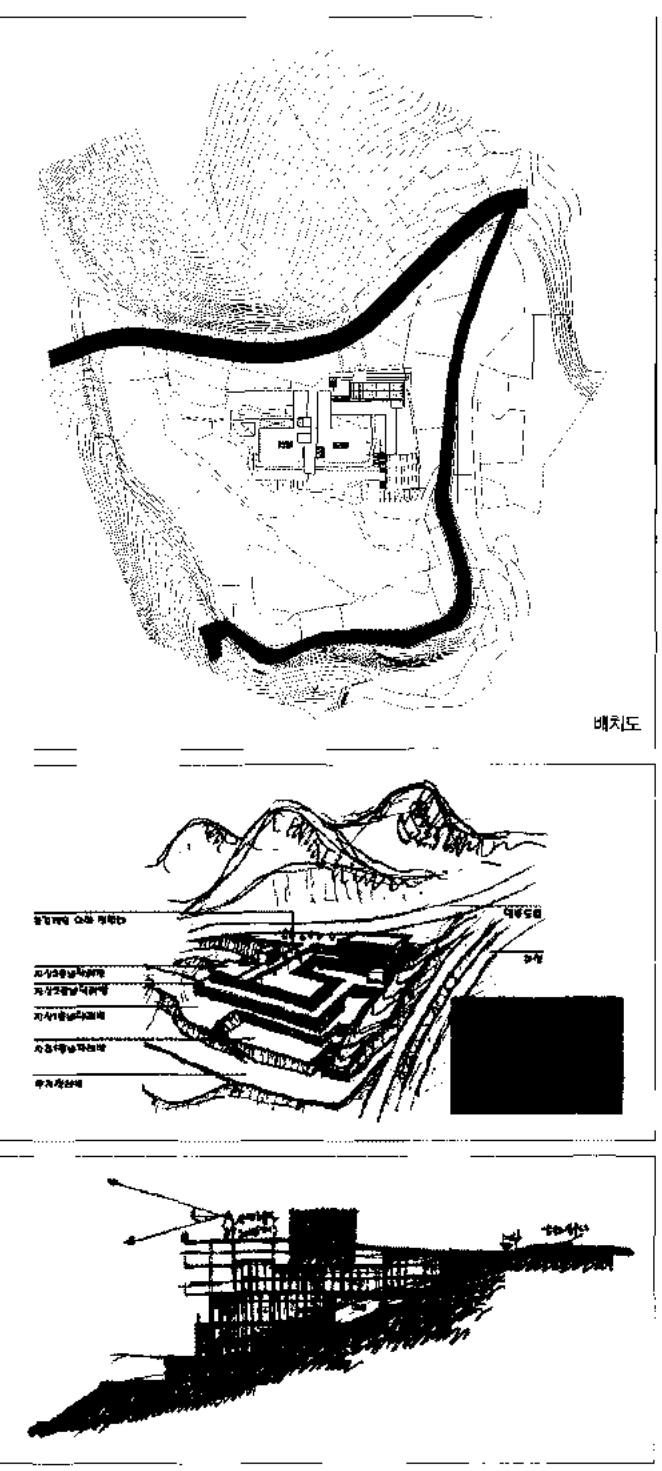
General Contractor Julie corporation

Building Scope B1, 3F

Finishing Materials Exposed Concrete, Copper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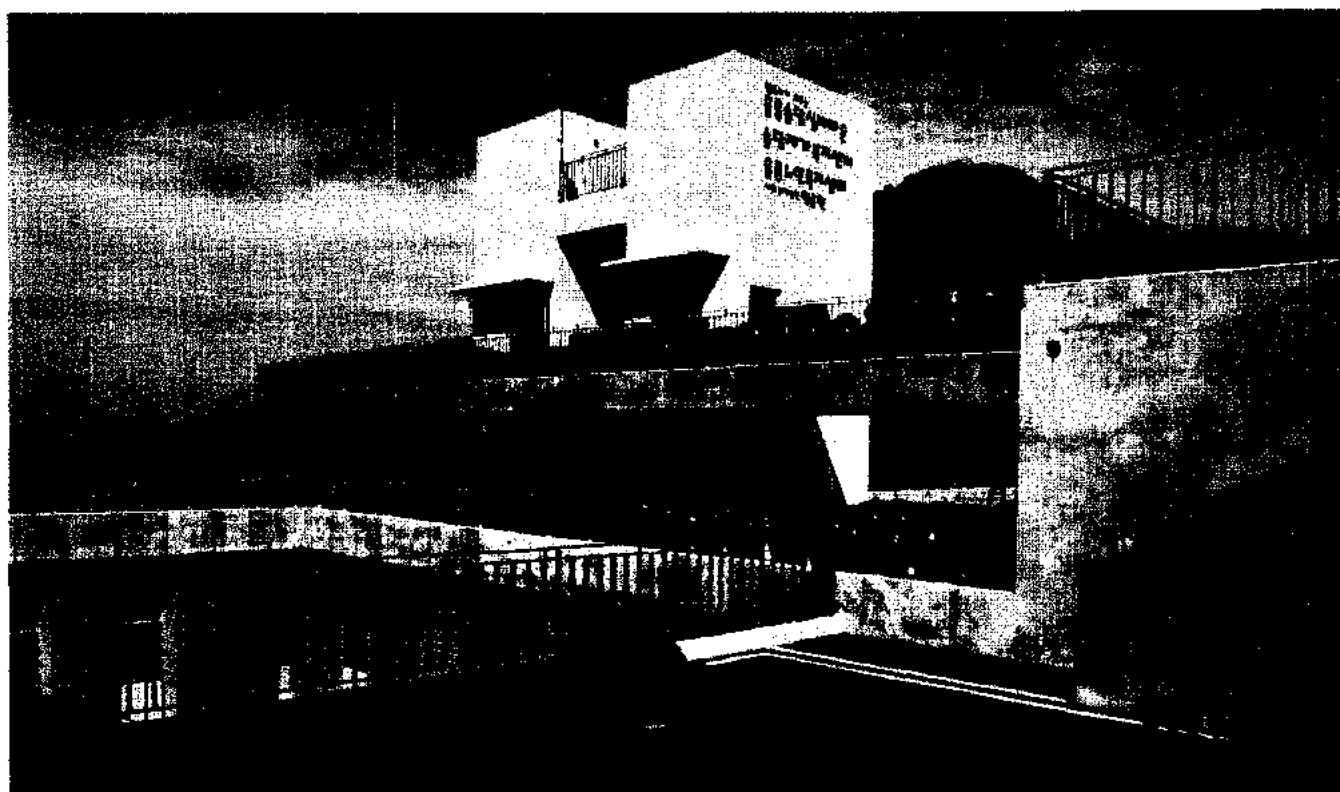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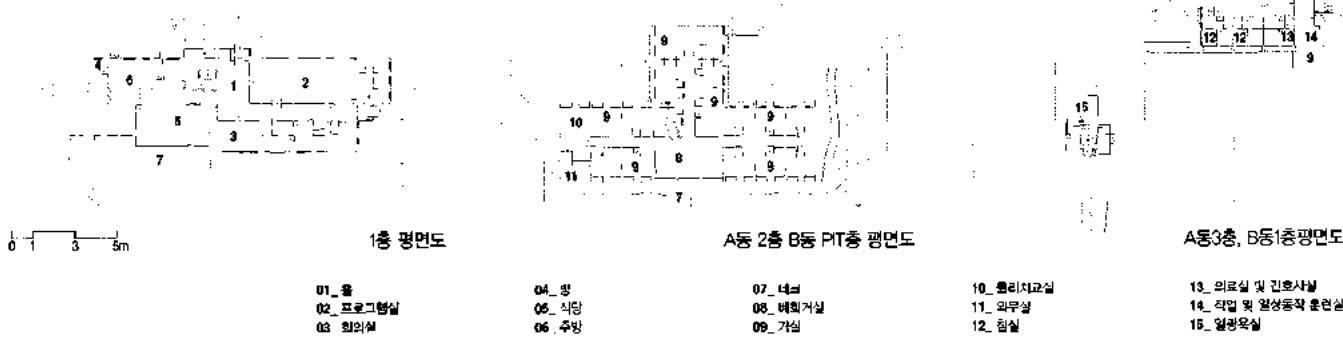
Photographer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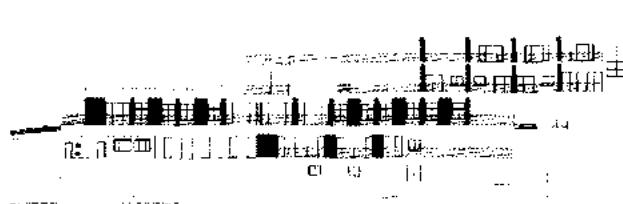
Cost not disclosed





일주도로에서 바라본 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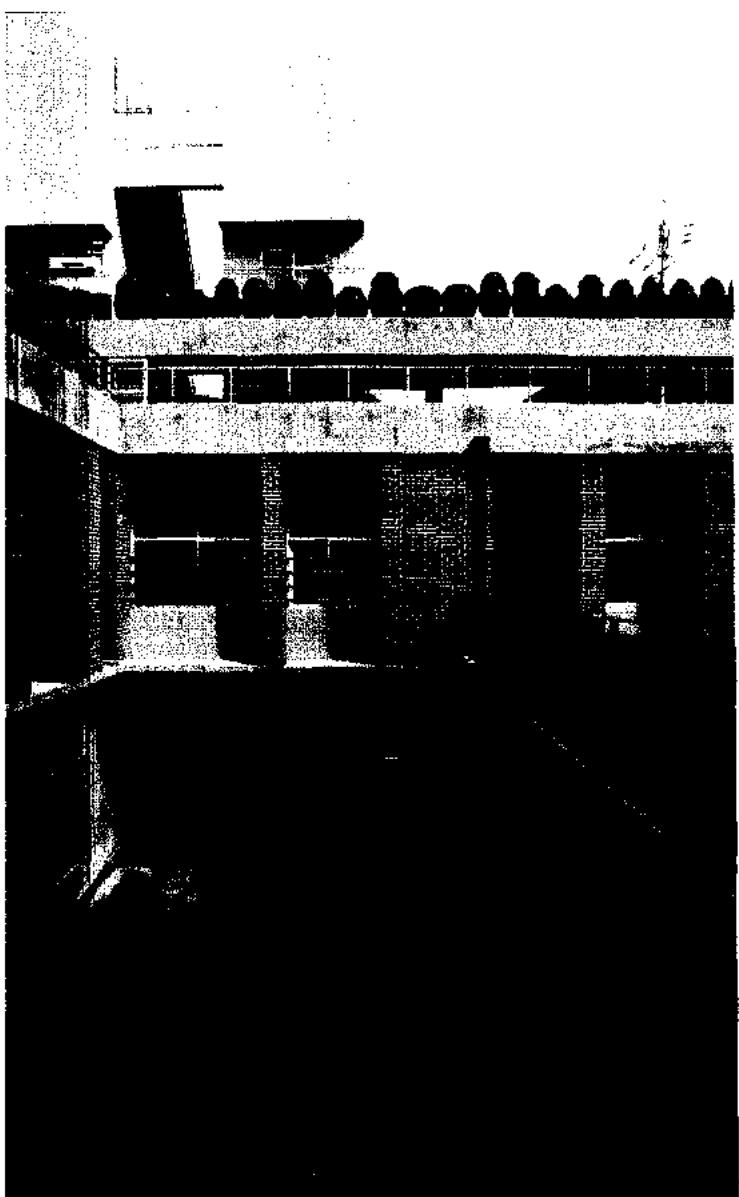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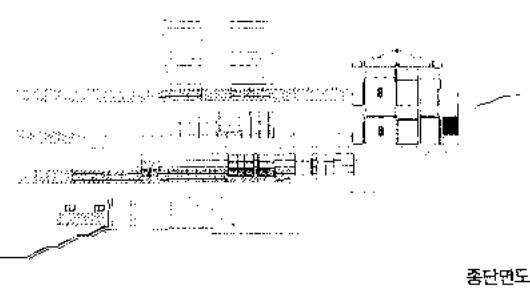
01_ 기계실
02_ 물탱크실
03_ 쓰임

04_ 주방
05_ 거실
06_ 배회기실

07_ 물리치료실
08_ 침실



횡단면도



종단면도

자양3세대 종합복지센터

Jayang Welfare Center

조민석 / 정희원 단아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Cho, Min-suk, KIRA

Project Team: Kwon, Eun-bo · Park, Young-sik · Choi, Jin-hyup

Client: Seoul Gwangjin-gu

Location: Seoul Gwangjin-gu Jayang-dong 581-2

Site Area: 1,010.70m²

Building Area: 521.09m²

Gross Floor Area: 2,997.24m²

Building to Land Ratio: 51.56%

Floor Area Ratio: 178.85%

Structure: R.C.

Structural Engineer: han structural engineers

Electrical Engineer: dongdo MEC Inspire Co., Ltd.

General Contractor: LIG E&C Co., Ltd.

Building Scope: B2, 5F

Finishing Materials: exposed concrete, titanium zinc

Photographer: Park, Jea-young

Cost: not disclosed

3세대가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요즘 맞벌이하는 아들·며느리를 대신해 할머니가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것이 흔한 일이 됐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엄마와 할머니도 아이와 같은 건물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한 건물에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을 갖춰 어린이·성인·노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세대간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

도시의 여백

비워짐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채워짐에 의해 둘보인다. 그러나 현대 도시공간은 무분별한 개발의 역사로서 무기차적 도시영역 확장과 채우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발전해오고 있다. 본 계획안에서는 도시의 여백을 상상해보고 감성적 도시풍경을 꿈꾼다. 도심에 비워진 공간을 제공해 품으로써 자연을 이끌어 들이고 건물에 상그리운 녹음을 투영하여 따스로운 공간을 도심에 제공한다. 건물의 여백은 건물 옆 빈 배경이 아니라 도시라는 큰 캠퍼스위에 놓여진 하나의 퍼즐조각임을 생각한다.

이야기가 있는 마당

이야기는 수많은 생각의 집합이며 행위의 결과물이다. 이야기 틴팅에 있어 주요한 원인은 이벤트와 이벤트를 수행하는 행위자이지만 이 두 원인이 생성될 수 있는 근본은 장소에 있다. 장소는 공간이며 부형의 이벤트이다. 도시와 건물의 경계에 마당을 두어 사회구성원의 모임을 유도하고,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 품으로써 생동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또한 악힘이 없이 흐르고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해 품으로 건물에 무수한 성격을 투영한다. 앞마당을 통해 발달되는 이야기는 안마당과 하늘마당으로 이어지며 내부공간에 다양한 이벤트를 만든다. 아늑하고 햇빛이 잘 드는 밝은 공간인 안마당은 사용자에게 안도감을 주며 어린이집과 연계되어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하늘마당은 한가로이 주위를 거닐 수 있는 공간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바와 빛마루로 녹음이 우거진 옥상성원으로 개척하여 외부공간을 무한히 유입되는 쉼의 장소를 제공한다.

The community for multi-generations

These days it's not uncommon to witness grandparents taking their grandchildren to a nursery for busy parents. I propose a place where parents and grandparents can bring their kids and spend quality time together in the same building where one can find a nursery, a senior welfare center, and a social welfa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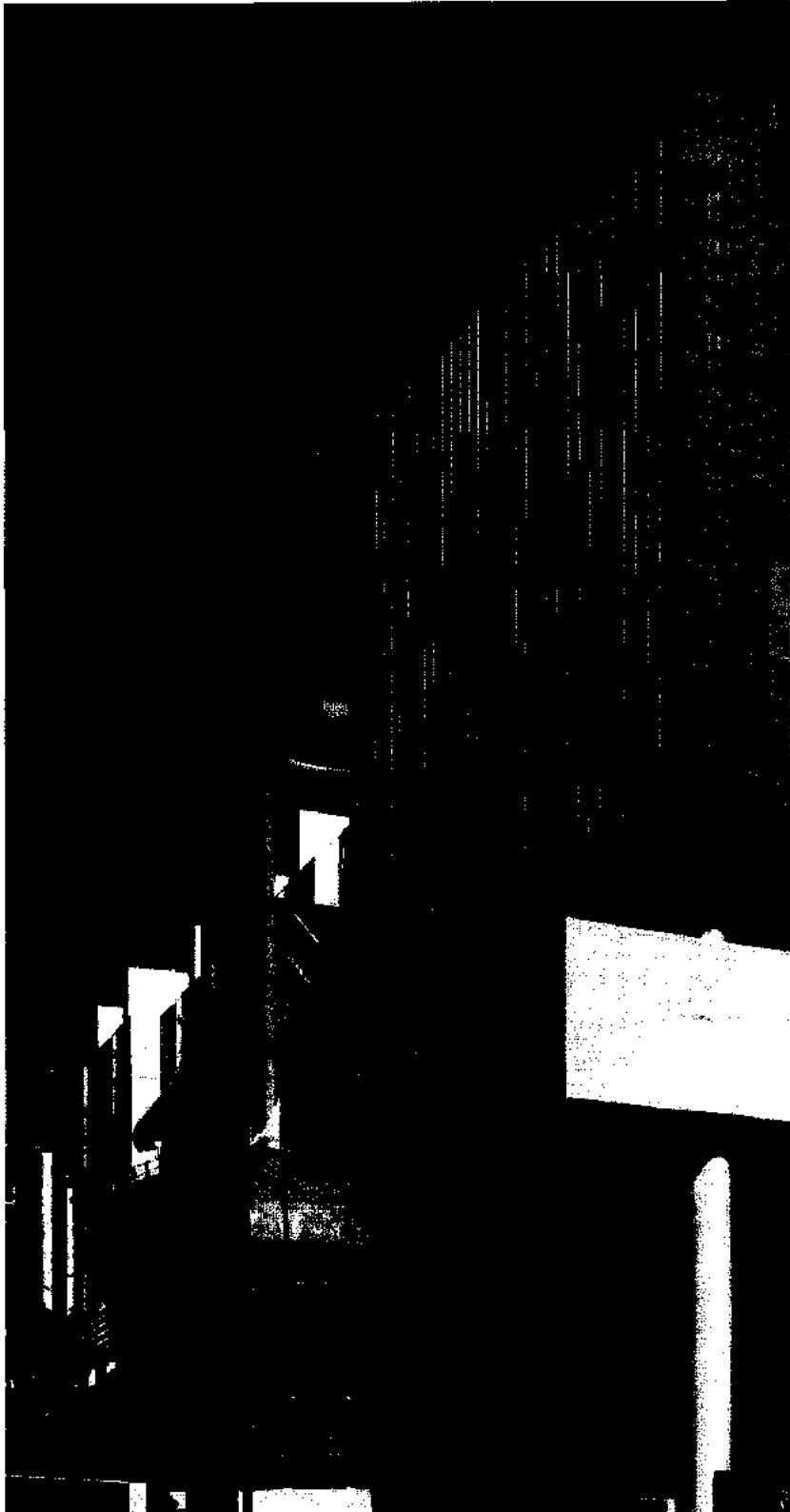
The void in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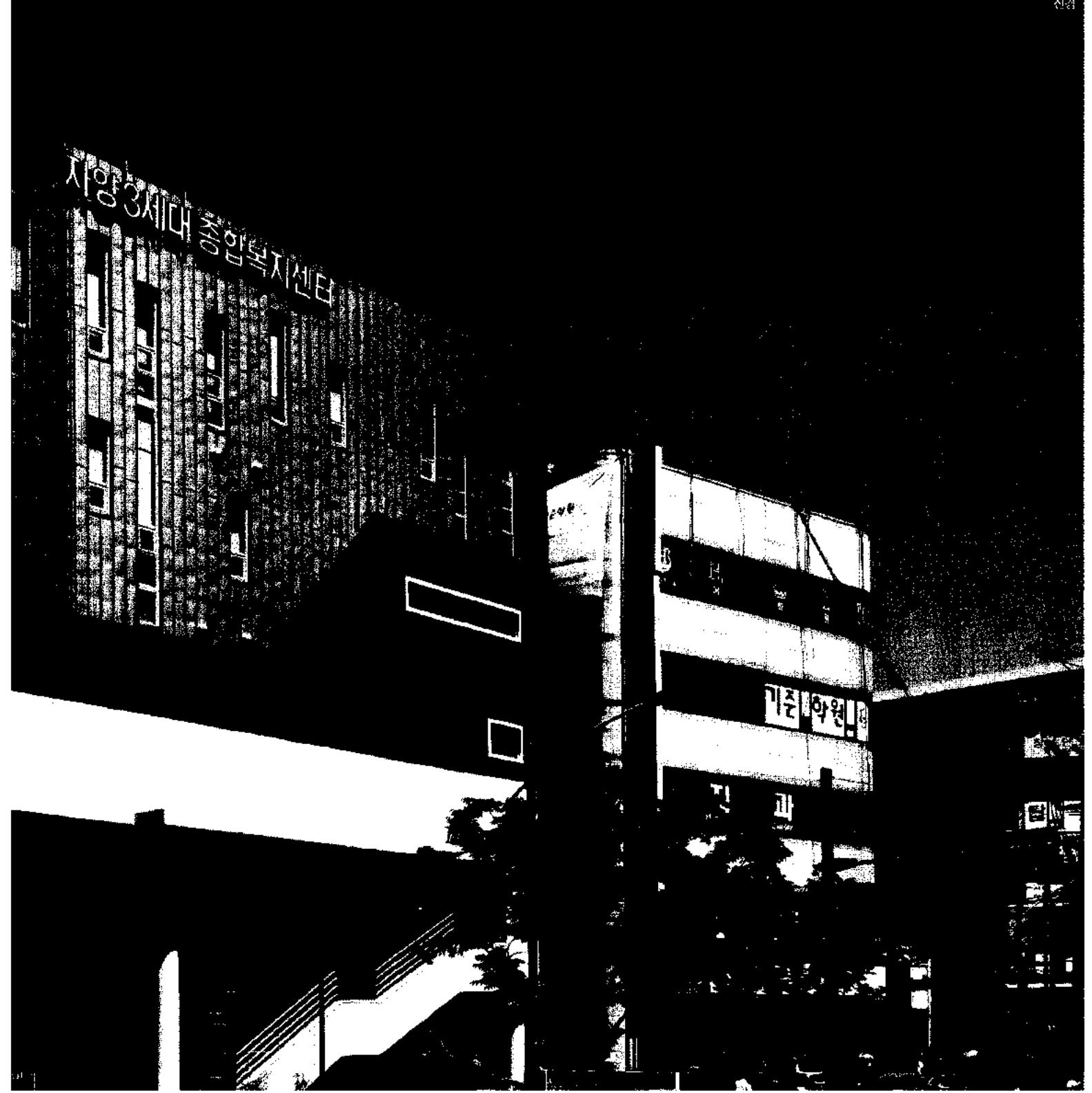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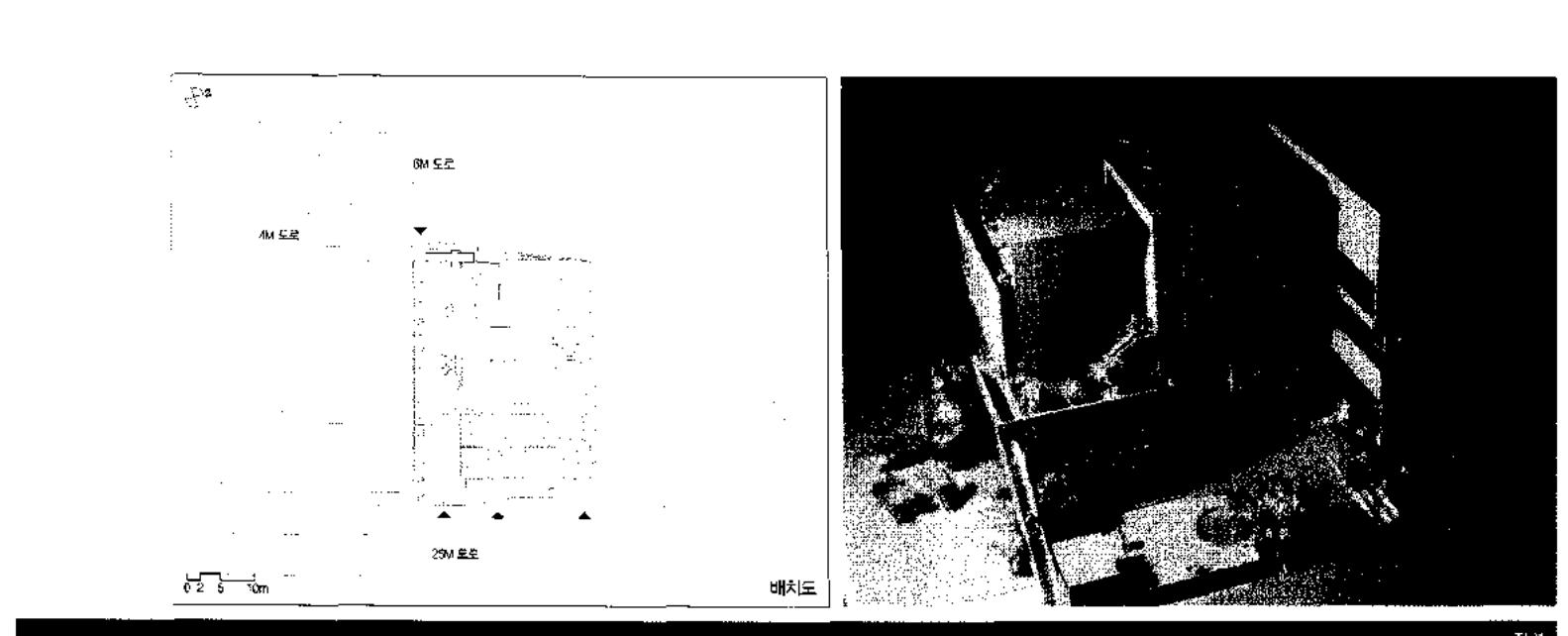
Modern cities show the history of thoughtless developments concentrating on filling up and expanding with no mea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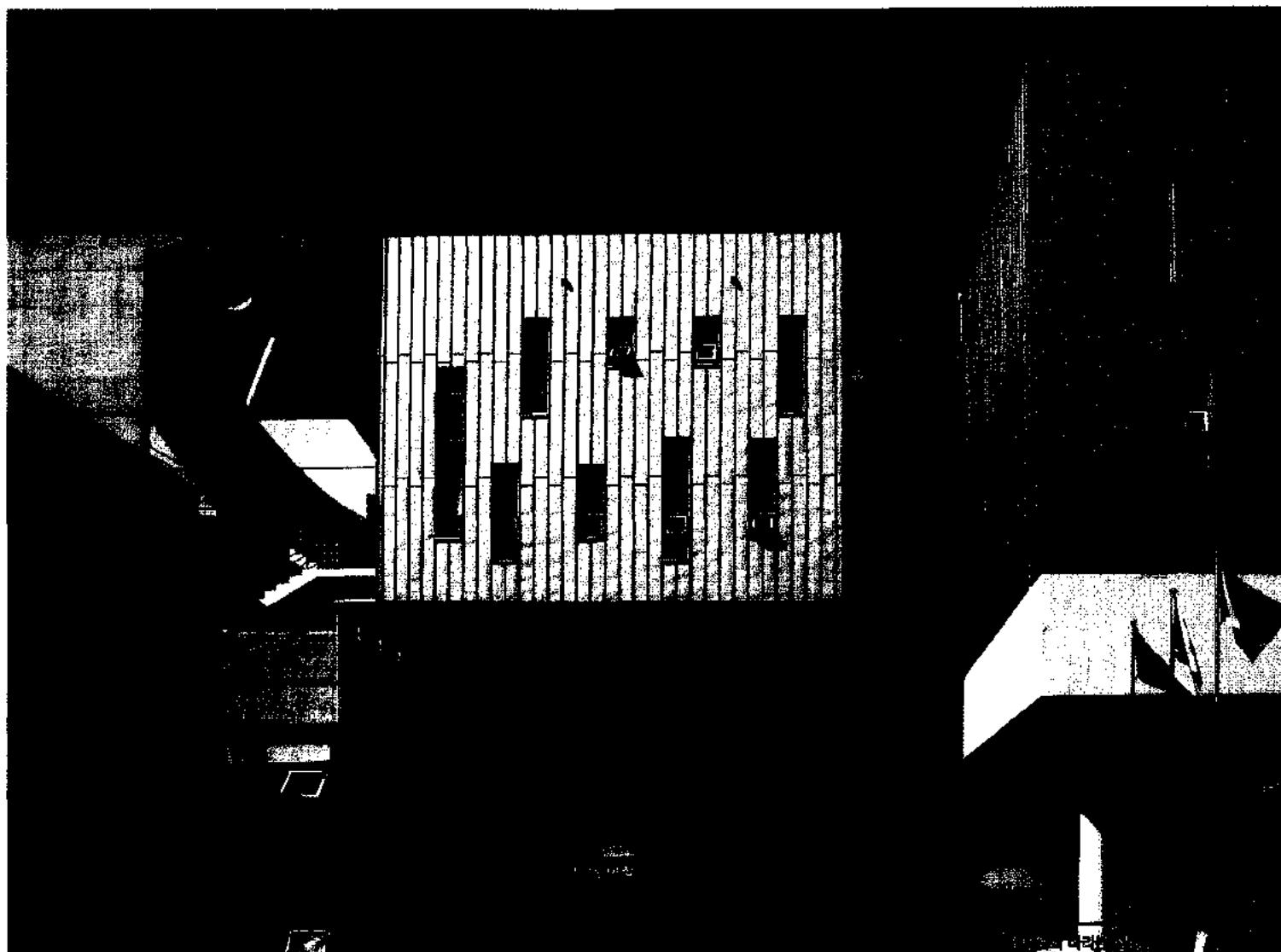
I suggest meaningful emptiness with emotional scenery in the city. The void spaces supply opportunity to bring in nature, resulting in a heartwarming atmosphere throughout the city. Blank spaces between buildings are not just vacant lots but puzzle pieces of a huge campus called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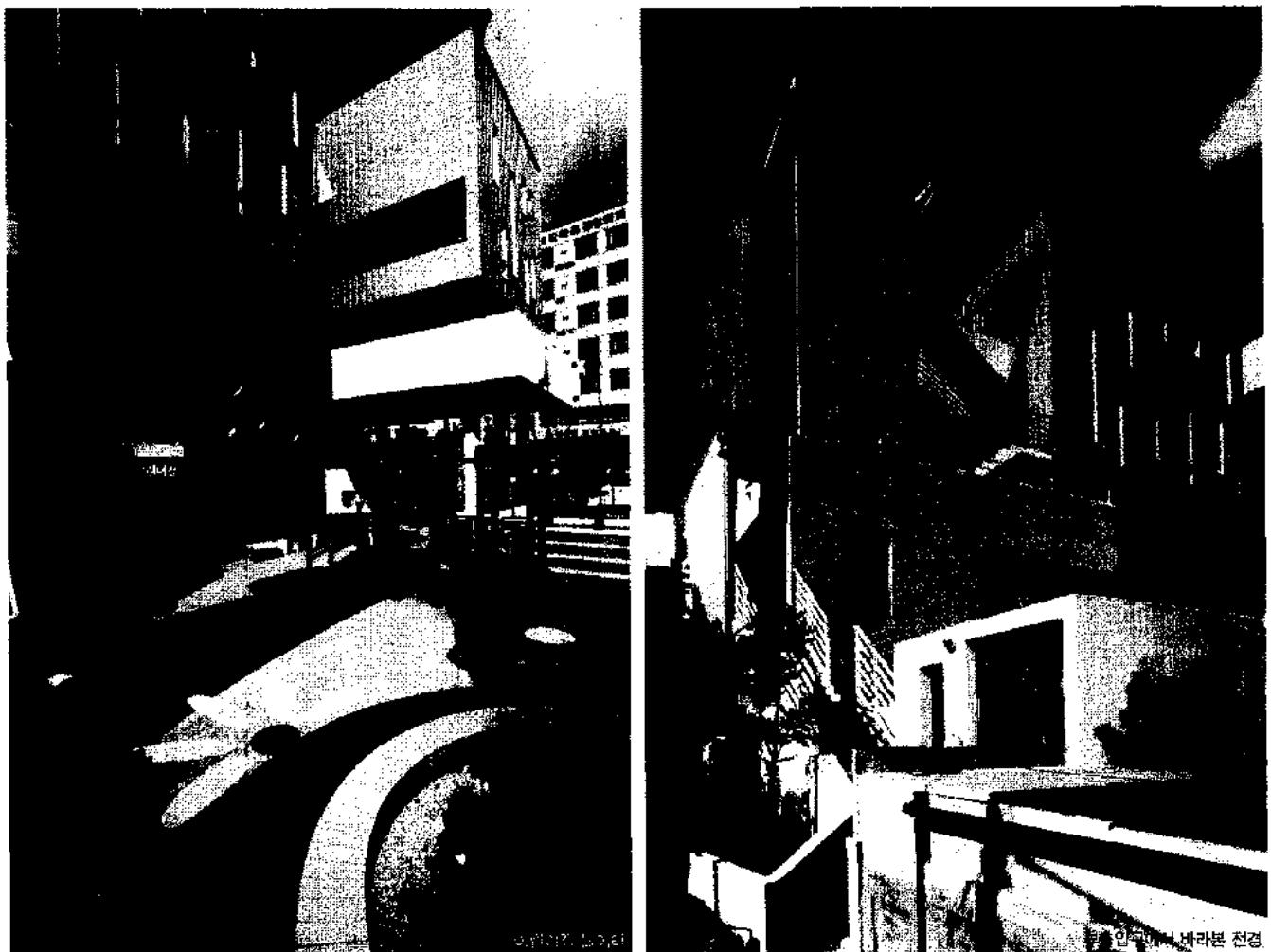
The yards filled with stories

A story is a gathering of various thoughts and results of activities. The main causes for the birth of stories are events and people, which are easily found at yards. I propose a yard at the border of the building; this will induce social gatherings and various events, and create a vigorous atmosphere. Flowing in and out freely, these spaces will project diverse characters on the building. A story originating from the front yard, flows through the courtyard and to the Sky court emitting diverse excitement. The well-lit and cozy courtyard not only comforts users but acts as a playground for kids from the nursery. Sky court, as a root garden where one can stroll, provides a green and shady resting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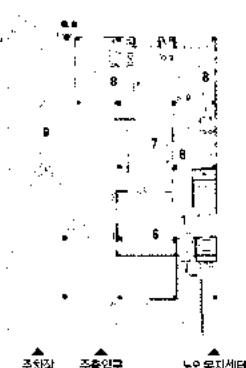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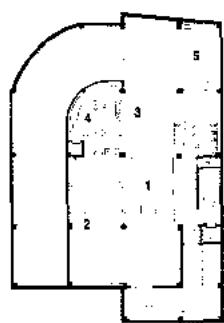




아름다운 계단과 바라본 전경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0 2 5 10m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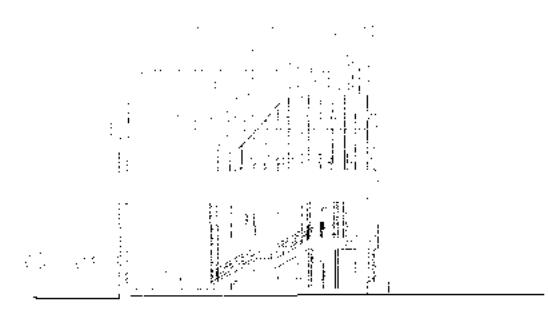
- 01_홀
- 02_강당
- 03_식당
- 04_수영
- 05_프로그램실
- 06_교시실
- 07_유아실
- 08_보육실
- 09_놀이터
- 10_목의 집하정
- 11_사회복지 사무실
- 12_파이노스
- 13_청원
- 14_대상마을
- 15_집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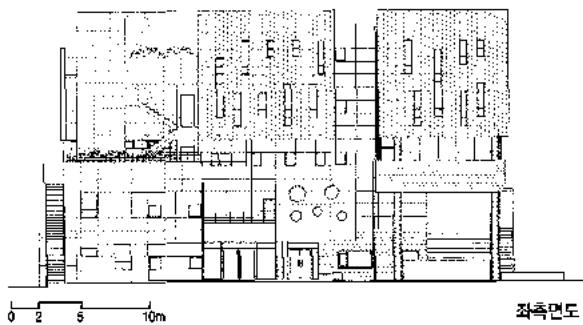
2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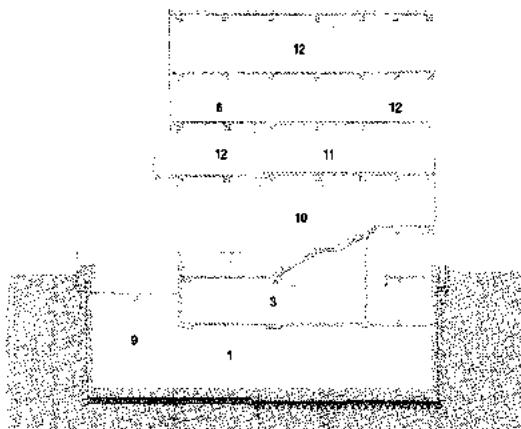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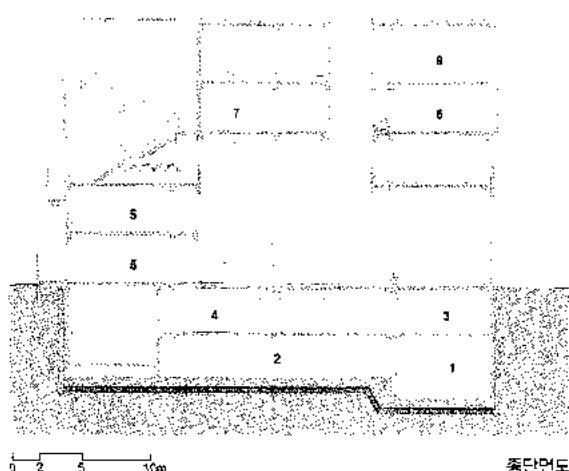
전측면도



전측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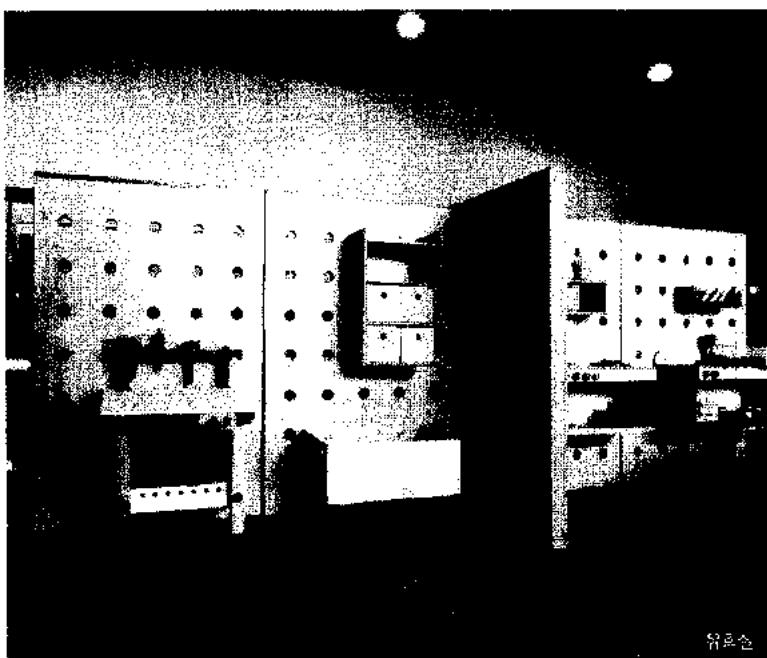


종단면도

- | | | | |
|----------|-----------|---------------|--------------|
| 01_ 발전기실 | 04_ 조리실 | 07_ 실버 컴퓨터 교실 | 10_ 음악 강화장 |
| 02_ 주차장 | 05_ 보육실 | 08_ 접회실 | 11_ 사회복지 사무실 |
| 03_ 강당 | 06_ 물리치료실 | 09_ 전기실 | 12_ 노인복지 사무실 |



식당식



유호순

희영재

Hee Yeong Jae

정승이 / 정희원 유한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Chung, Seung-yi, KIRA

건축개념 _ 대지는 동측과 북측으로 도로가 있고 남북으로는 1m 정도의 경사가 있는 조건이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수평체계를 계획했다.

현관, 거실, 주방, 식당, 수영장, 누마루로 이어지는 커스텀은 대지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걸과다. 경사지에 따른 자연스러운 공간계획인 누마루는 사광체의 개념이다. 또한 취미를 위한 공간이나 정적인 음악과 여유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각 실에서 빛의 변화를 느끼는 공간으로 계획하여 빛에 따른 음영의 조화가 있게 하였다.

설계 이야기 _ 주택은 1층에 공동공간인 거실, 주방, 식당이 자리한다. 그리고 외부의 수 공간과 마당을 계단식으로 연결하는 정자 형태의 데크가 한쪽으로 마련되어 있다. 바닥 높이가 반 층씩 차이 나는 스킁플로어(Skip floor) 방식을 채택하여 공간에 변화를 준 것이다.

현관을 들어서면 주택의 중심부에 노출콘크리트로 구성된 내부 계단이 위치하고, 계단의 큰 창을 통해 지하 취미실까지 남쪽의 햇살이 깊숙이 들어온다.

2층은 사생활 보호가 되도록 침실들로 구성하였으며, 건축주 부부의 방에는 외부 테라스를 배치하였다. 이 테라스는 삼학산과 수백의 마당, 주변 노로로 시선을 사연스레 유도하는 전망대의 역할을 한다. 자녀 침실에도 날찍한 테라스를 두어 여유로움을 더하는 동시에 일연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지형을 이용한 단면 그리고 현관 _ 남북으로 경사진 형태의 지형을 이용한 단면의 구성이 희영재의 특징이다. 스킁플로어는 이 주택의 중요한 개념으로, 대지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 있다.

현관의 위치는 지형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북쪽 중앙으로 정했다. 현관을 통해 주택에 들어서면 노출콘크리트 계단이 하나의 오브제처럼 펼쳐지고, 계단 사이로 남향의 햇살과 마당이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마당 앞으로 데크와 수영장이 보인다. 북측의 도로로부터 남측의 수영장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시선의 흐름이 연계되어 확장된 공간영역을 만들어 준다.

넓은 면적의 주방 _ 주방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거실보다도 더 많이 머물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하여 계획하게 되는 공간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주방과 식당이 자리하기를 바란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생활이 바쁘고, 성점 여유가 없어지는 현실에서 막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가족의 생활을 청결해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희영재의 주방과 식당은 무척 넓다. 단순히 조리와 식사를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데크와 수영장, 앞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복합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주방 한가운데 이인랜드 테이블을 설치하여 주부의 시야를 마당을 향하게 함으로써, 보통 벽을 바라보며 요리할 때 생기는 답답함을 없앴으며 외부의 변화를 시간별, 계절별로 느끼게 한다.

또 하나의 즐거움을 추가한다면 마당에 있는 이 집의 애완견인 물치의 재물을 넓은 식당창을 통해 볼 수 있어 감수성이 둘째한 민주언에게 최고의 행복을 제공해 주고 있다.

Project Team Yang, Yong-suk · Ko, Ha-dong

Client Seo, Moon-jong

Location Gyeonggi-do Paju-si Gyoha-eup Dongpae-ri

Site Area 357.50m²

Building Area 162.31m²

Gross Floor Area 288.0m²

Building to Land Ratio 45.40%

Floor Area Ratio 68.88%

Structure R.C

Structural Engineer SP Structure

Electrical Engineer Sewon Eng

Building Scope B1, 2F

Finishing Materials Exposed Concrete, Metal panel

Photographer not disclosed

Cost not disclosed

Architectural Concepts _ Land to the east and north of the road and visible to North and South is a condition that the slope of about 1m. These characteristics utilizing the space and the space is connected to the circulatory system planning.

Leading to the concept of Entrance, livingroom, kitchen, restaurant, swimming pool, Numaru result with the land form. According to the natural slope of the detached house of the concept of spatial planning is Numaru.

In addition, space for hobbies and static music and want to make a space that was free, each room feels light, space, plans to change the light was due to the harmony of shades.

Architectural Design Story _ Public space on the 1st floor of the house living room, kitchen and dining are located. Overlook the courtyard and down the stairs outside of the hand print form to connect to one side of the deck are available. Skip floor how selection changes the sense of space is a great feature. Upon entering the front door of the house in the heart of the internal stairs are composed of exposed concrete and large windows of the stairs to the basement hobby-room comes in the deep south of the sun.

2nd floor bedroom to be composed of privacy was the couple's room clients were placed outside the terrace. Simhak-mountain the terrace garden of the house and the surrounding roads to encourage the natural eye to the role of the observatory.

Children in the bedroom with a large terrace composure and add a couple of elevations were planned to be used as an element.

Using the terrain profile and the entrance _ Sloping terrain towards the north in the form of re-using the cross-section of the configuration is characteristic of U-HAUS/ hee yeong jae. Skip floor to the important concept of the house floor, high up in the low places of the earth's natural flow to the point it can be reflected. The location of the entrance as the flow of the terrain in the north to the center decided to incorpo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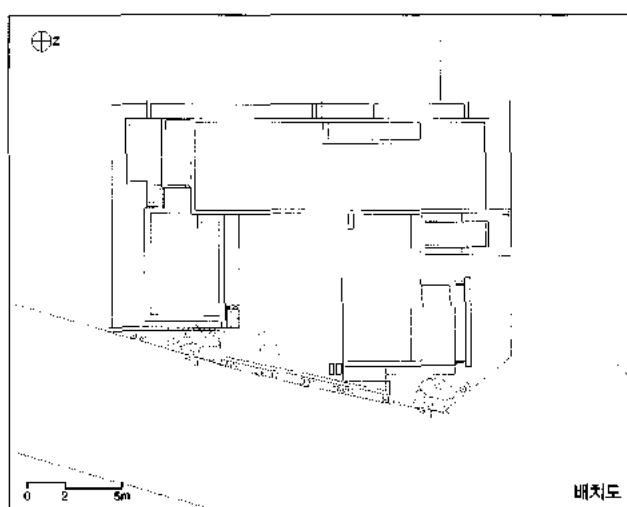
Upon entering the house through the front door and exposed concrete stairs as an unfolding of the object, between the stairs to the south to the sunshine and the garden courtyard provides a wide field of view seems the deck and pool.

North of the road leading up from the south of the pool stages of the flow of attention are linked to the expanded space makes the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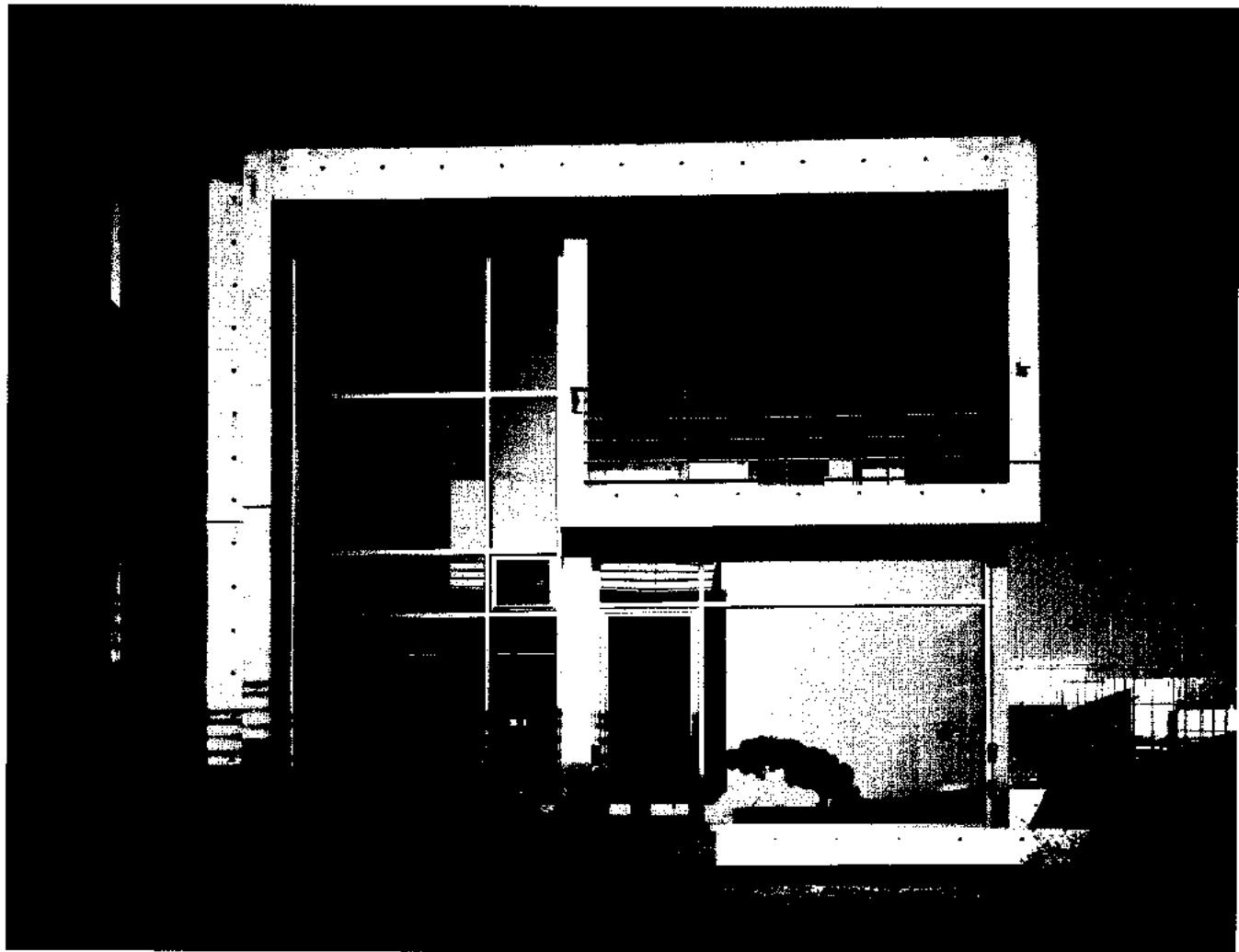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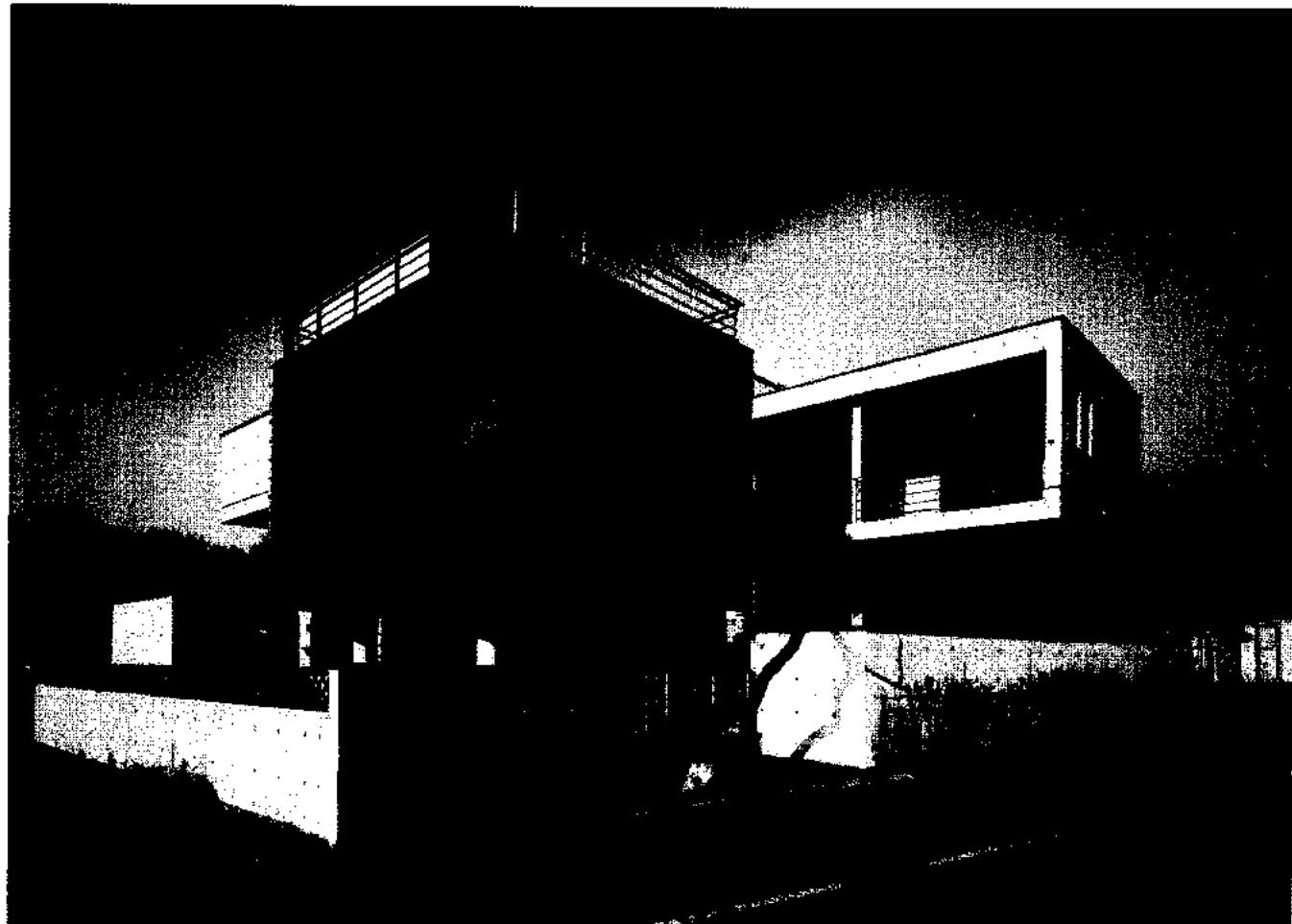
Kitchen of a large area _ Kitchen is the place to spend a lot of time. Much more than living in the area that could stay with the plan because most worrying is the space.

Personally, I think living in a better position than the hope that the kitchen and dining. Increasingly busy lives of their family members afford to lose another to feel the real pleasure of eating in check and give the area that is family life.

U-HAUS/ hee yeong jae's Kitchen and Restaurant will be very broad. Simply out of space for cooking and eating deck and a swimming pool, you can go to the front yard has been the role of complex space. Kitchen Island table in the middle of the field by installing a housewife by facing the courtyard, usually looking at a wall outside of the cooking happens when you change over time, eliminate frustration, to feel for each season. And if one adds the enjoyment of pet dogs in the yard of the house for entertaining with a large restaurant window, I can see the happiness of a sensitive mother has provided her the bes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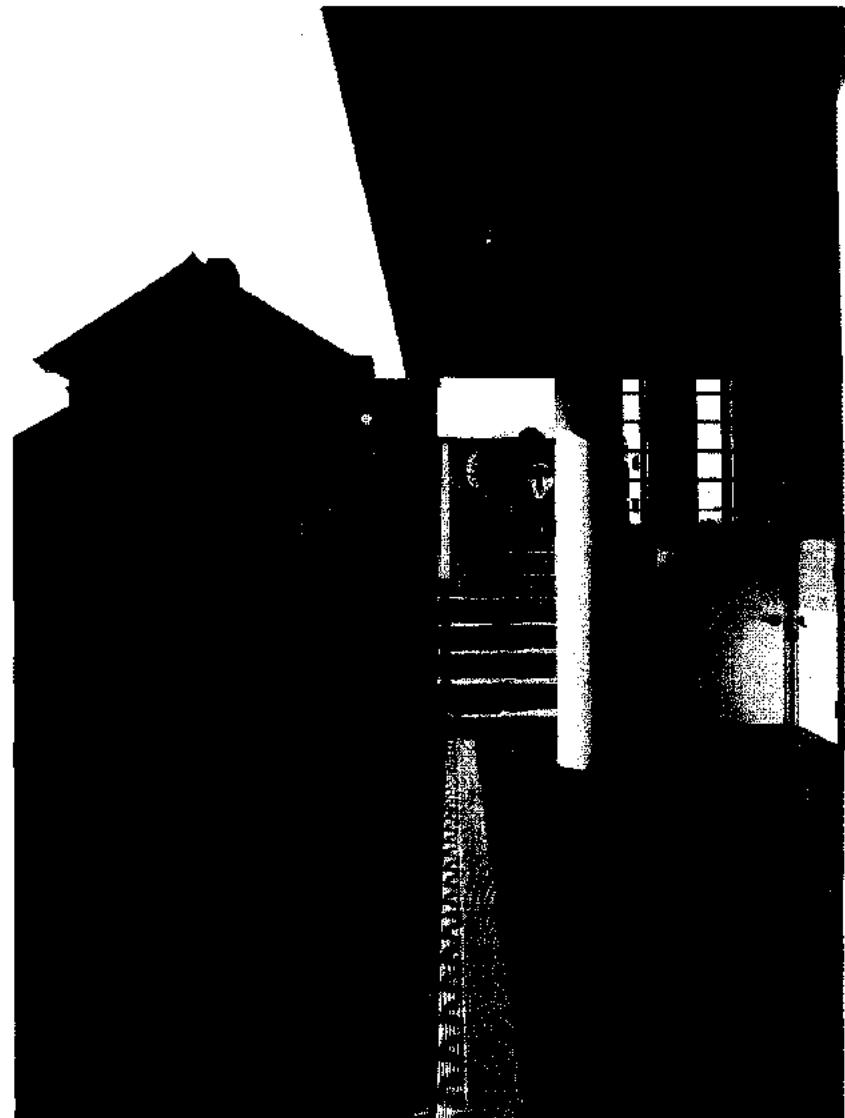




- | | | |
|--------|-----------|----------|
| 01_ 창고 | 05_ 복도 | 09_ 수공간 |
| 02_ 현관 | 06_ 주방/식당 | 10_ 카노피 |
| 03_ 거실 | 07_ 데크 | 11_ 드레스룸 |
| 04_ 힘실 | 08_ 월워터 | 12_ 테라스 |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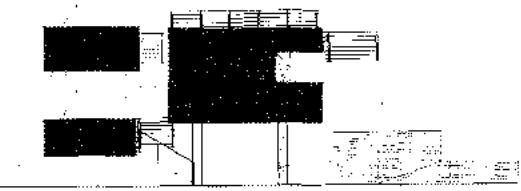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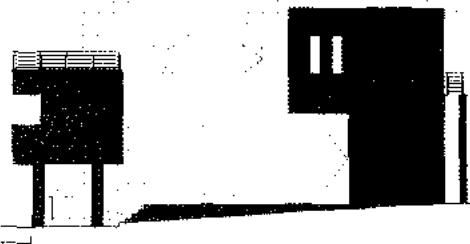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0 2 5m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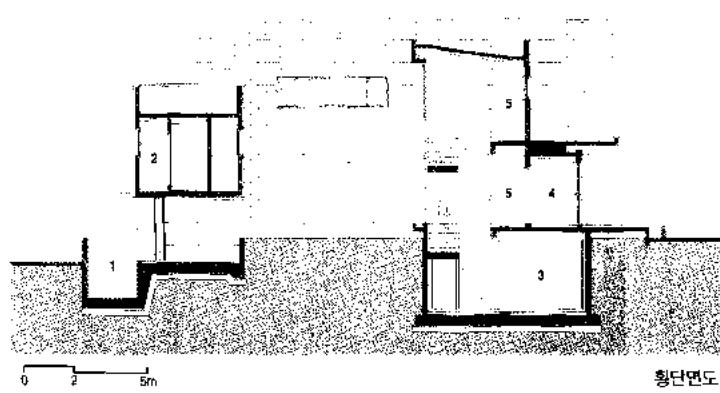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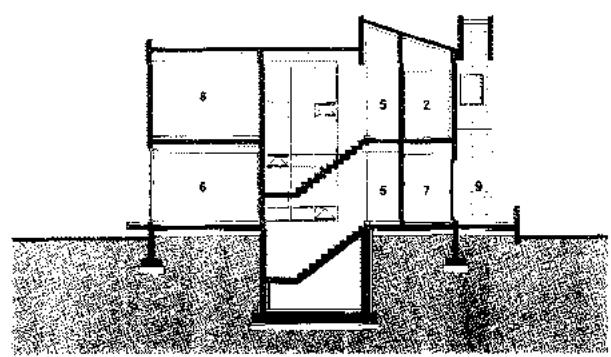
01_수공간
02_욕실
03_취미실

04_한관
05_복도
06_거실

07_다용도실
08_테라스
09_대廳



횡단면도



종단면도

건축 설계시장의 현황과 발주제도 등 개선방안

Current State of Architectural Design Market and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roject Delivery System for Architectural Design Service

목 차

1. 서론

2. 국내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현황

2-1 국내 건축사 합격자 현황

2-2 국내 건축사 등록 및 건축사사무소 현황

3. 국내 건축설계시장

3-1 전국 건축허가 현황

3-2 건축설계비 현황

3-3 국내 건축설계시장의 실제적 규모

3-4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4. 국내 건축설계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실태

4-1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수주 현황

5. 국내 건축설계시장 문제점과 원인

5-1 국내 건설발주의 대형화

5-2 발주제도의 문제점

5-2-1 입찰제도의 문제점

5-2-2 PO제도의 문제점

5-2-3 설계 공모전의 문제점



전영철 / Jeon, Young-cheol, KIRA
건축사 / 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

5-2-4 BTL 사업의 무분별한 발주

5-2-5 입찰제(단기방식)의 문제점

5-3 국내 건축설계 대가의 문제점

5-3-1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설계업무

5-3-2 관계기술자 관련 용역비용 증가에 따른 추가 인상요소

5-3-3 정부방침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추가 설계 업무

5-4 건축설계의 자유경쟁 및 공정거래의 잘못된 인식

6. 국내 건축설계시장의 건강회복을 위한 방안제안

6-1 건축설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사각변화의 필요성

6-2 건축사업무대가 기준변경의 필요성

6-3 각종 건축발주 관련 제도변경의 필요성

6-4 건축설계의 책임설계제도 강화의 필요성

6-5 국가의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

1. 서론

2010년 10월 현재, 각종 경제지<표가 나타내는 건설관련 경기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건축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각종 경제지<표상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전체적인 건설발주 물량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표 1.1> 건설투자 구성비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투자	155.4	100.0	160.8	100.0	170.9	100.0	185.0	100.0	196.0	100.0	52.9	100.0
1) 건물건설	95.8	61.6	98.7	61.4	102.9	60.2	108.8	58.8	108.5	55.4	27.9	52.7
· 주거용건물	46.1	29.7	46.2	28.8	46.9	27.4	47.5	25.7	44.8	22.9	10.4	19.7
· 비주거용건물	49.6	32.0	52.5	32.6	56.0	32.8	61.3	33.1	63.7	32.5	17.5	33.0
2) 토목건설	59.6	38.4	62.1	38.6	68.0	39.8	76.2	41.2	87.5	44.6	25.0	47.3

그러나 모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건설관련 발주의 규모도 대형화되어 일부 대형건축사사무소와 대형건설업체의 외형 수주액만 그럴듯하게 보일 뿐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대형회사들은 유동성 자금의 확보에 애를 쓰며 봄집 줄이기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작은 규모의 사업체들은 수주량과 수주 건수마저 줄어서 생계수단마저 안 되는 사태발생으로 인하여 천직으로 여기던 건축사업무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건축설계시장에 대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이 논의되어 실현가능한 일부 내용만이라도 빨리 제도화되어 통과되고 있는 건축설계시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국내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현황

먼저 국내 건축설계시장의 주축인 건축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2-1 국내 건축사 합격자 현황

2009년까지 배출된 건축사자격자는 총 17,041명으로 다음 표와 같다.

(표 2.1) 연도별 건축사 배출 현황 및 누계

자료제공 : 대한건축사협회

구 분	'95 이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배출자수	7,942	1,048	1,316	973	1,119	919	642	468	467	421	193	502	200	377	454
누 계	7,942	8,990	10,306	11,279	12,398	13,317	13,959	14,427	14,894	15,315	15,508	16,010	16,210	16,587	17,041

2-2 국내 건축사 등록 및 건축사사무소 현황

2010년까지 국내 건축사사무소에 등록한 건축사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이는 실제 건축설계업무와 경영에 종사하는 건축사의 수로서 공무원, 회사원, 교수, 건축사들과 사망자 및 건축사사무소의 단순 회사원으로서, 군, 구청에서 발급하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증에 기재하지 않은 건축사들을 제외한 수자이다.

(표 2.2)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현황(2010년 10월 30일 현재)

지 역	건축사사무소 수	등록 건축사 수	비고
서 울	3,386	3,887	
부 산	739	761	
대 구	580	647	
인 천	361	370	
광 주	262	285	
대 전	323	358	
울 산	204	214	
경 기	1,454	1,502	
강 원	238	245	
충 북	270	301	
충 남	308	325	
전 북	299	302	
전 남	271	273	
경 북	414	427	
경 남	538	550	
제 주	140	143	
합 계	9,787	10,590	

자료제공 : 세움더집게

3. 국내 건축설계시장

3-1 전국 건축허가 현황

최근 몇 년간 전국의 허가통계는 다음 표와 같다. 허가통계는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이 면적이 총괄되어 신축면의 통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국내의 건축허가행위의 집계라는 점에서 그 시장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률	상업용	증감률	공업용	증감률	교육, 사회 및 기타	증감률
'04	117,461	50,099	-19.4	30,966	-32.4	14,740	0.0	21,656	11.4
'05	111,506	50,281	0.4	23,368	-24.5	13,576	-7.9	24,281	12.1

'06	133,271	53,861	7.1	32,570	39.4	16,813	23.8	30,027	23.7
'07	150,957	65,212	21.1	35,739	9.7	16,351	-2.7	33,654	12.1
'08	120,658	38,462	-41.0	33,265	-6.9	18,504	13.2	30,427	-9.6
'09	105,137	41,917	9.0	24,399	-26.7	11,542	-37.6	27,279	-10.3
'10.1~8	71,709	23,272	0.4	17,548	0.1	10,532	0.6	20,357	0.2

* 자료 : 국토해양부 (10년 1~8월 누계분 증감률은 전년 동기(1~8월 누계분) 대비 증감률임)

3-2 건축설계비 현황

다음 표는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사업부실적보고를 하는 건축사사무소들이 신고한 설계비를 취합한 것이다. 이는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이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에 비하면 일부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한 거의 50%미만의 수준이며 그나마 금액을 신고하여 실적관리를 하는 건축사사무소들은 상위 20% 정도의 비교적 안정된 건축사사무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적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많은 민생 건축사들의 수주금액은 이 표의 80% 수준 이하의 가격이라는 것이 많은 건축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 3.2) 건축설계 대가, 용도별 실거래가 현황(신고 된 설계가의 평균금액)

구 분	연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공장	사무실 (오피스텔 등)	집회·문화시설 (종교 포함)	공공건축물	평 균
실제거래 평균가격 (원/m ²)	2007	13,379	19,897	13,076	13,998	33,478	33,525	34,799	23,164
	2008	13,988	21,668	13,820	14,084	33,385	32,598	44,797	24,905
	2009	18,992	28,651	12,955	16,472	38,656	33,554	39,474	26,964
	대가 기준 (추정)	60,500 (121만x5%)	53,000 (105만x5%)	36,300 (91만x4%)	30,200 (60.5만x5%)	48,400 (121만x4%)	76,000 (152만x5%)	60,500 (121만x5%)	52,129

*자료 : 건축사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 업무실적 신고한 금액의 평균값

3-3 국내 건축설계시장의 실제적 규모

표 3.3은 2005년도의 통계청 자료이다. 5년마다 자료발표가 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초에는 다시 2010년의 통계청 설계 매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는 실제 신고 된 건축사들의 거래가격과 공공공사의 건축사업부대가 기준으로 추정된 가격의 중간치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건축사들이 정부가 고시한 설계대가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설계시장이 위축되고 대형화되어 설계건수가 작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설계단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건축사들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치명적이다. 자유시장의 경제논리로 치면 국민들에게 값싼 설계비가 적용되어 좋은 것으로 보여 지지만 그것은 가격의 변화에 상관없이 설계의 품질이 보장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설계비의 가격하락은 설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며 건축사들의 협력체인 구조, 전기, 소방, 설비, 정보통신 등의 가격을 동시에 하락시키면서 일부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예산절감이나 예산부족의 평계로 관련분야의 협력요청이나 검토 없이 설계 도서를 납품하는 경우마저 발생하여 문제점으로 지적 되는 경우도 있다.

(표 3.3) 2005년 지역별 건축설계 산업 매출액 비율

(백만 원, %)

구 分	건축설계 산업 매출액	
서울특별시	2,621,985	65.3
부산광역시	181,051	4.5
대구광역시	151,490	3.8
인천광역시	72,687	1.8
광주광역시	63,450	1.6
대전광역시	104,705	2.6
울산광역시	45,356	1.1
경기도	316,888	7.9
강원도	38,734	1.0
충청북도	75,121	1.9
충청남도	57,327	1.4
전라북도	33,438	0.8
전라남도	64,825	1.6
경상북도	52,435	1.3
경상남도	121,635	3.0
제주특별자치도	15,262	0.4
합계	4,016,389	100.0

출처 : 도시공간연구소 연구서(김진욱 박사) - 2005년 건설업통계조사(통계청)

*총설계 매출액(4,016,389,000,000원)÷건축허가면적(111,506,000m²) = 평균설계단가(36,000원/m²)

국내의 설계시장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조원 선후의 시장이지만 실제 건축계의 실 거래가격으로 추정되는 시장은 <표 3. 4>와 같다.

통계청의 자료가 정부의 공공건축물,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대형건축물 등 정상적인 건축 설계비를 지급받는 경우와 민생건축사들의 소규모 건축 설계비를 합산한 것을 고려하면 건축사들이 신고한 설계비 단가가 일반 민간시장에서의 설계비의 평균 단가 정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의 건축사보수대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계청자료의 144%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면평, 가격인하로 인한 경쟁보다 품질 좋은 건축설계를 유지하며 협정가격형태로 건축설계 가격이 유지되면 현재시장규모보다 약 44%정도의 큰 시장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설계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설계비 총 매출액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가 건축설계에 요구하는 내용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너무나 많은 기획과 검토가 요구되는 친환경 설계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르는 에너지 총량제 검토, 너무나 많은 각종심의로 인한 업무과증, 종체적인 건축 관련 전산자료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BIM설계의 요구와 구조,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들의 꾸준한 대가보수의 인상을 비롯하여 해야될 수 없이 과다한 설계비 상승요소들이 증가되었는데도 건축설계의 보수대가기준은 상승시키지 못하고 옛날의 규정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이 사회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대가조정과 정상적인 설계가격의 유지만 이루어 진다해도 국내설계시장의 매출규모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표 3. 4> 국내 설계시장 추정치

년도	건축허가 면적 (단위 : 1,000㎡)	추정 국내 설계시장						비고	
		건축사 신고금액 적용		통계청 자료금액 적용		대가기준 적용			
		단가(원)	금액	단가(원)	금액	단가(원)	금액		
2005	111,536	23,000(추정)	2조 5,646억	36,000	4조 164억	52,000	5조 7,983억		
2007	150,957	23,164	3조 4,968억	36,000	5조 4,345억	52,000	7조 8,500억		
2008	120,658	24,905	3조 50억	36,000	4조 3,437억	52,000	6조 2,742억		
2009	105,137	26,964	2조 8,349억	36,000	3조 7,849억	52,000	5조 6,712억		

3-4 국내건축사사무소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탁받고 있다. <표 3. 5>는 기존의 건축사사무소들에 소속되어있는 건설기술자의 숫자를 집계한 것이다. 건축사도 이곳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관점으로 볼 때 7,000번째 순위의 건축사사무소들은 건축사 1인의 사무소라는 결론이다. 즉 건축사 혼자 근무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숫자가 3,000여 곳이나 된다는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5,000번 등위의 사무소들도 1명의 직원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국내의 전체 건축사사무소의 50%가 직원 1명 이하의 열악한 환경인을 나눠내고 있다. 또한 1,000번 등위의 이하 즉, 전체건축사사무소의 90%가 5명 미만의 소규모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 현황<표는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한 허가면적과도 정비례하고 있으며 나아가 건축사사무소 운영실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5> 건축사사무소 순위별 건설기술자 평균 보유인원

순위	평균인원	비고
1 ~ 10	370.3	
11 ~ 50	103.5	
51 ~ 100	50.96	
101 ~ 500	21.46	
501 ~ 1,000	10.74	
1,001 ~ 5,000	5	
5,001 ~ 7,000	2.13	
7,001 ~	1	

* 2010. 10.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자 전산자료

4. 국내 건축설계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실태

국내 건축설계시장은 <표 4.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건축사사무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2009년도의 국내 50대 건축사사무소의 총매출은 <표 3. 4>의 국내 건축설계 총매출의 약 35%(통계청자료를 근거로 만든 추정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매출 1,000위이하의 약 8,700여개 건축사사무소의 매출을 능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2009년 허가면적 대비표 참조>)

<표 4. 1> 국내 건축설계 업체 현황(매출액 순)

구 분	사 무 소 명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금 액	순위						
1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122,449,565,217	1	156,127,232,454	1	237,605,605,845	1	260,935,386,455	1
2	(주)회림 종합건축사사무소	91,463,014,843	2	120,134,983,534	2	155,837,235,737	2	157,901,074,957	2
3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87,755,921,042	3	94,139,032,379	3	104,210,265,780	3	130,840,376,389	3
4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39,560,295,973	9	42,492,753,324	10	55,401,452,714	7	71,914,558,303	4
5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65,236,594,967	4	68,609,713,835	5	73,575,997,816	5	63,789,704,502	5
6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33,313,457,509	12	65,567,626,172	7	53,995,655,380	8	59,386,295,065	6

7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46,634,709,830	7	52,483,775,004	8	64,469,484,941	6	58,481,419,459	7
8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40,280,772,527	14	52,085,814,913	8
9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57,293,271,571	5	58,860,805,677	6	50,105,566,641	9	51,430,271,071	9
10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38,175,983,957	10	44,897,124,935	9	45,216,974,373	10	50,679,183,139	10
11	(주)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23,977,732,226	17	30,017,618,413	15	44,102,505,093	12	45,318,012,654	11
12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26,052,476,561	15	29,879,753,733	16	36,894,328,924	15	41,343,050,804	12
13	(주)동우이앤씨 건축사사무소	30,837,927,853	13	38,016,376,540	11	40,513,090,410	13	36,169,975,292	13
14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41,119,801,587	8	30,251,177,057	14	35,207,356,831	16	35,851,249,367	14
15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24,983,528,198	16	30,424,853,901	13	44,455,180,020	11	33,626,810,301	15
16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12,103,719,549	21	16,997,227,825	22	23,825,287,874	19	31,138,615,218	16
17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현종설계			26,728,421,770	17	27,872,788,487	18	29,976,930,137	17
18	(주)포스에이씨종합감리 건축사사무소	21,469,187,276	18	26,554,287,070	18	21,200,648,886	20	19,413,483,467	18
19	(주)유원 건축사사무소			11,265,018,111	24	14,166,344,578	25	14,790,171,784	19
20	(주)거성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3,875,509,277	26	18,575,950,661	21	18,888,316,898	23	13,324,640,656	20
21	(주)신한 종합건축사사무소	15,213,595,572	20	20,023,268,219	19	16,389,196,157	24	13,068,909,196	21
22	(주)한성종합기술단 건축사사무소	1,594,388,365	32	5,368,942,544	31	13,767,236,037	26	9,503,256,897	22
23	(주)유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5,344,886,445	25	5,541,308,801	30	5,088,164,787	33	9,439,570,981	23
24	(주)진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6,815,628,750	29	9,217,289,086	24
25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3,413,679,245	28	4,543,536,963	32	5,257,602,626	31	5,513,091,568	25
26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8,382,084,136	24	6,806,551,021	29	5,455,161,228	30	4,421,126,046	26
27	(주)단 건축사사무소	2,010,048,851	32	3,196,843,627	34	2,210,579,839	35	4,165,651,509	27
28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3,255,446,891	29	3,151,873,258	35	4,938,473,420	34	4,130,982,537	28
29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489,607,216	31	2,962,285,615	36	906,941,610	39	2,718,927,681	29
30	(주)건축사사무소 도움채	1,151,457,525	37	2,381,243,543	37	1,700,516,283	36	2,330,502,867	30
31	(주)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629,860,989	33	3,291,077,719	33	988,841,225	38	1,254,149,974	31
32	(주)진솔(우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500,673,637	36	1,196,678,456	39	787,486,728	41	1,103,761,243	32
33	(주)김이 종합건축사사무소	2,530,425,408	30	1,541,772,868	38	1,207,972,068	37	911,858,549	33
34	(주)강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73,760,000	43	841,818,181	40		
35	(주)건축사사무소 뿌리건축	9,104,744,090	22	7,808,684,855	26	5,208,535,089	32		
36	(주)건축사사무소 한국포에이그룹	500,230,000	40						
37	(주)데코빌종합건설 건축사사무소	107,010,000	45	262,800,000	42				
38	(주)문 종합건축사사무소	1,518,646,389	35						
39	(주)미래도시 건축사사무소	97,788,288	46	139,100,000	44	54,000,000	44		
40	(주)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627,024,783	39	693,498,378	40	487,840,471	42		
41	(주)삼정 건축사사무소	196,125,787	42						
42	(주)아카너스 건축사사무소	141,000,000	43	9,490,910	45				
43	(주)알에스씨에이 건축사사무소	125,000,000	44			206,000,000	43		
44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9,006,180,830	23	7,508,856,780	27				
45	(주)지음 종합건축사사무소	489,309,092	41						
46	(주)청우 종합건축사사무소	714,967,169	38	526,201,284	41				
47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37,178,596,307	11	32,758,783,921	12	31,708,747,160	17		
48	(주)토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6,664,256,753	19	15,510,718,361	23	20,495,114,020	21		
49	(주)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0,812,070,025	25	12,052,697,213	27		
50	(주)한미파스스 건축사사무소	51,639,338,866	6	80,210,417,469	4	80,300,913,646	4		
51	(주)한석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27,981,965,153	14	218,672,617,987	20	19,080,980,920	22		
52	(주)혜원까지 종합건축사사무소	3,462,465,898	27	6,859,492,582	28	10,183,042,758	28		
합 계		913,078,078,459		1,021,245,895,854		1,433,958,349,971		1,326,176,102,067	

* 출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료

4-1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수주 현황

〈표 4. 2〉는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한 평균허가면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4〉에 나타난 건축사사무소들이 신고한 설계비를 기준하면 2009년도의 평균설계비가 26,964원/㎡이므로 1,001워~1,500워는 약 3억 1,275만원으로 약 30%의 용역비를 제하면 2억 1,892만원으로 직원 5명과 사무실 운영경

비 등 단을 간신히 지급하고 건축사 본인의 생활비는 가져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며 녹색으로 표현한 1,500위 이하의 8,000여개의 사무소들은 거의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적자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건축사사무소 순위별 평균 신축허가면적 비교

출처 : 세움티 허가전산자료 (2010년 11월 5일)

허가면적 순위	평균 신축허가면적(m ²)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1~10위(307.3인)	1,006,085	1,427,834	1,007,666	873,615	1,190,263
11~50위(130.3인)	388,900	487,328	463,668	328,380	284,441
51~100위(50.96인)	173,229	212,426	255,015	154,359	130,278
101~500위(21.46인)	64,674	70,118	93,094	56,524	44,119
501~1,000위(10.74인)	20,634	23,828	30,498	23,811	18,507
1,001~1,500위(5인)	11,210	13,250	16,388	14,695	11,599
1,500~2,000위(5인)	7,348	8,860	10,744	10,317	8,084
2,001~3,000위(5인)	4,505	5,457	6,662	6,578	5,084
3,001~4,000위(5인)	2,377	3,000	3,666	3,723	2,700
4,001~5,000위(5인)	1,253	1,655	2,037	2,122	1,374
5,001~6,000위(2.13인)	658	855	1,126	1,171	639
6,001~7,000위(2.13인)	340	458	620	617	253
7,001~8,000위(1인)	127	233	346	310	74
8,001~9,000위(1인)	23	96	174	112	0
9,001~9,500위(1인)	0	0	65	0	0

* ()는 2009년 기준 순위별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표 4.3〉을 비롯한 〈표 4.7〉까지의 표는 정말 공개하기 창피한 현재의 건축사사무소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1위부터 50위까지의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신축허가면적이 1,000위 이하의 약 8,500여개 건축사사무소의 합계면적보다 더 많음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다.

2009년 기준으로 6,017개의 건축사사무소가 3건 이하의 신축허가를 냈으니 국내 건축사사무소 숫자의 절반 가까운 4,524개의 사무소가 1건 이하의 개별 허업상태인 이 상황을 과연 개인 건축사에게 험할 수 있을까?

8,500여개의 사무소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건축사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데도 건축사를 양성하는 5년제 학생들은 해마다 3,000여 명씩 졸업하고 있으며 건축사들은 몇 백 명씩 시험에 합격되어 양산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은 건축계 전체와 국가가 정말 한마음이 되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현재의 대형 건축사사무소들만 생존할 수 있고 새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여 부푼 꿈을 안고 미래를 향하고자 하는 젊은 건축사들에게는 전혀 기회를 주지 않는 제도로는 우리나라의 건축설계경쟁력에 대한 미래는 없을 것임이 확실하다. 현재의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지금 세대까지는 어떻게 하던지 경쟁력을 지켜 나갈 수 있음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나라가 외형적으로 문화를 표현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 모습은 바로 건축물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건축문화는 자랑스러운 것인가? 많은 이들이 한국의 건축물을 극적이 없다고 표현한다. 성냥갑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상업건물과 아파트가 보이는 우리나라 도시의 모습이 오히려 신기하다고 까지 한다. 과연 그런 직사각형의 건물이 우리나라 건물을 대표하는 건축문화의 모습이라고 답해야 하는가?

한국전쟁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건설이 국가과제였기에 건설부라는 국가조직을 만들었고 증액보급 100%를 목적으로 주택국을 만들었던 것은 이하가 되지만 이제는 건축문화보다는 공급위주로 실행된 그 폐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건축문화를 부흥시켜야 하며 국민들과 건축이 대한 삶을 함께하는 일반 건축사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며 그들 건축사들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닌, 한국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건축계에서 주장하는 건축설계를 위한 전통법 제정을 고려하는 것도 국가 지원정책중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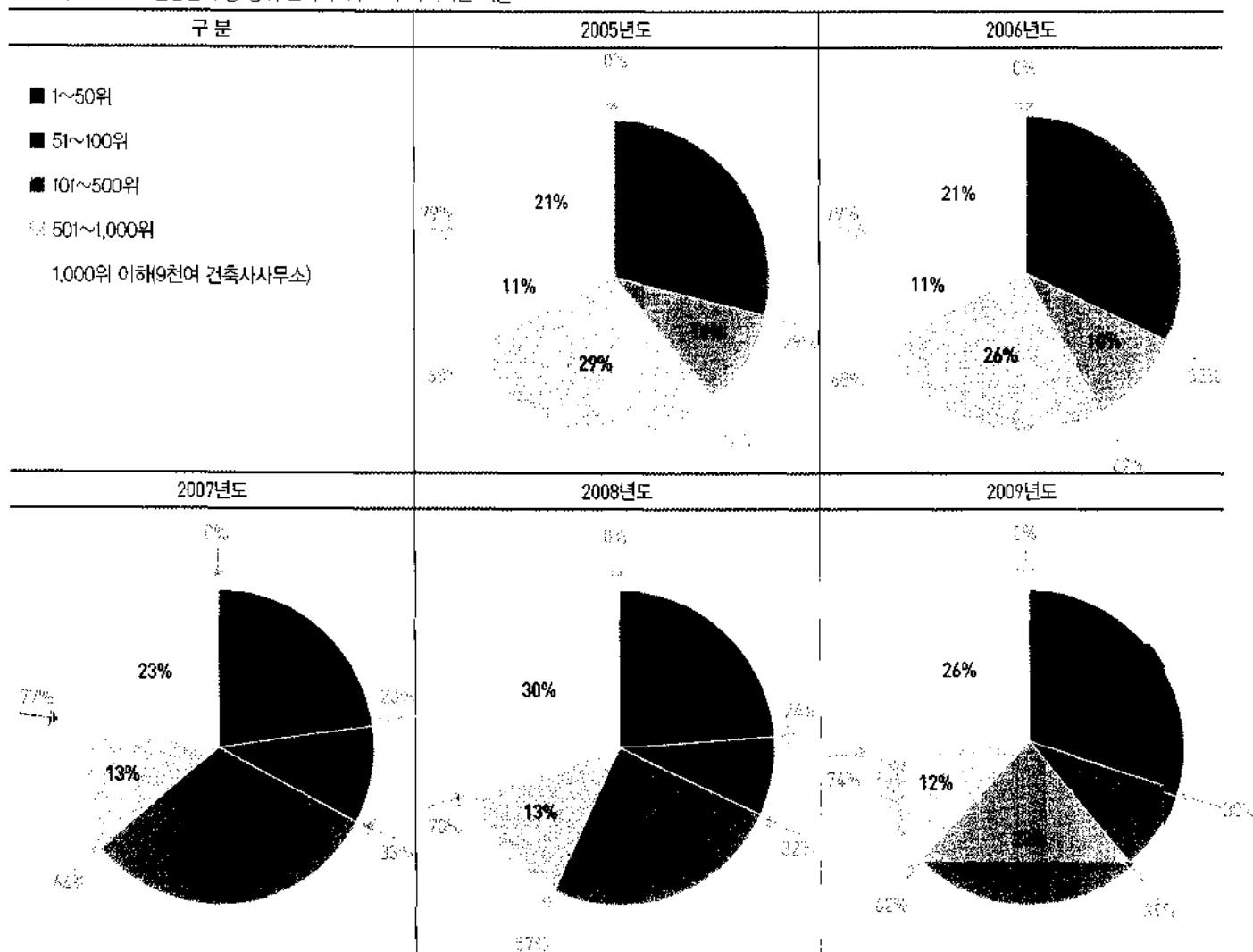
〈표 4.3〉 건축사사무소별 신축허가면적 합계 비교

* %는 해당 년도의 총 신축허가면적에 대한 %임

신축허가 면적 순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면적합계	%								
1~50위	25,616,834	29%	33,771,472	32%	28,623,396	23%	21,871,332	24%	23,290,253	30%
51~100위	8,661,472	10%	10,621,295	10%	12,750,773	10%	7,717,940	8%	6,313,891	9%
101~500위	25,869,402	29%	28,047,357	26%	37,237,619	31%	22,609,510	25%	17,647,403	23%
501~1,000위	10,317,145	11%	11,914,023	11%	15,248,884	13%	11,905,266	13%	9,253,320	12%
1,001~1,500위	5,605,003	6%	6,624,752	6%	8,193,964	7%	7,347,344	8%	5,799,366	8%
1,501~2,000위	3,674,021	4%	4,429,921	4%	5,372,177	4%	5,158,568	6%	4,041,981	5%

2,001~3,000위	4,504,947	5%	5,456,668	5%	6,661,762	5%	6,578,256	7%	5,303,962	7%
3,001~4,000위	2,376,802	3%	2,999,626	3%	3,666,329	3%	3,722,977	4%	2,699,681	4%
4,001~5,000위	1,232,550	1%	1,655,138	1%	2,037,217	2%	2,122,421	2%	1,374,125	2%
5,001~6,000위	658,111	1%	855,193	1%	1,125,791	1%	1,171,144	1%	638,720	1%
6,001~7,000위	339,668	0%	457,703	0%	619,627	1%	617,183	1%	253,410	0%
7,001~8,000위	126,742	0%	232,819	0%	346,123	0%	309,936	0%	26,374	0%
8,001~9,000위	1,222	0%	91,547	0%	174,163	0%	106,988	0%	0	0%
9,001~9,500위	0	0%	0	0%	37,443	0%	0	0%	0	0%
신축허가 면적합계	89,003,919		107,157,514		122,095,268		91,238,864		76,612,485	

〈표 4.4〉 신축허가 신청면적 중 상위 건축사사무소가 차지하는 비율



〈표 4.5〉 누도 별 실적이 있는 건축사사무소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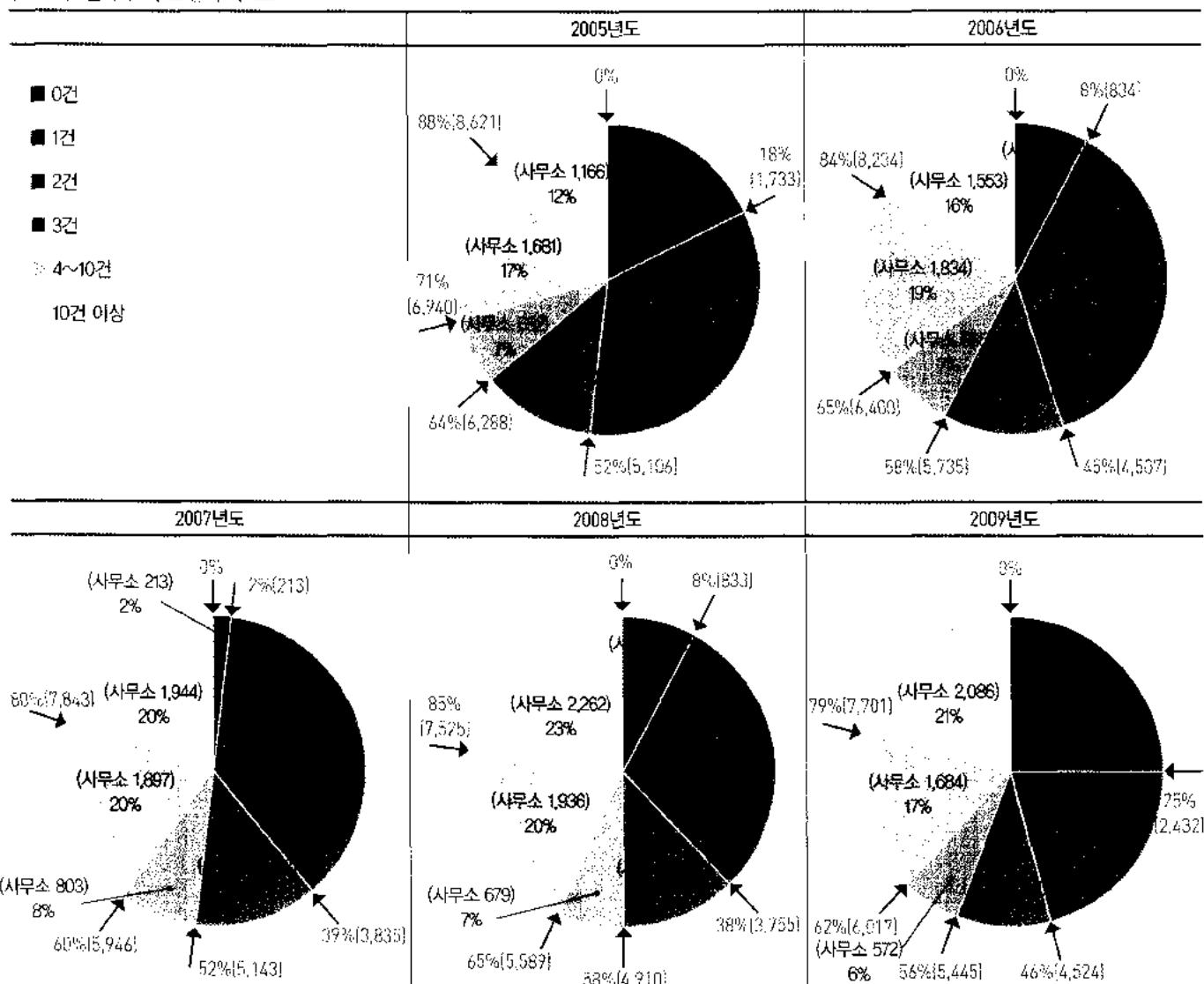
신축허가 건수	2005		2006		2007		2008		2009	
	사무소수	비율								
0건	1,733	18%	834	8%	213	2%	833	8%	2,432	25%
1건	3,373	34%	3,673	37%	3,622	37%	2,922	30%	2,092	21%
2건	1,182	12%	1,228	13%	1,308	13%	1,155	12%	921	10%
3건	652	7%	665	7%	803	8%	679	7%	572	6%
4~10건	1,681	17%	1,834	19%	1,897	19%	1,936	20%	1,684	17%
10건 이상	1,163	12%	1,553	16%	1,944	20%	2,262	23%	2,086	21%

* 0건의 건축사사무소 수는 현재(2010년10월) 까지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수(9,787)를 기준으로 산정한 값

〈표 4.6〉을 보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적 허가건 수로만 봄 때 10건 이상의 일을 하며 건축사사무소로서의 정상적인 사무소활동을 하는 곳은 전체건축사사무소의 20%전후이며 나머지 약 80%의 사무소들은 개점휴업에 가까운 현상인 것을 알 수 있다. 4~10건으로 간신히 활동을 유지하는 곳이 약 20% 가까이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1건 이하의 휴업상태 건축사사무소가 50%수준이라는 점은 어느 업계에서도 없는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보는 산업이 그러하듯 대, 중, 소형 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각각 그 역할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위한 노력으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건축설계부분은 전혀 그렇지 못한 실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6〉 건축사사무소 실적 비교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건축설계시장에서 부인부 반역번의 극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 4.7〉에서 나타나는 건축사 1인당 또는 사무소당 평균 건축(식축)허가면적은 건축사사무소당 평균 1만제곱미터에 가깝게 나타나므로 건축사사무소의 생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곡되어 보인다.

〈표 4.7〉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평균 신축허가면적

구 분	신축허가 면적 합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실적(m ² /개수)	건축사실적(m ² /인)
2005년도	89,003,919			9,094	8,405
2006년도	107,157,514			10,949	10,119
2007년도	122,095,268	9,787	10,590	12,475	11,529
2008년도	91,238,864			9,322	8,616
2009년도	76,612,485			7,268	7,234

* 건축사사무소 수 · 등록건축사 수 : 2010년 10월 기준

5. 국내 건축설계시장 문제점과 원인

국내 건축설계시장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형발주로 인한 발주 전수의 감소 및 발주제도의 문제와 더불어 한정된 시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5-1 국내 건설발주의 대형화

3,000 세대의 아파트단지는 하나의 사업승인으로 처리되지만 이것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계획될 경우에는 3,000건 내지 1,000건 정도의 허가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는 건축허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부분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정책은 이렇게 대형화 단지를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많은 부분도 옆의 대지와 공동개발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건설의 대형화 방침은 건축설계시장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5-2 발주제도의 문제점

국내 건축설계의 발주는 민간의 경우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며 대형건축물이나 특수건축물의 경우는 설계공모전을 통하여 발주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설계공모전, BTL, 일괄입찰제(던키방식)로 이루어지고 있다.

5-2-1 입찰제도의 문제점

입찰제도는 2억 원 미만의 설계비에 적용되고 있는데 설계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그날의 운에 따라 제비뽑기처럼 시행되고 있다. 입찰이후의 설계기간이 짧아 훌륭한 건축물을 기획하고 계획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담당자의 개인적 취향이나 발주책임자의 입김에 의하여 설계내용이 좌지우지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억 원 정도의 설계대상 건축물이 결코 작지 않음을 고려하여 좀 더 훌륭한 건축물로 승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5-2-2 PQ제도의 문제점

지금의 PQ제도는 해당되는 건축물을 설계할 능력 있는 건축사나 건축사사무소를 찾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너무 일방적인 실적위주이기에 대형건축사사무소나 실적이 많은 건축사사무소를 위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기성 건축사가 아닌 신진 건축사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표적인 제도이므로 젊은 건축사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 보완해야 한다.

5-2-3 설계 공모전의 문제점

설계공모전은 자연, 학연, 정보력이 좋은 사람이 당선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인식이다. 공모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되어 좋은 작품이 당선되어야 한다. 공모전을 통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이 국제적 경쟁력을 만드는 힘이 되어야 한다. 건축 계획안을 심사하는데 구조, 조경, 전기, 설비 전문가 한 표를 던지는 것은 웃지 못 할 사실이다. 제출된 건축 계획안 중에서 최고 작품을 판가름 하는 공모전에 PQ를 적용하는 것도 잘못이다. 작품은 경험과 실적이 있으면 유리하겠지만 제일 훌륭한 작품을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만이 할 수 있다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작품은 작품만으로 평가할 뿐이다.

5-2-4 BTL 사업의 무분별한 발주

BTL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계, 시공, 금융조건을 제안하여 20년의 기한으로 유지 관리하는 조건으로 발주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작품의 선정과정에서 작품의 우수성보다는 경제적 조건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일괄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같이 경제성을 맞추기 위하여 설계자의 창작력과 작품성이 SPC(사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체)에 의하여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건설비용을 20년 상환의 개념으로 시작되므로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한꺼번에 발주되어 20년 치의 발주물량을 단기간에 시행하여 낭비의 요소가 있으며 자연적인 요청에 의한 발주 물량이 인위적으로 당겨짐에 따른 중장기 발주물량 조정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5 일괄입찰제(던키방식)의 문제점

건축에서의 일괄입찰제 적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 시공사의 특별한 기술이 설계에 필히 반영되어야 할 때
- 국가사업으로서 굉장히 시급한 공정이 요구될 때
- 국가기밀사업으로서 국가가 필요로 할 때

그러나 우리나라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로서 발주의 편익만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괄입찰제는 발주의 편의성과 초대형 건설사 및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하여 최소한 엉터리 같은 결과는 없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 디자인보다는 가격경쟁이 위주가 되므로 건축사가 창작력을 발휘 할 수 없다.
- 창작자인 설계자의 의도보다는 시공사의 의도대로 설계되어 시공이 설계를 예속시킨다.
- 경제적 능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와 대형 건축사사무소들만의 독과점이 되어 발주의 형평성이 없다.
- 설계경기로 인한 작품선정 +입찰에 의한 건설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

5-3 국내 건축설계 대가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설계대가기준은 2002년에 처음으로 국토해양부 장관(당시의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되었다.

그 이후 건축사들의 날함으로 이어진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으로 2009년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으로 다시 바뀌었지만 고시가 시작 된지 10년 가까이 지났건만 지금껏 그 대가기준은 전혀 변동이 없다.

〈표 5. 1〉은 건축사 대가기준과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비교한 표이다.

건축사업부대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동이 없으나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은 공사비의 0.64%부터 1.54%까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건축사업부대가기준(중급설계기준)이 처음에는 0.77%부터 0.30%까지 높은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0.77%부터 0.34%까지 대가가 낮아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획 및 창작의 과정이나 내용이 엔지니어링에 비하여 울퉁히 많은 건축사업부대가기준으로 국가가 고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토목, 전기, 설비, 전기, 정보통신, 구조 등의 협력업무의 용역대가는 해당 부처의 기준으로 발표되어 인상되는 것에 비하여 이를 포함하는 건축설계대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잘못 되었어도 많이 잘못된 대가기준임을 어느 누가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적용되는 관계법률¹⁾ 있는데 새로 제정되는 법률이나 개정되는 법률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업무들이 추가되는데도 이를 당연히 포함해야만 하는 건축사들의 설계업무대가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뿐인가? 정부가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때 의무적으로 수행시키는 업무들이 있거나 권장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바로 친환경설계 및 친환경 자재의 활용 등을 검증하는 친환경인증을 비롯하여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지능형 건축물인증 및 BIM설계의 의무화와 같은 경우이다.

친환경을 비롯한 인증제도는 인증 신청에 들어가는 경비와 복잡한 업무를 대행시키는 용역비 및 건축물의 기본 기획부터 계획설계, 실시설계를 위한 추가경비가 들어감은 당연한 논리이다. 아울러 BIM설계의 경우는 설계를 통하여 건축물의 시공성, 재료의 수량산출, 공사비 산출 등의 건축물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일괄하는 제도이나 만큼 많은 고급인력동원과 D/B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므로 마땅히 추가경비가 요청되어야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표 5. 1〉 건축사 대가기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비교표

-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기준은 중급을 기준으로 함.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은 건설부분의 요율을 기준으로 함.

(단위 : %)

공사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기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대비 건축사 대가기준			
	시작(2002)			현재(2009)			증 감	시작(2002)			현재(2008)					
	제3종	제2종	제1종	제3종	제2종	제1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5,000만 원	9.86	8.96	8.06	9.86	8.96	8.06	0	2.73	5.46	8.19	3.24	6.49	9.73	+1.54	+0.77	-0.77
1억 원	9.26	8.42	7.58	9.26	8.42	7.58	0	2.56	5.11	7.67	3.04	6.07	9.11	+1.44	+0.75	-0.69
2억 원	7.39	6.72	6.05	7.39	6.72	6.05	0	2.04	4.08	6.12	2.42	4.85	7.27	+1.15	+0.60	-0.55
3억 원	6.74	6.13	5.52	6.74	6.13	5.52	0	1.87	3.73	5.60	2.22	4.43	6.65	+1.05	+0.53	-0.52
5억 원	6.31	5.74	5.17	6.31	5.74	5.17	0	1.69	3.39	5.08	2.01	4.03	6.04	+0.96	+0.66	-0.30
10억 원	5.40	4.91	4.42	5.40	4.91	4.42	0	1.49	2.99	4.48	1.77	3.55	5.32	+0.84	+0.43	-0.41
20억 원	4.97	4.52	4.07	4.97	4.52	4.07	0	1.37	2.75	4.12	1.63	3.27	4.90	+0.78	+0.40	-0.38
30억 원	4.80	4.36	3.92	4.80	4.36	3.92	0	1.32	2.65	3.97	1.57	3.15	4.72	+0.75	+0.39	-0.36
50억 원	4.71	4.28	3.85	4.71	4.28	3.85	0	1.30	2.60	3.90	1.54	3.09	4.63	+0.73	+0.38	-0.35
100억 원	4.59	4.17	3.75	4.59	4.17	3.75	0	1.27	2.53	3.8	1.51	3.01	4.52	+0.72	+0.37	-0.35
200억 원	4.44	4.04	3.64	4.44	4.04	3.64	0	1.23	2.45	3.68	1.46	2.91	4.37	+0.69	+0.36	-0.33
300억 원	4.41	4.01	3.61	4.41	4.01	3.61	0	1.22	2.44	3.66	1.45	2.90	4.35	+0.69	+0.35	-0.34
500억 원	4.32	3.93	3.54	4.32	3.93	3.54	0	1.19	2.39	3.58	1.41	2.84	4.25	+0.67	+0.35	-0.32
1,000억 원	4.25	3.86	3.47	4.25	3.86	3.47	0	1.18	2.35	3.53	1.40	2.79	4.19	+0.66	+0.33	-0.33
2,000억 원	4.19	3.81	3.43	4.19	3.81	3.43	0	1.16	2.32	3.48	1.38	2.76	4.14	+0.66	+0.33	-0.33
3,000억 원	4.13	3.75	3.38	4.13	3.75	3.38	0	1.15	2.29	3.44	1.37	2.72	4.09	+0.65	+0.31	-0.34
5,000억 원	4.07	3.70	3.33	4.07	3.70	3.33	0	1.13	2.27	3.4	1.34	2.70	4.04	+0.64	+0.30	-0.34

5-3-1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설계업무

〈표 5. 2〉에 표현되는 각종심의는 건축사사무소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야 하는 업무들이다. 문제는 그 용역업무의 대가가 전당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해도 최소한 조감도 작성과 안내비 등은 대부분 용역으로 처리되며 직원들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천만 원은 훌쩍 넘기는 것은 보통이다.

문제는 이렇게 추가업무가 생기는데도 설계대가 기준이 공사비 대비(%)로 되어 있는 데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추가사항의 경비를 주어야 한다”라

고 대가기준에 규정되어 있어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더 주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표 5.2〉 각 개별법에 따른 각종 심의

- 건축 허가시 필요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심의(2009년 4월 기준)

구 분	근거법령	관련조항	행위주체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7조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자연 경관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제29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수도권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제23조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
도시계획설계 심의		제18조	
도시계획사업결정 심의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심의		제51조	
경관 심의	경관법	제11조	경관위원회
미술장식품 신의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제9조	지방문화예술위원회
학교환경 위생 정화 심의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환경위생정책위원회
문화재 심의	문화재보호법	제90조	문화재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 심의	건축기본법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	디자인위원회

통합심의 :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 도시계획관리결정 관련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또한 타 법령이 신설되면서 추가되는 업무들을 비롯하여 건축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추가 업무들은 무한대로 표현할 만큼 커지고 있어도 건축사들의 업무보수내가기준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2〉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각 개별법에 따르는 각종 심의 내용이다.

5-3-2 관계기술자 관련 용역비용 증가에 따른 추가 인상요소

이외에도 건축사업무대가는 건축법에 따라 구조, 토목, 조경, 전기, 기계설비, 소방, 정보통신 등 많은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므로 이들의 업무내가기준이 건축사업무대가기준의 공사비대비 대가요율보다 더 상승하면(표 5.3 & 4 참조)최소한 그 대가의 차이 정도라도 건축사대가기준에 적용해야 하는데도 전혀 상승시키지 않았음은 건축사들과 정부 관계자들 모두가 남의 일을 쳐다보듯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표 5.3〉 전기설계비 요율과 건축사 업무대가요율 비교표

공사비	요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계	건축사 대가기준	전기설비 대비 건축사대가
2,000만원까지	3.79	11.38	1.89	17.06	-	-
3,000만원까지	3.07	9.19	1.53	13.79	-	-
5,000만원까지	2.14	6.42	1.07	9.63	8.96	-0.67
1억 원까지	2.01	6.01	1.00	9.02	8.42	-0.60
2억 원까지	1.60	4.80	0.80	7.20	6.72	-0.48
3억 원까지	1.46	4.38	0.73	6.57	6.13	-0.44
5억 원까지	1.33	3.97	0.66	5.96	5.74	-0.22
10억 원까지	1.17	3.51	0.58	5.26	4.91	-0.35
20억 원까지	1.08	3.22	0.54	4.84	4.52	-0.32
30억 원까지	1.04	3.11	0.52	4.67	4.36	-0.31
50억 원까지	1.02	3.06	0.51	4.59	4.28	-0.31
100억 원까지	0.99	2.98	0.49	4.46	4.17	-0.29
200억 원까지	0.96	2.89	0.48	4.33	4.04	-0.29
300억 원까지	0.95	2.87	0.47	4.29	4.01	-0.28
500억 원까지	0.94	2.81	0.46	4.21	3.93	-0.28
1,000억 원까지	0.92	2.77	0.45	4.14	3.86	-0.28
2,000억 원까지	0.91	2.72	0.44	4.07	3.81	-0.26
3,000억 원까지	0.90	2.67	0.43	4.00	3.75	-0.25
5,000억 원까지	0.89	2.64	0.42	3.95	3.70	-0.25

- 전력기술용역대가(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29호)

〈표 5.4〉 통신부분의 요율과 건축사업부대가 요율의 비교표

공사비 요율	통신부분의 요율 (2008년)			건축사의 요율 (2009년)	비교
	업무별 요율(%)		계	업무별 요율(%)	통신부분 대비 건축사업부대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2종 (중급)		
1천만원이하	-	-	-	-	-
2천만원이하	-	-	-	-	-
3천만원이하	-	-	-	-	-
5천만원이하	4.39	12.28	16.37	8.96	-7.41
1억 원 이하	3.84	11.55	15.39	8.42	-6.97
2억 원 이하	3.36	9.18	12.24	6.72	5.52
3억 원 이하	2.79	8.38	11.17	6.13	-5.04
5억 원 이하	2.54	7.59	10.13	5.74	-4.39
10억 원 이하	2.24	6.71	8.95	4.91	-4.04
20억 원 이하	2.07	6.16	8.23	4.52	-3.71
30억 원 이하	1.99	5.95	7.94	4.36	-3.58
50억 원 이하	1.95	5.85	7.80	4.28	-3.52
100억 원 이하	1.89	5.70	7.59	4.17	-3.42
200억 원 이하	1.84	5.53	7.37	4.04	-3.33
300억 원 이하	1.82	5.49	7.31	4.01	-3.30
500억 원 이하	1.80	5.37	7.17	3.93	-3.24
1,000억 원 이하	1.76	5.30	7.06	3.86	-3.20
2,000억 원 이하	1.74	5.20	6.94	3.81	3.13
3,000억 원 이하	1.72	5.11	6.83	3.75	-3.08
5,000억 원 이하	1.70	5.05	6.75	3.70	-3.05

그러데 이 표들을 볼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은 전기와 통신 각각의 공사금액이 건축공사비 전체의 10%를 전후하기 때문에 건축과는 전혀 다른 높은 공사비 비율의 설계 대비를 요구한다는 점이니. 예를 들어 5억 공사비의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설계비는 구조, 전기, 소방, 전기, 통신 등의 엔지니어링 설계를 포함하여 종합설계일 경우 공사비의 5.74%를 받지만 전기의 경우 5,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 비율인 9.63%를 요구하니, 통신의 경우는 16.37%의 요율을 요구하니 건축설계비에서 타 업종의 설계비를 보조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다.

5-3 3 정부방침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추가 설계업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허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내용은 개별법에 따른 주가업무도 있지만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추가업무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저능형건축물인증 등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런 주가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책정의 기준도 없으며 주가업무에 대한 추가 대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없는 실정이다.

가) 친환경 인증에 따른 업무

친환경인증을 위한 건축물의 평가요소는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이다. 이는 건축을 위한 기획단계부터 검토되어 계획설계에 포함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며 그만큼 많은 기술적 검토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더구나 건축계획적으로 모든 검토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수행한 이후에도 인증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기다리고 있으며 〈표 5.5〉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공식적인 인증 수수료가 들어가며 이 인증절차와 서류가 너무 복잡하여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의뢰금액은 인증수수료의 몇 배에 가깝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표 5.5〉 친환경건축물 인증 실사수수료

공공건축물 인증 실사수수료(상한금액)			(단위 : 천원, 부기세별도)
구 분	500세대 미만	500~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본 인증	6,640	7,960	9,280
예비인증	4,640	5,210	6,310
합 계	11,280	13,170	15,590

- 주거복합 및 업무용 인증 수수료(상한금액)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규모별	활증율	본인증	예비인증	합계
5,000㎡미만	0.6	4,665 [5,073]	3,201 [3,481]	7,866 [8,544]
5,000㎡~10,000㎡미만	0.8	6,220 [6,764]	4,268 [4,642]	10,488 [11,406]
10,000㎡~30,000㎡미만	1.0	7,775 [8,455]	5,336 [5,802]	13,111 [14,257]
30,000㎡~50,000㎡미만	1.2	9,330 [10,146]	6,403 [6,963]	15,733 [17,109]
50,000㎡~100,000㎡미만	1.4	10,855 [11,837]	7,470 [8,124]	18,355 [19,961]
100,000㎡이상	1.5	11,662 [12,682]	8,004 [8,704]	19,666 [21,386]

* ()는 주거복합 수수료임(업무용 수수료에 평가항목수 할증액 반영)

나)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따른 업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인증기관인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업무는 공동주택 및 신축 공공건물(업무용)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 하고 있다.

민간 건축물에는 건축기준(용적률, 조경면적, 건물높이) 완화(2~6%)와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 완화(5~15%), 응자지원 인센티브 등을 들어 유도하고 있다.

다) 지능형건축물인증에 따른 업무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물의 인증을 위한 제도이다. 건축계획 및 환경분야, 기계분야,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의 계획이 필요한 요소로서 별도의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라) BIM 설계 도입에 따른 업무

조달청의 고시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500억 이상의 건축공사에는 BIM설계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발전,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BIM설계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BIM설계를 통하여 추가되는 각종 경비가 설계비에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5-6 건축설계의 자유경쟁 및 공정거래의 잘못된 인식

창작을 하는 건축설계를 바라보는 자유경쟁 및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경제적 시각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 국가계약의 대원칙은 값싸고 좋은 품질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지만 건축설계는 만들어진 물건을 두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설계에 자유경쟁을 유도하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그 금액에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담연히 저렴한 값의 설계비는 저렴한 건축물을 양산하게 되고 그 건축물은 몇십 년 이상이 땅에 존재할 것이다.

설계비는 최대한 싸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거래되어 정상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사들의 창작의도와 건축주의 의도가 적용된 정성적인 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범국민적인 인식이 절실하다.

6. 국내 건축설계시장의 건강회복을 위한 방안제안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절대적이다.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론적인 해결안을 제안해 본다.

6-1 건축설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변화의 필요성

건축물이 국가문화의 척도로서 국민의 자긍심이 된다는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좋은 건축물로 도시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건축물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관심이 없다.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생각해도, 이 글에서 보여주는 건축설계시장의 현황을 보아도 건축사들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설계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변화가 없이는 좋은 건축물의 탄생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물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심해 질 것이다.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하여 최근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경우도 건축물 준공식에 설계한 건축사가 단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소개하지도 않는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인들의 인식이며 현실이다. 출판기념회에 작가가 주인공인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건축설계시장이 건강해 지려면 건축문화의 주역인 설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상확립과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확보에 있다. 건축사를 위해서가 아닌 국가 건축문화의 활성화를 위하고 건축문화 대계를 위해 절실히다.

6-2 건축사업무대가 기준개선의 필요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사업무대가 기준의 문제점은 이미 나열되었고 대가기준 변경의 필요성은 공감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국내의 건축설계도서 내용은 세계적인 수준의 내용을 요구받아 왔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대가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을은 너무도 비상식적이다.

- 협력분야의 설계비 상승률 적용
- 물가보다 더 뛰어오르는 설계 종사자들의 인건비 적용
- 개별법에서 요청되는 각종심의 및 기준적용을 위한 추가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 공공건축물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등의 인증업무대가 추가적용

동에 대한 설계대가의 기준변경은 누가 보아도 필수적이며 하루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들이다.

이와 더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절실한 요소는

첫째, 이렇게 적용된 보수대가 기준들이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다는 것이다.

둘째, 건축물을 공공성을 가지므로 설계비의 평균으로 인하여 영터리 설계와 감리를 하지 못하도록 덤핑규제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3 각종 건축발주 관련 제도변경의 필요성

발주제도, 변경요청에 관한 원론적 제안은 비교적 간단하다.

첫째, 입찰제도는 극복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창작적 디자인이 필요한 소형 신축건축물 모두에 적용하는 것은 아무리 발주의 편의성이 좋다 하더라도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용어와는 반대적이다.

둘째, 실적만을 따지는 PQ제도는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기득권자들을 위한 제도로 오해해도 할 말이 없다. 건설회사의 도급순위에서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설계업체는 오히려 참여기회를 줄여야 한다. 소규모의 설계는 대형업체가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신인 건축사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설계공모전 마저도 PQ제도를 적용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대형설계의 공모전도 특수한 설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솔직보다는 제출된 작품으로만 평가받아야 한다. 그것이 설계공모전이다. 실시설계가 어려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된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가능한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계획설계 부분만이라도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실적에 따라 설계참여의 가능여부를 주겠다는 방식은 무한경쟁에 의한 발전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셋째, 설계공모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되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는 공개되어야 하며 도문에 의한 심사가 필수이며 그 보론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엔지니어링 부분의 심사단은 계획부분의 심사단을 위한 협력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 전기, 구조, 설비, 소방, 조경 등의 전문가가 종체적인 작품의 심사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은 상식이다.

넷째, 원활입찰제도와 BTB 방식은 꼭해야만 할 건축물에만 적용해야 한다. 발주의 편의만을 고집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설계 적용하더라도 경제적인 논리가 작품성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문제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계가 시공에 예속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6-4 설계자의 책임설계제도 강화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건축설계가 대형사무소로 집중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건축설계의 일괄 하도급이라고 볼자는 판단하고 있다. 많은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이 현상설계 등으로 계약이 확정되면 건축+관계기술자 협력업체를 모두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하도급을 주거나 건축부분만 하도급을 주어 혼자 도서 및 실시도면을 납품하는 것은 건축설계시장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는 건축설계시장을 왜곡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건축사사무소들은 자신들이 직접 설계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 수주해야 한다. 그것이 건축설계를 건축사에게만 책임지게 한 건축사법의 기본정신이다. 무한정 수주하여 제3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일괄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설계 창작정신을 훼손하는 건축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또한 이는 국가정책인 청년취업 권장과도 어긋나며 5년 제 졸업생들의 건축사사무소 수련을 위해서도 신축허가 설계의 분배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6-5 국가의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

이 글의 결론으로 건축설계는 이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설계시장의 현황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현재 국내 건축설계시장은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야사 직전의 위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곁으로 나타난 대형건축사사무소들의 모습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형사들도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운영자금의 어려움은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현재의 제도나 법 테두리에서의 배려도 중요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추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 한정된 국내설계시장을 벗어날 수 있는 해외 설계시장의 개척을 위한 도움.
- 설계시장이외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공공건축사 제도 등 건축사업부영역을 확대하여 건축설계시장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혁신적 제도개선 추진
- 건축설계를 진통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으로서의 건축사사무소 지원정책 시행
 - 건축문화사업의 지원확대
 - 건축설계를 위한 Data Base 작성, 관리 및 보급
 - 건축계를 위한 연구 용역사업 확대 및 교육, 보급
 - 건축 관련 대국민 홍보 등….

작품노트 | Design Note



신춘규 / 정희원,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by Shin, Chun-gyu, KIRA/AIA

작곡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이 오하이오주립대 건축, 도시계획 석사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분과 이사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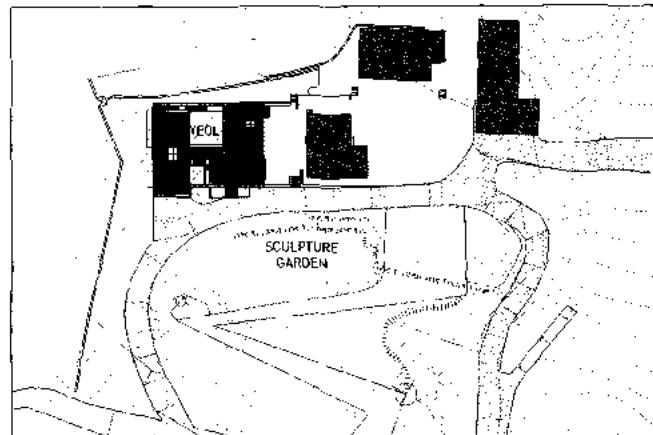
진우 284 HJS 주택

JINWOO 284 HJS RESIDENCE

곤지암에 위치한 HJS주택은 여류조각가의 기존 작업실의 증설을 의뢰 받고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기존 건물이 3동 있었는데 그 중 2동은 유명한 원로 건축사가 설계한 것이었고 나머지 한 동은 건축주 본인이 필요에 의해 증축하였다. 건축주는 이 3동을 헤 집, 달 집, 별 집으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주택의 기능은 충분했지만 보다 넓은 작업공간과 전시공간이 요구되었다. 시작하지 거의 1년이 경과하는 동안 꾸준한 미팅을 가지면서 프로젝트는 점차 주택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초기에 계획했던 작업과 전시위주의 강한 성격을 지난 공간의 형태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작업에 임해야 했다.

작업장과 주거공간, 그리고 야외전시공간 등에 대한 Layout부터 논의를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서울의 집을 옮기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최종의 HJS주택은 대지의 상단 부분에 위치한 기존의 주택배치를 고려하여 서쪽으로 남겨진 대지에 자리를 잡는다. 별 집으로 불리는 세 번째 집을 중심으로 조각 마당과 거



실 그리고 중정과 주거공간으로 반복되는 공간의 켜를 갖도록 계획하였다. 외관은 토석벽들의 단순한 마감과 각 마당을 향해 내향적으로 계획된 창과 함께 전면으로는 절제된 오프닝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대지위치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284

건축면적 234.75m²

연면적 365.60m²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지하 1층, 지상 2층

마감 직벽돌

설계 2009. 2~2010. 2

담당 김유홍, 이창수, 고민정

Architects

Shin, Chun-Gyu, KIRA/AIA

Location

284, Docheok-myeon, Gwangju-si, Byeonggi-do

Building Area

234.75m²

Gross Floor Area

365.60m²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Scope

Total 3 Levels incl. 1 Basement Level

Finishing Materials

Clay brick

Project Team

Kim, Yu-hong, Lee, Chang-soo, Go, Min-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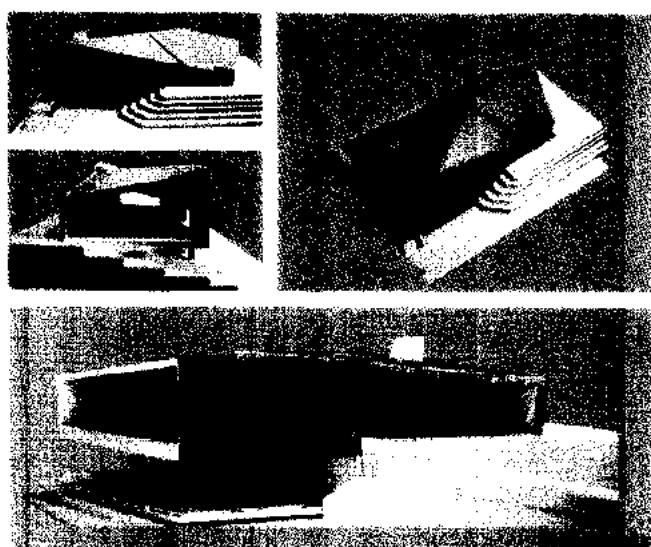


Existing

1. 시작 : 헌드아트를 하는 조각가인 지인을 통해 건축주를 소개 받는다. 건축주는 비교적 나이가 있는 여류조각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외 여행을 즐기는 분이었다. 대지를 바로 방문했다. 진입이 황량해 보였지만 일단 대지에 들어서니 북측으로 산이 백수진을 치고 있고 남쪽으로 고즈넉한 산이 친 가리고 있어 조각가의 작업환경으로는 좋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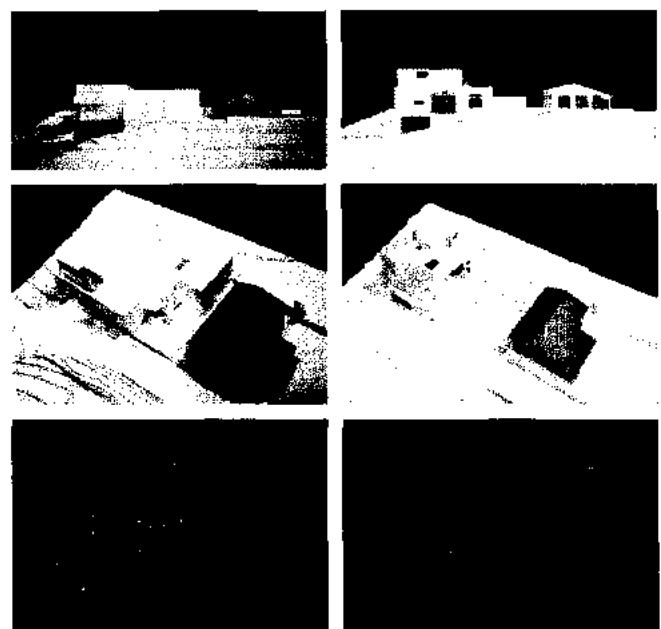
2. 기존주택 : 북측으로 경사진 대지를 크게 두 단으로 나누어 사이에 순환 도로를 내고 도로 삼단에 3채의 주택과 작업장이 그자리 배치되어 있었다. 두 쪽은 원로 건축사께서 설계한 것이고, 한 쪽은 필요에 의해 스스로 지었다고 한다. 특이하게 건축주는 이 세 채를 해 집, 달 집, 별 집으로 부르고 있었다. 여산은 한정적이지만 필요하다면 세 번째 자신이 지은 집은 건축사가 원하면 철거하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3. 설계과정 1 – 작업실 만들기 : 처음 건축주는 현재의 작업공간이 너무 혼소하니 부지 하단의 외부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하고 기존 날 집과 연계된 작업공간을 갖고 싶다고 했다. 단, 연로한 사업가인 남편이 지낼 좋은 방 하나를 넣어달라고 했다. 따라서 별을 좋아하는 건축주에게 두 번째 별 집을 선물하고 싶었다. 단순하면서 기존 지형에 잘 어울리며 작업공간이 둘파 동시에 전시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했다. 또한 제시한 예산 속에서 가능한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날 집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4. 설계과정 2 – 주택 만들기 : 처음 제안한 두 번째 별 집이 너무 좋다고 했다. 그러나 거의 1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 정례회의를 통해 작업실보다는 연로한 남편을 위해 점점 주택화되어 갔다. 결국 첫 번째 안은 포기하고 스스로 제안하게 된다. 이 때 건축주는 독일여행을 하게 된다. 독일 여행 후 주택의 방향이 잡혔다. 그리고 최종안이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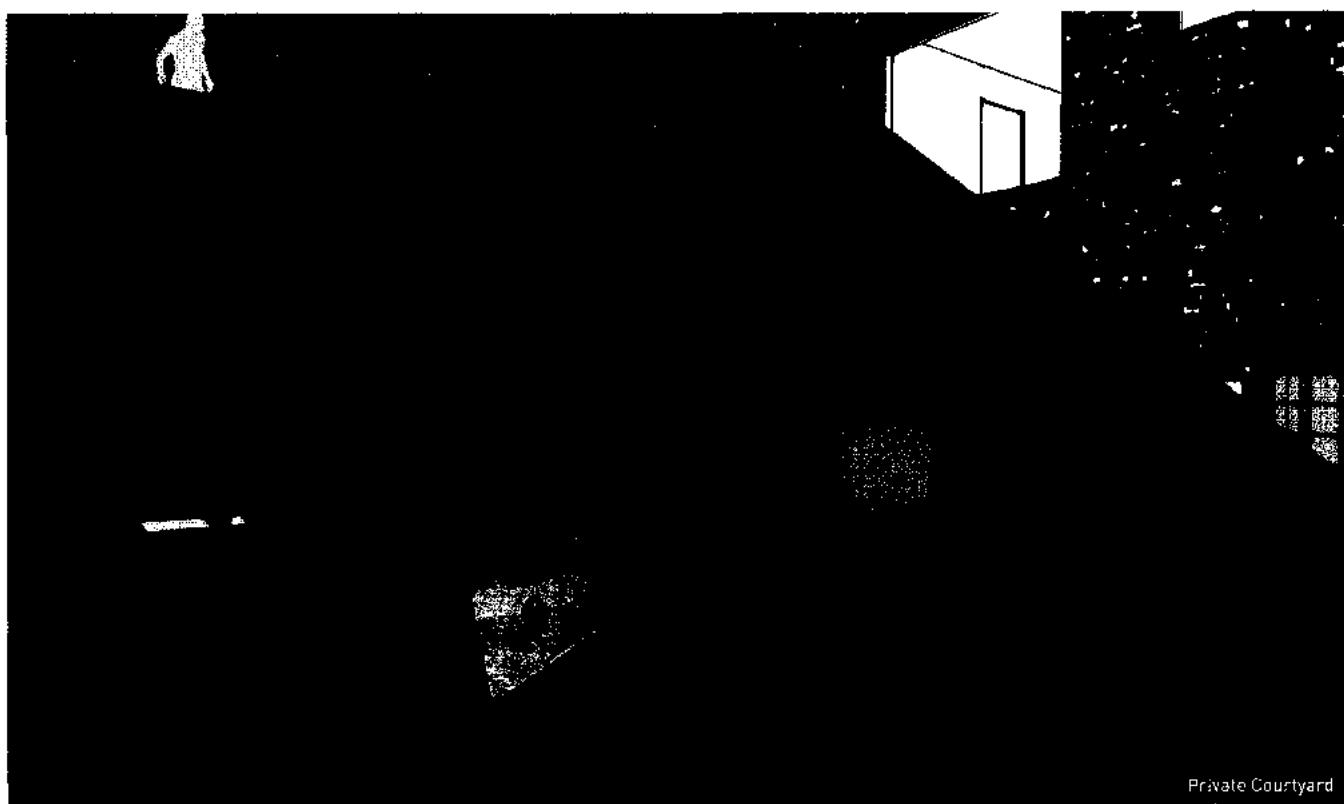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은 언제 지을 수 있으려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뒷산 위쪽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에 놓여가는 진입로를 놓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1년 사이 앞 산이 개발되기 시작되었다. 산이 깨이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들이 불성사납게 들어서고 있고 이제는 이 부지에 정이 들지 않는다고… 언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난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Study Models(Second S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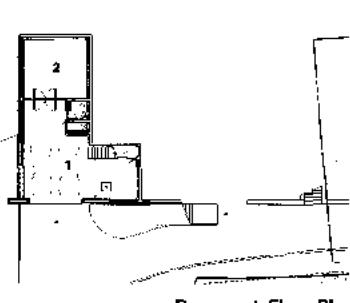
The project started to add a workplace in the existing facility located in Gonjiahim for a woman sculptor. This Facility has three separate buildings where two of them were designed by a famous architect, and the third one was added by the owner as a need. Characteristically, the owner named these buildings as "Sun", "Moon" and "Star" house.

Although the initial idea of the new building was adding a bigger workspace with a gallery cafe, but the project gradually changed into a single residence while we were meeting once or twice in a week for almost a year. The main idea is to respect existing spatial relationship and to organize a series of courtyard by utilizing existing conditions, which would serve for sculpture gardens. Relating each courtyard to the overall plan of the house is oriented inwards and sets a spatial hierarchy between living area and sleeping are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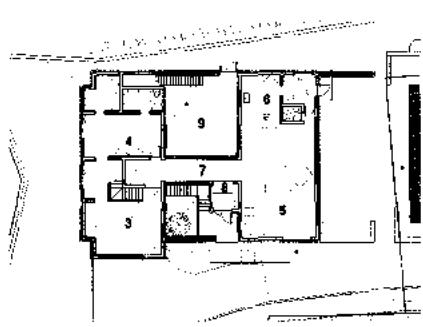


Private Courty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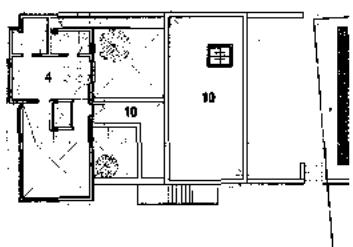
- | | |
|----------------|-------------|
| 01_Parking | 06_Kitchen |
| 02_Storage | 07_Corridor |
| 03_Family room | 08_Entrance |
| 04_Bed room | 09_Garden |
| 05_Living room | 10_Roof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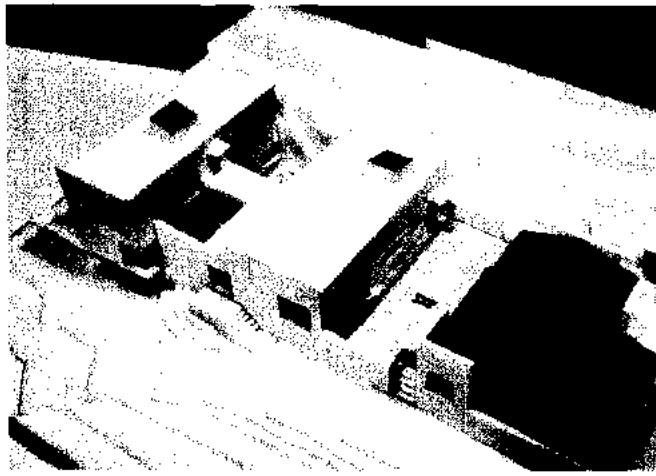
Basemen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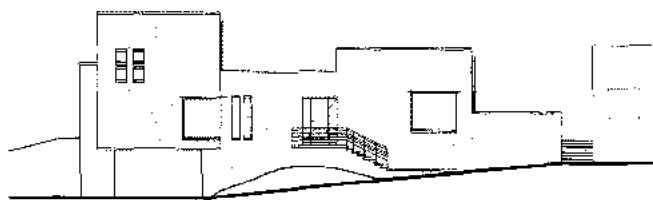
Fir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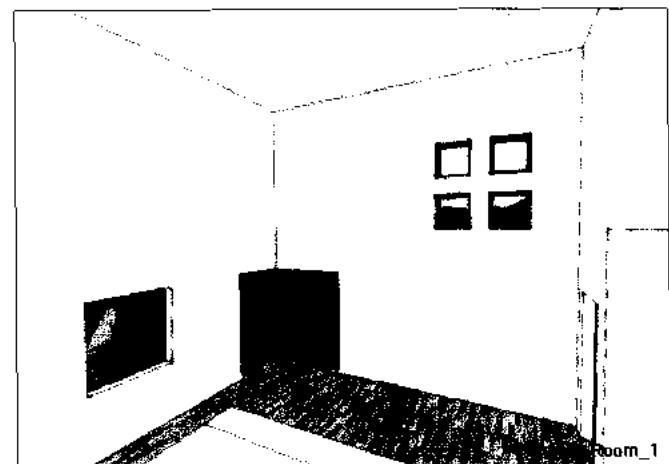
Seco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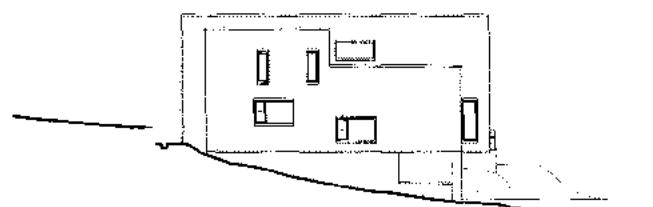
Final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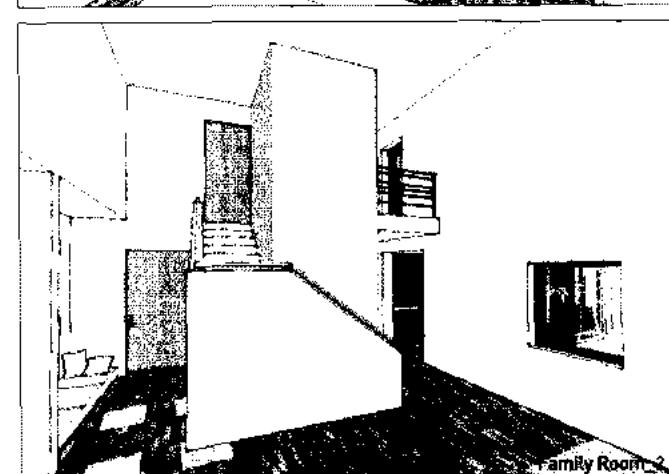
Fron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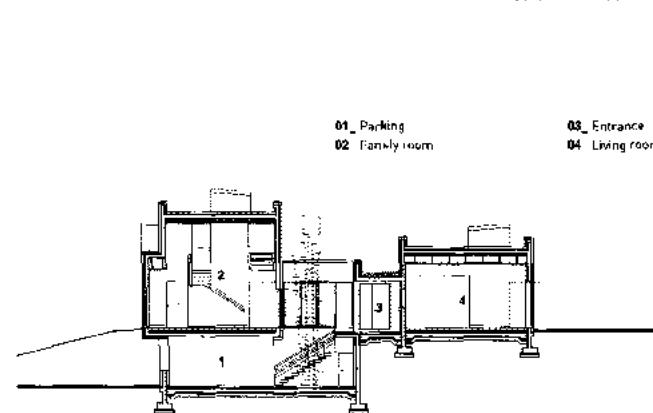
Room_1



Left Side Elevation



Family Room_2



01_Parking
02_Family room

03_Entrance
04_Living room

Cross Section



목은재(木隱齋)

MOKEUJE

박준영 건축사는 매우 독특한 분으로 인터뷰 후에 기억되었다. 매우 훌륭한 품질의 건축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 상황도 마다 않고,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은 대단함을 넘어 존경스런 생각도 들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표현처럼, '산수를 못해' 조직의 운영과 사업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도 함께 들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어디 그 만의 문제는 일까? 학교에서도 산수를 좀 알려주고, 국내 건축 환경이 계속 좋은 품질의 건축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 여건이 되어주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 박안수(수) : 안녕하세요. 이제 이 인터뷰도 벌써 9회째입니다. 우송대학교의 유정훈 교수님과 저는 이제 매우 익숙해진 느낌입니다.

●●● 유정훈(유) : 저도 실무를 하다가 교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것이 흥미 있습니다. 전 박준영 건축사님처럼, 멋있고 재미있는 건축을 하는 분들을 보면 부러움이 있습니다.

●●● 박준영(박) : 그러시군요. 실무를 하시고 교수를 하는 분을 봄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 수 : 네. 최명진 회장님의 취임하시면서, 새로 편찬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서 제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무언가 뜻있는 일을 하나 해야겠는데, 그게 무얼까 생각하게 되었고, 국내에선 건축사와 건축물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많은데 비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인터뷰는 없어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건축물을 염두에서 인터뷰를 하면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편찬위원회에서 전호 총은 근래에 건축사지 계재작 중에 인터뷰할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 : 저는 협회일은 안하고 있는데, 아니 못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 수 :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 대상은 '목은재'라는 주택이죠.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인터뷰나 건축에 대한 내용이 너무 어렵고 현학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쉽고 직접적인 느낌이 가도록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또 유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 : 일례 오시면서, 힘드셨던 이야기도 좀 하시고, 고쳐져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 : 건축사사무소 주가인을 개업하신지는 얼마나 되셨고, 그 전엔 어떻게 지내셨고, 개업하셔서 지금까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 박 : 제가 근무했던 곳은 한미, 삼풍 그리고 신조건축 등을 거쳐왔죠.

● 유 : 그 사무소들의 규모는 어떤 규모의 사무소이었나요? 작은 규모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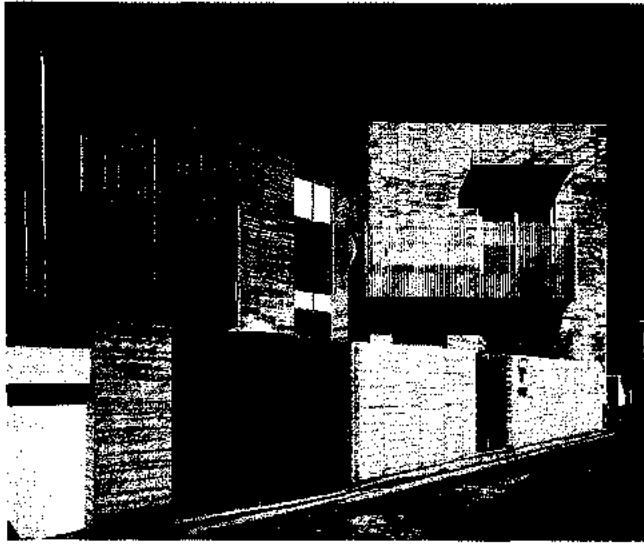
● 박 : 규모들은 좀 있었던 회사들이었죠. 특히 신조건축은 오웅식 선생님이라고 협회 회장도 지내셨던 분이 운영하시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 안에 좀 작은 조직에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큰 조직에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한 8명 정도 되었죠. 한미나 삼풍도 규모가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짜여진 틀에 맞추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었었습니다.

● 유 : 각 사무소마다 얼마나 근무 하셨었는지요?

● 박 : 삼풍이나, 한미에서는 각 1, 2년 정도 있었고, 신조에서는 군 제대 후 주로 있었으나 십여년 있었습니다.

● 유 : 오래 일 하셨었네요. 개업하시기 전에는 주로 신조에서 일을 하신 거겠네요?

● 박 : 그렇습니다.



개화동 인회현

◆ 수 : 근무하시면서 참여하셨던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박 : 뭐 딱히…한미 건축에 있을 때는 서울역사 현상설계에 참여했었고, 고속 전철 관련 해서…삼풍에서는 롯데호텔 실무팀으로 현장에서 일했고, 신조건축에서는 계획팀으로 계속 일했었습니다. 거기서 여의도 침례교회 수양관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마지막 프로젝트여서 기억이 남아 있어요.

◆ 수 : 신조 건축에서 오옹석 선생님 말고 함께 일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 계실까요?

● 박 : 고석생 소장님하고, 이용학 소장님 계셨죠.

◆ 수 : 지금도 이 분들이 일하시나요?

● 박 : 지금은 안하세요. 연세가 모두 일흔이 넘으셨어요.

● 유 : 당시 일했던 것들이 지금 주가인에서 일하시는 것과 관련성이 어필까요?

● 박 : 조금 다르죠. 하지만 제가 당시 사무소에서 트레이닝을 참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 유 : 하지만 그런 트레이닝이 지금과 같은 건축을 하게 한 것이겠네요

● 박 : 그렇죠.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수 : 아까 말씀 중에 큰 조직은 생리에 좀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신조건축은 생리에 좀 맞았다고 할 수 있나요?

● 박 : 생리에 맞았던 것은 소장님들이 저를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몇 시에 나오면, 몇 시에 들어가면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활동하는데 자유로웠어요. 당시 소장님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9시에 나오는데, 10시까지만 나오면 월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10시 이전에 출근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밤에 일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이유가 있었죠. 밤에 주로 일하니 제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장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일해야 하는데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좌송스럽죠. 소장님 앞에선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지만, 저 나름엔 명분이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 수 : 혹시 신조건축 전에 삼풍이나 한미에선 그런 것으로 문제가 없었나요?

● 박 : 자주 자각하니까 자각이 표처럼 제겐 불어 다니는 거였어요. 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유 : 혹시 개업하신 이후에 직원들 중에 박준영 건축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었나요? 혹은 그런 직원이 있다면, “너는 10시 까지 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 박 : 출퇴근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몇 시에 출근하건, 열심히 하는데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저희 일 할 때 외는 의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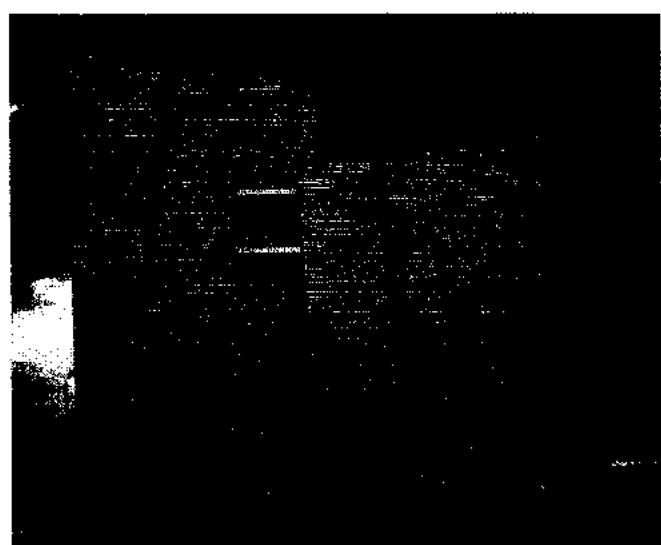
◆ 수 : 혹시 개업하기 전 사무소 근무를 통해 무언가 배웠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 박 : 지금 생각해 보면, 트레이닝은 철 빙을 것 같아요. 단 몇 일만에 계획안 원료를 하였죠. 당시 소장님들이 지적도 하나 주고, 몇 일까지 해야 하는데…하고 나가시면 제가 완전히 혼자 일을 진행하였죠. 엄청난 트레이닝이 되었어요. 사실 평면에는 입면, 단면이 모두 담겨있으니까 입체퍼즐게임 같은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제 성에 철 정도의 계획안을 완성하는 것이죠. 당시는 참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결국 시간내에 해냈어요.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스케치 한 두장으로 전체 구상을 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걸 나중에 알았지만 회사에서 제가 그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도 제겐 큰 도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됩니다.

● 유 : 건축사들이 트레이닝을 받는 것을 보면 유명한 스승 밑에서 그 생각을 배웠다는 것도 있고, 건물을 직접 만들면서 건실하게 건축을 배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박준영 건축사님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 :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승(殊勝)한 스승 밑에서 배운다는 것이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다면 조금은 다른 길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건축의 관점을 갖고 바닥부터 성실히 해왔다면, 추구하는 건축이 스승의 생각보다 각자의 생각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모셨던 소장님의 정해진 내용으로 제게 주입하려하지 않은 것이 제겐 더 큰 가능성을 주신 것 같습니다.

● 유 : 하시면 주변이나 좋아하는 건축사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판권

있을까요? 혹시 참고하시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 박 : 있다고 봐야죠. 어렸을 때 건축전문지, 잡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책을 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보았죠. 물론 충내도 내고, 지금 돌아와 보면, 마리오 보타의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강하게 제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김수근 선생님의 건축도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분들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 유 : 저희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보면, 대개 유명 건축사와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박 건축사님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서 어떤 분이실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 수 : 그럼 신조건축에서 나와서 바로 건축사사무소 주기인을 차리신 것인가요?

● 박 : 나와서 좀 헤메다가 차리게 되었죠.

● 수 : 그래서 질문이 더 이어지는데요. 왜 나오시게 되었는지, 또 개업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유 : 건축사면하는 언제 취득하셨나요?

● 박 : 1990년에 취득했습니다. 예전 사무소는 워낙 바빠서 시험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친구가 하는 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처럼 도와 주었죠. 그런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 친구일도 너무 바빠서 제 시간이 없더라고요. 당시 생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면허를 취득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그것은 업무의 끝이 명확해서 시간을 좀 쓸 수 있더라고요. 당시 국내에 메이저 설계회사 'K'사나 'S'사 같은 곳의 일을 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개업은 했지만 운영은 쉽지 않았어요. 친구 사무소를 도왔던 것, 또 혼자 아르바이트하면서 사무소 운영에 대해 조금 접했지만, 저로선 너무 문외한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맘에들게 하면 고맙고, 또 그렇지 못하면 열 받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조직을 다루는 면에 참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유 : 하지만 지금 조직을 만드셨잖아요?

● 박 : 결국 그렇게 된 건가요?

● 수 :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신조건축에서 나와서 친구 분 들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개인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면허를 취득하고, 주기인을 만드신 것이잖아요? 주기인을 만드시게 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 박 : 그 전에 선배사무소인 「간(間)」 건축에서 같이 일 했었어요. 지금은 단국대에 계신데. 그분이 대학강단으로 가면서, 상호를 주기인(住家人)으로 바꿔 혼자 일하게 되었죠.

● 수 : 그럼 그분하고는 얼마정도나 일을 하셨나요?

● 박 : 4~5년 정도 일했습니다.

● 수 : 지금 보면 2003~4년 정도에 주기인 상호를 만드신 거네요.

● 유 : 주기인 이름은 직접 만든 사무소 이름이네요. 주와 가는 'HOME', 'HOUSE' 그리고 사람 뭐 이런 것인가요?

● 박 : '사람 사는 집?' 이런 스스로의 질문이죠 워.

● 유 : 처음에도 주택이 많았나요?

● 박 : 그렇진 않았어요.

● 수 : 주기인이란 이름으로 바꾸기 전에 간에서부터 계속 같은 조직으로 진행되었겠네요

● 박 : 그렇습니다.

● 유 : 장소는 어디였나요?

● 박 : 양재동에 있다가, 방배동 까페골목에 있다가, 지금 서래마을로 옮긴지 한 8년 되었습니다. 그땐 제가 개포동에 집이 있었고, 지금은 일산에 살다보니 여기가 제일 편리 하더라고요.

● 수 : 간 건축은 파트너십이었죠?

● 박 : 그렇기도 했지만 각자 일했습니다. 독립채산제였죠.

● 수 : 그럼 각각 팀이 있었겠는데요. 출수하신 것인가요?

● 박 : 그렇진 않아요.

● 수 : 아무튼 그렇게 사무소를 차리게 되셨는데요. 사실 박 건축사님은 조직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드리는 것인데요. 왜 사무소를 차리게 되셨을까요? 그때는 무슨 느낌이 있었을까요?

● 박 : 사실 처음에는 생계와 관련 되어서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생활터전이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주기인을 만들 때는 저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 수 : 그 말씀은 박 건축사님이 일하시는 데 근간이 되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 박 : 그렇죠. 어떻게 건축을 할까? 에서 나는 왜 건축을 하는가? 를 고민하게 되면서 주기인을 만들게 됐어요.

● 수 : 예. 그것이 바로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질문해보면, 주기인이 박 건축사님의 건축 정체성에 도움이 되셨나요? 또 하나의 질문은 사실 많은 건축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미숙하거든요. 그런면에서 지금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 박 : 조직이나, 경제적 측면에선 더 안 좋아진 것도 같습니다. 일종의 계산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저는 공사 끝날 때까지 보완작업을 하니 직원들도 힘들죠. 주택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년사오개월은 필요한데. 주택 설계비 받아서 이렇게 일하면 참 어렵죠. 원주에 주택이 있었는데 주말마다 내려갔어요, 초우재라고. 저는 전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몇 손해가 나느냐가 문제지 넘는 경우는 없어요. 산수를 못하다보니 참 어렵습니다. 욕심 때문에 업무를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됩니다.



초우재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작품을 내놓고, 일을 열심히 의미있게 하시는 분들은 제도나 기준에서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사 면허만 있다고 모두 그런 혜택을 받을 순 없겠지만, 일정한 제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 : 그렇죠. 그런 기준과 제도가 우리에겐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수 : 또 전해들은 말씀 입니다만, 야구경기가 경기로 관람할 수 있는 것은 그 경기에 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일 야구경기에 룰이 없으면, 몽둥이와 단단한 돌멩이를 들고 양팀이 마사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즐기고,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룰. 규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도 그런 공정한 운영이 되기 위해선 기준과 룰의 설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 :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선생님은 설계만 하세요. 제가 나머지 운영, 조직, 경제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 아닐까요?

* 수 : 그런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 말씀 아닐까요?

* 박 : 그런데 지금 방금 유 교수님 말씀처럼,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일면서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말이죠. 각자의 원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인데 건축사로서 자기 입장의 관점만을 고집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봐도 그래요.

* 수 :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주변이라는 분들이 누구실까요?

* 박 : 사무소하는 친구들 중 작게 사무소 하는 친구들은 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고, 규모 있는 사무소를 하는 친구들은 그냥 듣기만 하죠. “사업은 야구나 하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 유 :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침 대단하십니다.

* 수 :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주가인 운영하시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박 : 글쎄요. 의미라기 보단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모은재 같은 경우 건축주와의 관계에서 건축주가 전적으로 신뢰해준 것은 참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고생스러웠던 것을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협의가 아닌 자본논리에 타협해야 하는 일들은 결국 건축주와 공동작업이 되고 말죠.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 수 : 그럼 뒤에 말씀해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혹시 그런 시례도 함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타협이 되었거나, 말씀처럼 공동작업(?)이 된 건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업하는 건물들, 분양하는 건물들이 주로 그런 긴줄이 아닐까 하는데요.

* 박 : 결과물에 대해선 항상 만족하진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과정에 있어요. 과정에서 일에 대한 거부의식이 있다 보니, 결과물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유 : 주가인의 경우 직원이 제일 많았을 때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운영 되었던 인원은 어떻게 되실까요?

* 박 : 제일 많았을 때는 18명 정도 였고, 2년전 정도까지는 7~8명 정도가 함께 일하고 있었죠.

- 수 : 네. 그런데 조직의 운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박 건축사님의 건축 정체성을 위해선 도움이 되었나요?

● 박 : 자기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또 경제적 이유로 나가고 하니 회사에 기술과 자식이 축적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죠. 제가 좀 더 현실적인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되질 못하거든요.

- 유 : 시무소 운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사람이 있나요?

● 박 : 지금은 없습니다.

- 유 : 지금 직원은 얼마나 되시나요?

● 박 : 상주는 2명이 있고, 재택 근무하는 예선 직원이 3명이 있어요.

- 수 : 그러니까 박 건축사님이 모든 것을 전부 쟁여서 일하는 식이군요

● 박 : 그렇습니다. 제가 계약부터 디자인, 도면검수, 감리, 운송 등 모든 것을 다해야 하죠.

- 유 : 도와줄 세컨 맨(second man)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텐데…

● 박 : 그렇죠, 매우 절실하죠. 제가 할 일이 많아지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 유 : 실무쪽으로 다른 분들과 파트너 쉽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혼자서 하려고 하실 것 같아서요.

● 박 : 외연했던 방안이지만, 지금은 현실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어요.

● 수 :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런 일을 개인이 모두 해결하기보다는 일정한 제도가 지원을 좀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하준 교수가 한 이야기 중에 보면 “사람은 네 살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모두 네 살부터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하자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네 살부터 종사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자라고 교육해서 의사, 변호사 같은 보다 중요한 사회적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키우고 나서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친가지로 건축설계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두었다고 능사가 아니라, 지키고 보호할 것은 최소한의 제도가 막아주어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 유 : 그럼 그때는 재택근무 같은 것은 없었겠네요.
- 박 : 그렇죠.
- 유 : 18명 정도 되면, 현상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랬지 않았나요?
- 박 : 현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지 못해요. 전에 직원으로 일할 때는, 현상 설계 과정을 즐겼는데….
- 수 : 지금 말씀 들어 보면 현상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순 없으실까요?
- 박 : 제가 정확한 이유를 들어 부정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경쟁력의 부재겠지요.
- 유 : 그래도 현상 같은 것을 보면, 막 ‘당기는’ 프로젝트들도 있지 않나요?
- 박 : 있죠. 전 주로 결과물들이 다 나오고 나서 알게 되죠. 그 결과물을 보고 ‘아 이런 것은 한번 해보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최근에 노들 섬 오페라 하우스 현상설계는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유 : 박 건축사님과 이야기 해보니, 자존심이라 볼 수도 있고, 미묘한 생각이 듭니다.
- 박 : 어쩌면 그것은 나를 주장하자는 것인데, 제 주장이 올바른 것이나에 대한 확신도 부족한지도 모르죠.
- 수 : 사무소 직원들은 어떻게 선발하고 계시나요?
- 박 : 사람을 찾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직원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공고를 통해 뽑게 되는데. 그 방법이란 것이 사람의 성향이나 업무능력을 확인 할 수 없죠. 인개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있죠.
- 수 : 그래도 그간 사용하신 방법 중에 제일 효과가 있었다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 : 그래도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박 : 우연치 않게 괜찮았던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워 인터넷으로 뽑았는데 괜찮은 친구가 왔거나. 소개로 왔는데 또 괜찮은 직원이 온 경우도 있죠.
- 유 : 학교에 강의 나가시지는 않나요? 그런 걸 하면 좀 쉬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
- 박 :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나 지인들에게 부탁을 드린 경우는 있는데, 회사가 경제적으로 불안하니 소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 유 : 주가인이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급여는 일정부분 정해서 지금하시는 거잖아요.
- 박 : 그렇죠. 가능하면 원하는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런데 지금이 미뤄지는 경우가 일년에 몇번도 있을 수 있으니 서로가 지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겠다는 친구가 있다면 올인 해보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 수 : 제게 보여주신 작품집을 보니, 시공 품질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틀림 없이 이 건물들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들면, 시공자가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게 꿈 하는 원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 : 그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된 시공자가, 누구라도 천폭적인 지지를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가능한 예상되는 설계가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는 대부분 공사비를 깎으려 하는데, 미리 건축주에게 설계 예상가를 귀뜸하는 겁니다. 건축주에게 미리 예시를 하죠.
- 수 : 그런데 시공사라는 특징이 많으면 많은대로, 또 적으면 적은대로,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니, 박 건축사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박 :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결과정보와 계약내역서가 있으니 조절이 가능하죠.
- 수 : 물론 공사비도 잘 받았고, 하지만 시공사가 또 악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 박 : 그럴 수도 있지만, 설계자가 공사계약서 같이 참여하여 조율하는 수고를 해준다면 성방의 입장은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업무에서도 유리하지요. 현장에서 설계자가 감독이 아닌 시공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유 : 각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시공을 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중복되는 건설사가 있나요?
- 박 : 지역업체들이고,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 수 : 참…현장에서 많은 것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장을 잘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 유 : 거의 달인이시네요
- 박 : 현장책임자에게 “네가 현장에선 최고다” 내게도 당신의 노하우를 좀 알려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고 가죠. 물론 제가 알고있는 노출콘크리트 지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상대를 인정해 주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 유 : 시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시공자들이 안 해 본 공법일텐데요.
- 박 : 그렇기도 하지만, 저도 매번 많이 배웁니다.
- 유 : 그러니 직원들에게 맡기시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 박 : 일부 시키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절 뒷받침 해주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일을 조정 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렵죠. 현장과 소통할 때는 단순하게 정리해서 ‘아, 이게 되겠구나’식의 느낌을 받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복잡 하면 심지어 “돈

너줘도 안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서 이게 되겠구나란 느낌을 반드시 싣어주어야 합니다.

◆ 수 : 이런 노하우는 주가인 차리면서 알게 되셨을까요? 아님 그 전에도 이미 좀 연습이 되있으셨을까요?

● 박 : 직장 근무 때는 사무소 안에서 퍼즐(계획)들이 하느라 현장엔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사무소 오픈하면서 현장을 나가기 시작했죠. 도면에 액체방수 2차라고 써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수없이 써왔던 기본적인 자재가 실제 어떻게 사용 되는지 궁금했어요.

● 유 : 그래서 현장의 궁금증은 다 풀리셨겠네요.

● 박 : 많은 부분 그렇죠. 사실 제가 공부하려고 현장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된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변형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런 내용을 도면에 반영하기도 하면서 현장을 이해하게 되었죠. 예전에는 권위의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굳어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에 나가 책임자가 도면을 이해하고 있는지 직접으로 확인하고 나 또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수시로 책임자와 상의해서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을 처리 할 수 있어요. 그들과 같이 건축을 즐겨야죠.

◆ 수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박 건축사님이 현장에서 처리하는 일이 매우 많고, 또 중요한 업무로 파악되는데요. 혹시 그런 노하우가 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표현되어 시스템화가 되어있진 않으신지요?

● 박 : 그거…그것을 자료화하지 못했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입니다. (웃음)

● 유 : 사실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단히 유용하실 텐네요.

● 박 : 현장에 석고보드 처지면, 주로 석고보드 위에 그려져 있어요. 건물 뜯어 보면 있을 겁니다.

◆ 수 : 사진이라도 찍어두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 박 : 현장 실무진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시공도 쉽고, 보기도 좋은 살아있는 디테일들이죠.

◆ 수 : 박 건축사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 설계하시고, 감리를 하지 못하시면 일을 안했다고 표현해도 솔직히 감리업무에 비중이 있네요. 그러나 최근에 협회 내에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한다는 움직임에 대해선 상당히 반대 하시겠어요.

● 박 : 어느 편이냐고 묻는다면 건축편이죠.

● 유 : 작품집에 나와 있는 모든 건물을 감리 하셨겠어요. 특히 주택이 많으시니까요.

● 박 : 그렇죠.

● 유 : 박 건축사님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수주를 하시게 되셨나요?

● 박 : 초창기에는 제 역량이라기 보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턴키로 수주한 것을 제게 의뢰해서 이뤄졌고, 나중에 그 연으로 올들이 좀 생기게 되었죠.

● 유 : 저 MJ 건물은 어떻게 수주하신 것인가요?

● 박 :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턴키로 수주한 것을 제가 설계한 것입니다.

◆ 수 : 저 건물에서 타일이 매우 이채로운데요. 에폭시로 일일이 붙힌 것인가요?

● 박 : 절판암을 쪼개서 유닛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에폭시로 접착한 것입니다. 양 측면이 손가락처럼 벌어져 있어서 서로 까우면서 접착한 경우입니다. 벽체에는 건식으로 부착되었습니다.

◆ 수 : 시공이 매우 잘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 박 : 현장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설치미술가가 연출과 시공을 담당했어요.

● 유 : 혹시 저 공법에서 흔히 같은 것이 있진 않았나요?

● 박 : 아직까지는 없어요. 사실 저도 불안했거든요.

● 유 : 근데 이 건물이 매우 높거든요. 몇 층이죠?

● 박 : 6층으로 한 30여 미터 됩니다.

● 유 : 창문이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 박 : 전면이 기벽으로 서 있는 것이라고 그 안쪽에 창문이 있어요. 안쪽에도 같은 절판암이 돌아가며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이 벽체의 마감을 볼 수 있어요.

● 유 : 채광은 괜찮나요?

● 박 : 채광은 측면에서 주로 이뤄집니다.

● 유 : 유사한 건물이 하나 더 있던데. 그것도 완성되지 않았나요?

● 박 : 네. 연예기획사 사옥으로 준공까진 했는데. 건축주의 사업이 수난을 겪으면서 간신히 입주만 되었어요. 그래서 완성이이라는 좀 그럴죠.

◆ 수 : 박 선생님 말씀 들어 보면, 인테리어 디자이너, 설치예술가 등 예술계통의 인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들과 친분을 갖게 되셨나요?

● 박 :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었고, 일을 통해 알았죠. 물론 지금은 네트워크 생긴 편이지만….

● 유 : 그런 분들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신 것인네요…

● 박 : 그렇다고 할 수 있죠.

◆ 수 : 그렇다면, 건축주가 다른 건축주를 다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신 것 아니요. 그리고 또 보여주신 건물중에 ‘퍼즐’이라는 건물을 보면 단독주택이 아니고 사업하는 즉, 판매하는 건물로 보여 지는데요.



MJ 빌딩

구체적으로 진행합니다. 그 경우 어렵지 않게 계약이 이뤄 졌습니다. 제가 좀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 유 :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시면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실까요?

● 박 : 한 건이 있었는데, 당연히 신뢰부족이죠. 사이트가 양양에 있었고, 제가 주말마다 내려가 일을 봤는데 일의 방향이 자꾸 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 확인 했더니,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별도의 작업지시를 수시로 한 거였어요. 시공자는 제 말보다는 건축주 말을 둔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화로 확인 했더니 “제 집인데, 제 마음대로 못합니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를 놓준 저도 블찰 이겠지만 바로 정리했죠.

● 유 : 건축주가 건설에 경험이 있거나, 뭐 좀 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었나 보죠?

● 박 : 그런 분 같진 않았는데, 자기만의 고집을 서로가 주장한 거죠.

● 유 : 혹시 남들이 생각하는 박 건축사님은 어떠실까요? 성격이 선 편이실까요? 그렇게 주장을 실현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 : 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고집이 세단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전 오히려 좀 부드럽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요즘들어 생각을 해보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 수 : 지금까지 사무소를 주욱 해오시면서 가장 위기였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셨나요?

● 박 : 지금입니다. 지금 아주 바쁜지 아니면 더 내려갈진 모르겠지만, 지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허가 문제도 그렇고 아, 제가 하가 문제를 좀 말씀드려 볼께요. 종로구 은화문지구 지구단위계획인데요. 지구단위지침에 도로사선에 의해 계단식이나 사선으로 꺾이는 것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었죠. 물론 저도 그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 매스구성을 통해 결합된 느낌을 갖도록 제안했어요. 스킁폴로어 구조으로 높이가 다른 2개의 매스를 결합하여 도로사선에 대응한 것이죠. 담당자분이 매우 성실한 공무원이었는데, 통일한 계단식이라고 판정 하더군요. 할 수 없이 재설계를 하고 있어요.

● 수 : 그건 단일매스를 만들고, 셋백(set back)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도로 폭을 보면 한 층 정도 밖에 셋백이 되지 않을 것 같군요.

● 유 : 셋백이 되었을 때, 무슨 문제를 갖고 그런 것일까요?

● 수 : 가로 경관측면에서 그런 것이겠죠.

● 박 : 제가 보는 설계지침의 취지와 의도가 그들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상의 2대 충돌도 험들게 하네요. 이 건물의 용도는 원룸개념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 수 : 그렇군요. 사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이 국내에 참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독일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독일의 B-PLAN(지구단위계획에 해당)에서 지정 된 내용을 벗어나는 안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허용해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심의위원회에게 질문을 하니, 그 결과가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인이 좋고, 도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안을 사주는 그들의 유연함이 참 부러웠습니다.

● 박 : 주인이 시는 임대주택으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 수 : 박 건축사님이 그간 작업하신 건물들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런 품질과 디자인을 유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 유 : 혹시 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주셨나요?

● 박 : 그렇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주인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입니다.

● 유 : 이게 몇 가구인가요?

● 박 : 원룸과 투룸이 있고 주인세대 포함하면 15가구입니다.

● 수 : 박 건축사님은 설계 수주에 있어서 성공률이랄까 이런 것을 대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자면, 몇 번의 미팅을 하면 몇 번을 계약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 박 : 글쎄요 제가 직접 건축주와 만나는 경우에는 90% 이상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제 3자를 통하는 경우는 거의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 수 : 그건 왜 그렇게 될까요?

● 박 : 그건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느낌을 믿는 그런 상황이 되면 100% 성공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서로의 교감이 없잖아요. 그러니 결과도 그렇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 수 : 그렇다면 그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뭐 지어진 건물을 통해 서로든지 박 건축사님에게 개인적 믿음이 있다던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 박 : 그럴수 있죠. 서로 마주하고 의견을 나눈 경우와 제가 설계한 건물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 이미 신뢰가 전제된 것이죠.

● 수 :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개의 건축주가 약간은 의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 박 : 서로의 생각을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저도 물론 건축주가 신뢰가 가야

● 박 : 저희도 그런 유연한 제도가 있으며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공무원하고 이야기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좋은 건물이라고 공인되거나, 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건물들은 세금을 줄여준다거나,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여야 개인 건축주들이 좋은 건축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나 물었었죠. 그런데 요즘엔 그것도 회의가 들어요.

● 유 : 지금 그러니까, 관 문제로 매우 힘드신 거네요.

● 박 : 그렇습니다. 워 전반적으로 힘든 경우입니다.

수 : 그림 목은재로 좀 넘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 긴물을 스트레스하게 되었나요?

● 박 : 기업가이시고요 그 분에게 어느 분이 설계자로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건축주를 만나보니, 지금 사무소 건물의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되었죠.

● 유 : 양평에 위치했다고 써 있는데요. 거기서 거주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큰 집에 가주하실 만큼 가족이 많으신가요?

● 박 : 주차장 포함해서 160평 정도 도고로 현지에 가주하고 계십니다. 자제분들이 수시로 함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전제로 기획된 건물입니다. 건축주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일구신 70이 넘은 분인데, 아주 활력이 넘치시고, 지금도 회화를 배우고 계세요. 꿈으셨을 땐 건축기가 놓아! 놓았어요. 보기도 문 열린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참 즐거운 작업이었죠.

● 유 : 대지는 얼마나 되나요?

● 박 : 임야를 포함한 작지 않은 부지를 갖고 계셨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400평 정도 받았습니다.

수 : 사진을 보니 대지가 고지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층 정도

● 박 : 그렇습니다.

수 : 매스들이 방향이 조금씩 서로 엇나가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 박 : 2층 부분은 남한강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아래층은 대지의 마당 쪽으로 동남향이 됩니다.

수 : 이 사진은 뜻 보던 것인대요. 진입부인가요?

● 박 : 네, 이것은 제가 시공까지 주도한 것인데요. 일종의 진입부에 있는 휴식처입니다.

수 : 내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요? 주택의 일반적인 프로그램 외에 특별한 것이 있나요?

● 박 : 보시는 데보고요. 주택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체를 3파트로 나누어 쓸 수 있게 한 것이 좀 특별한 계획이었죠. 예전에 가봤던 독락당에서 얻은 느낌인데, 어떤 의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치된 설정을 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 열림을 극대화 하려면, 그 전에 닫아두는 것이죠. 말로 표현하자면 '반전'이거나, '생각 같아타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되겠죠. 그리고 독락당의 미로같은 것을 반영하려고 했죠. 다행히 건축수도 재미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파트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이 일어서 더 이상의 슬거진 것이 없다면 재미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목은재에서는 주공간들이 바로 연결되기도 하고 와·내부가 서로 부딪치며 관계하고, 축이 틀어지면서 내가 걸어온 쾌적을 잊어버리는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앞으로도 이 경험과 생각을 좀 더 발전 시키려고 합니다.

● 유 : 외부에서 이 건물이 노출 되나요?

● 박 : 도로에서 멀리 보이거나, 강 건너 저편에서는 아주 작게 보이겠죠.

● 유 : 설계비는 잘 받으셨나요?

● 박 : 주택 설계비로 충분한 경우도 잘 없지만, 그렇게 받는다고 해도 늘 부족하죠.

● 유 : 공사비는 어떤가요?

● 박 : 조경 등을 포함해서 평당 7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 유 : 그렇다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 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는 항상 부족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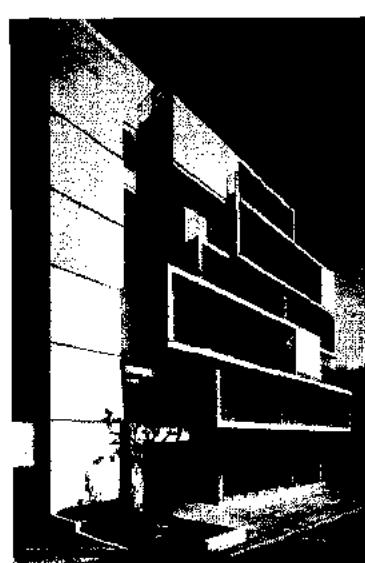
수 : 그렇죠. 국내에선 설계비가 평당 100만원 정도로 일정 퍼센트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싸고 좋은 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죠.

● 유 : 박 건축사님은 원천적으로 콘크리트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이 초우재도 콘크리트네요.

● 박 : 네, 콘크리트에 적삼목을 올렸죠. 기억속에 남아있는 판자집의 정감을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수 : 박 건축사님께 콘크리트는 어떤 재료일까요?

● 박 : 제 생각을 잘 표현해 주는 재료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료이



퍼즐하우스



기도 하고요. 어려운 결합이나 디테일 없이 맘먹은 데로 표현이 가능해서 즐거습니다.

● 수 : 혹시 주변에서 이 콘크리트에 대한 반론을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너무 차갑다 라던지, 아님 건강에 좋지 못한 재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데요.

● 박 : 네, 그런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재료가 콘크리트예요. 디테일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물론 재료에 대한 개인적 의미도 있죠. 순수함, 솔직함, 본질이나 조형성 등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결국 편한 것입니다.

● 유 : 그런데 국내 기후 상 건축에서 콘크리트 단판으로 건축을 할 순 없잖아요?

● 박 : 그럴죠, 단열을 해야죠.

● 유 : 그래서 일본과는 좀 다른 기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 : 디테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벽면의 얼룩방지를 위한 물길을 만든다든지, 창호와의 결합, 방수처리와 재료끊기 등 기본 디테일은 필요합니다. 과거 노출콘크리트에서 생겼던 문제점들은 극복해야죠.

● 유 : 제가 개인적으로 화학하시는 분을 아는데요, 그 분 표현을 빌면, 콘크리트가 매우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구요. '하로 할아도 된다'고 했어요. 시멘트가 좋은 것을 써야 하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쁜 것은 콘크리트를 감추기 위해 보드를 붙이고, 본드를 쓰고 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어요. 그러니 소신껏 써도 되실 것 같습니다.

● 박 : 콘크리트가 유해하지 않다 란 말씀이시군요, 위안이 되네요.

● 유 : 그 독성이 있다 해도 매우 적다란 뜻일 겁니다.

● 수 : 그럴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를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좀 새삼스럽죠. 그리고 혹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 박 : 건축공간으로 사용자의 순수 감정을 끌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실험한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감정생성 과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고착된 감정을 공간이란 과정을 통해 치유·한들끼·육체보다 생각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편안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이겠지만 목은재에서는 지나온 과적을 사용자의 생각에서 지우는 것을 확인했어요. 건축으로 삶의 이야기뿐 아니라 연예편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해요. 아직 피상적이긴 하지만.

● 유 : 미술관이나 종교 건축같은 것을 하시면 더욱 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 박 : 저는 주택이 매우 즐길 수 있는 건축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가능하거든요. 짐목의 건축이 아니라 수다쟁이 건축이랄까? 제 생각입니다.

● 수 : 지금까지 박 건축사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참 개인적인 분이어서 느낌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너무 객관화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나 본질이 놓쳐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 건축사님은 뚜렷이 무얼 하시려고 하는 것이 보여 참 좋습니다.

● 박 : 말씀은 고마운데, 참 피곤해요.

● 수 : 너무 객관화 하려다 보면 확실히 얻는 것이 있겠지만, 잃는 것도 참 많을 것 같아요.

● 박 : 건축계의 선배들을 보면 고집 있으셨던 분들이 기쳐 갔던 그길을 나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선배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삶들을 살았고, 하지만 전 지금의 재모습을 바꾸고 싶지는 않고, 그런거죠.

● 수 : 말씀 듣다보니 박 건축사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최근 대형 설계사무소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 박 :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제가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 생각되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오히려 학생들이 걱정입니다. 제가 주제넘게 걱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건축인으로 뿌리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역량을 믿어야겠지만, 유 교수님이 책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유 : 저야 애들이 건축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을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오늘 좋았다, 내일 싫었다 뭐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들이 작업으로서 건축설계에 잘 정착하도록 준비되어야겠죠.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계속 뚝심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박 :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고집을 자꾸 내려 놓잖아요. 결국 내 마음이 편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건데 힘에 부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회의도 있어요.

● 유 : 어떤 분들은 건축 안하고 가구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 박 : 사실 그 분도 그 분 관점에선 편향 쪽으로 움직이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도 저의 편한 생각의 결과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각자가 스스로 인정해야겠죠.

● 유 : 다른 삶이 뭐 있나요? 가장 보람 있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수 : 경제적인 것은 좀 제도권에서 보장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기본적이 유지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데 감사했습니다.

● 유 :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건물 부탁합니다. ■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강철우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1947년 6월 서울 생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70년)



수학과 미술의 접점인 건축과를 택하다

원래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럼 그리는 것에 소질이 있어 고등학교 시절 미술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미술대학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림 그린다고 하면 굽어 죽는 것으로 표현 할 정도여서 엄두도 못 냈습니다. 고교 시절 국어, 수학을 좀 했고 영어는 못했습니다.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수학은 100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러면 궁금해진다는 말에 놀라서 수학과 그림 잘 그리는 것이 매 치되는 과가 무엇일까 생각하니 건축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제 주변에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나 주변에는 건축하는 사람은 없고 전자공학, 전기 공학출신 같이 공학을 전공한 분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건축과를 가겠다고 하니 부친께서 '건축은 전자공학같이 새로운 학문이 아니고 오래된 역사 있는 학문이다'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건축을 전공할 것 같습니다. 상과대학이나 이런 분야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장교제대 후 종합건축에 첫발을 디디다

1970년에 대학 졸업 후 군대를 갔는데 ROTC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철책선 소대장까지 했고 당시 저에게는 황금기였습니다. 무려 부하 병사들이 4명이나 되었으니까요.

72년 6월에 제대한 후 취직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다음날 모교 김정수 선생님을 찾아 갔습니다. 다짜고짜 종합건축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했더니 웃기만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7월4일에 종합건축 이승우 선생을 찾아가서 꾸벅 절하고 김정수 선생님이 보내서 왔다고 했지요. 이승우 선생도 저를 쑥 한번 훑어보시더니 '내일부터 출근해' 하셨습니다. 두 달 되던 날 봉급이 처음 나왔는데, 딱 일만원이었습니다. 당시 달러당 환율이 사백 대 일일 때이니 25\$인 셈입니다.

군 제대 당시에 사만 오천 원 받았는데, 건축사사무소 급료 적은 것은 각오는 하고 있었고 불만은 없었습니다.

오분만 늦게 출근해도 다 쳐다보는 종합건축에서 6년 6개월을 다니다 그리고 당시 종합건축의 분위기가 제게는 잘 맞았습니다. 김수근 선생의 공간처럼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그저 연필로 도면 그리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 정도라 오분만 늦게 출근해도 모두 쳐다보고 하니 살금살금 자리에 가서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 당시 종합건축은 서울 시내에서 최고의 사무소로 인정받고 있었고 직원은 12명이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큰 사무실이었습니다. 종합건축은 78년 12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정확하게 6년 6개월 다녔는데, 종합건

축에서 이승우 선생에게 배운 것은 봉급이 밀린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봉급이 밀려본 적이 없는 사무소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하나 이승우 선생이 서울이 고향인데, 서울사람의 특징으로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격은 호랑이 같지만 심지어 땅까지 팔아서 직원봉급을 준 것으로 지킬 것은 꼭 지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봉급을 하루도 제 때에 못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운영하면서 크게 배운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점이 바로 직원이 회사에 느끼는 자부심일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분들로는 윤석우 치프, 남일(전건교부국장), 전봉수, 류준수, 김동현(김병률), 표상권, 배영찬, 김태인 선생들입니다. 일하는 도중에 섯다 판도 벌리고 하는 낭만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종합에서 치러냈던 일들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창문도면, 청와대 수영장·영빈관, 서울서부역사, 미주백화점 등이었습니다.

김종성 교수의 귀국소식을 듣고 동우건축으로 옮기다

그러던 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미국에서 유명한 건축가가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김종성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지요. 종합건축에 신물도 났고 옮기고 싶고, 나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고 생각 할 때였습니다. 사실은 외국 가서 경험 쌓고 싶은데 영어실력도 짧고, 실력도 없고 해서 그런 꿈을 접고 김 교수가 계신 대우그룹 산하의 동우건축에 가려고 한 거지요.

아침 8시 출근해서 일하면, 오후에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짐증이 되었다

후배가 먼저 입사하고 저도 응모하라고 해서 동우건축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우건축 가기 전에 한양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백지수표 주듯이 급료 많이 줄테니까 오라고 했지만 생각이 딴 데에 있어서 동우로 79년 1월에 간 겁니다. 동우건축에 갔더니 출근시간이 오전 8시예요. 늘 9시30분에 출근하던 사람이 오전 일찍 출근하니 오후에 일하면 오후에는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무실도 그래서 오전 8시 출근을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속담에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스타일이 아침 형 인간인 것 같고 저녁 형 인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전 8시 출근해서 12시까지 4시간 일하면 일을 많이 합니다. 종합건축 다닐 때 보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저녁때도 일하고 싶어 일했습니다.



미국식의 새로운 디테일에 눈뜨게 되다

동우건축에 만 2년 가 있었는데 참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디테일을 많이 배웠습니다. 벽돌디테일, 정교한 철골디테일, 창호·새시·부초·부분 디테일, 건식벽의 디테일 등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라 눈이 휘둥그레질 징도였습니다.

김종성 교수께서 종이를 깔아놓고 스케치하는데 실제로 그만션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게 질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미국Ⅲ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교수 손에 흉터가 많이 있어 물으니, 주니이 시절 모형 만들 때 실수로 퀼로 베인 자국들 이라고 해서 무척 감복했습니다.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프로가 되려면 최소한 일년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축설계도 일만 시간을 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이 별거 있나요, 프로가 아닌데 프로인 척하면 사기꾼이지….

아마추어는 오백 시간만 투자해도 됩니다. 취미로 할 때도 최소한 오백 시간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백 시간 투자하고 프로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동우건축에 2년간 있어보니 건방지게도 내 건축 인생의 삼분지 이를 배운 느낌이었습니다. 종합건축에서 건축의 기초를 배웠다면 농우건축에서는 어떻게 실무를 허야 하는지 건축의 진수를 배운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선진국에서 긴축을 배운 분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건축설계라고 하면 그저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걸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했지 실제로 느끼고 감각적으로 부딪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도 하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연하게 건축가도 예술가라는 비탕으로 그런 것만 배웠지 실제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지금은 많은 경험과 건축자재 등이 실제로 연결되어 해결이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상상력과 현실이 연결 될 만한 마커니즘이 없었습니다.

동우건축에서 2년간의 경험을 끝으로 나의 사무실을 차리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2년이 지나니, 보헤미안 기질이 있는지 더 이상 있을 생각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축사 시험에도 합격(79년)0 되고 하는 것을 계기로 사무소를 차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춘천에 한림대학교가 생길 무렵입니다. 대우그룹 일을 할 당시 제가 담당자로 만났던 분이 한림대학 설립을 추진하셔서 저더러 춘천에 가서 같이 보고 마스터플랜을 세워둘라고 했습니다. 제가 34살일 때인데, 김종성 교수에게 제가 맡아서 하면 안 될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당시의 동우건축은 내우그룹 일 만으로도 벅찰 때라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동우건축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되다

도 동우건축이라는 이름을 당시에는 대기업에서 법적으로 못 쓸 형편이라 서울건축으로 바꾸면서 그 이름이 붕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 11월 29일 사무소를 차리면서 동우건축이라는 이름을 제가 대신 쓰게 된 거지요. 외부사람들은 헷갈렸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사무실 위치는 청와다 바로 옆 동네에 얹게 되었는데, 그 곳은 우경국 선생이 나중에 그 자리를 사서 헬고 예운현이라는 명작을 다시 지은 곳입니다. 처음에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소장, 경리 그리고 직원 3명이었습니다.

첫 일가리가 한림대학 마스터플랜이었습니다. 동우건축에서 김 교수에게 배운 스타일 그대로 작업했습니다. 첫 일부터 순탄하게 풀린 거지요.

저의 건축인생에 세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은사이신 김정수 선생, 종합건축의 이승우 선생, 그리고 동우건축의 김종성 선생입니다.

현재 세 분 중 두 분은 작고하시고 김종성 교수님만 남아계십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은사로는 한림대학 설립자 윤덕선 박사를 꼽을 수 있겠지요. 서른세 살 먹은 저에게 그렇게 큰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새삼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건축에 재직 시 내가 한 일은 옥포조선 배후단지 일로 무려 50여 개의 건물 총괄책임자였다

서울건축(옛 동우건축)에 있을 때 대우가 옥포조선 인수 당시라 배후단지를 맡아서 했습니다. 아파트, 학교, 사무실, 병원 등 건물만 50개 이상 되었는데, 제가 총괄을 맡아 했습니다. 다음에 범양상선 사옥을 맡아서 했고요. 이 년 만에 세 밀에 있는 직원이 50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건축 전 직원이 이백 명일 때입니다. 그 당시 있던 직원이 현재 동우건축에도 있습니다.

그때 독립한 후 청수대학교 중앙도서관 경기설계가 있었는데 제가 김종성 교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서울건축으로 하고 동우에서 해도 되겠냐고 말이지요. 수락하셔서 5명의 직원을 데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8천 평이고, 운 좋게 당선되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김 교수께서 해주셨습니다. 서울건축으로도 외부경기 설계 참여 후 당선은 처음이었습니다.

캠퍼스 플래닝을 많이 하게 되다

청수대학교 중앙도서관 설계 이후로 캠퍼스플래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림대, 호서대, 숙명여대, 고려대, 건국대, 광운대, 중의대, 서울대 연구소 몇 개, 서울법대, 연대 동문회관, 성경대학 의과대학 병원, 세브란스 양센터 등의 일들을 했습니다.

아틀리에 사무소 운영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려면 아주 작게 하고, 프로덕션은 큰 회사에 넘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디자인만 전념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삶질이 생길 것입니다.
공동합작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정말 디자인에 자신이 있다면 본인이 주도하라고 말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안 하거나 못한다면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되풀고 싶고
그렇다면 건축계를 떠나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구든지 자기 회사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연세대학교 플래닝도 프로포osal 내서 된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제가 연세대 출신이라고 빽 써서 됐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일을 만들어 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축사사무소 봉급으로 결혼이 힘들어 31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다
제가 젊었을 때에 건축사사무소 봉급 가지고는 결혼하기 힘들어 31살
되도록 결혼 못 했습니다. 부친이 서울공대 동창회 회장 하실 때 혼기 도
달한 동기 사녀들 이름을 적어내라고 하는 데 마침 윤장섭 교수님께서 적
어 내셔서 그 분 딸을 알게 되어 맞선보고 결혼했습니다.

윤장섭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건축과를 20년 전에 은퇴하시고 우리 동
우건축에 고문으로 있으시면서 건축계의 외풍을 말없이 막아 주셨다고 생
각합니다. 흔히 교수 사회에서는 건축사들을 좀 무시내지는 질시하는 경
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친은 너무 엄격하시고 해서 오히려 장인이신 윤 교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건축은 지어진지 10년 후에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연세대 내에 일백년 전에 러시아 풍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는데. 뒷산에
있는 형편 없는 돌들을 그대로 사용한 건물입니다. 냄새나고 허름한 건물
인데 오히려 연세대 학생들은 거기서 수업 받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
니다. 바로 전통과 시간이 배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물을 짓고
나서 10년 뒤에 승부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로 최선을
다해 짓는 것에 많은 건축가들이 의미를 두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서 물
론 그렇다고 하치만 조금 다른 견해도 갖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최선을
다한 건물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그 영향력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
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치운 것이 호서대학교 건물들인데 온통 싸구려 둘
루 지었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줘도 안 가져가는 싸구려인지 알지 못합
니다. 공사비도 다른 학교 공사비의 절반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시간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보수적인 건축이 된다는 일
과 노조금 통하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칭찬받던 건축물들을 지금 다
시 평가해보자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건물은 쓰레기통 같이 변한 건물
도 있습니다.

대조적이 아니면 경기설계 참여도 못하는 현실에 조직을 키우기로 하다

대형조직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는 90년 초에 왔습니다. 직원
40명일 때인데 그냥 이대로 스튜디오 형태로 가느냐 마느냐 할 때입니다.
그때 결심한 것이 '일단 건축가라는 생각을 덮어버리자. 장사꾼이라는 말

을 들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것이 군대 일 들
입니다. 군대 일들은 건축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3~40명 가지고 큰 경기설계에 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구멍가게 식으로는 조직도 문제고 빚도 높어나고, 그래서 조직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현상설계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일로 큰돈을 벌다

그럴 당시에 큼직한 군대 일을 해서 90년부터 5년 사이에 회사를 많이
키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일이 40~50억 정도의 설계비였으니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건축을 무시한 것이 지금 후회됩니다. 당시에는 아파트설
계가 건축가가 할 일 아니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지금 돌아
켜 보면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 이후 한 일들이 아시아나 항공 격납고, 캐
이터링 건물, 홍익대학교 정문관, 세운상가재건축(2005년 당선) 등입니다.

여섯 번의 고속철역사경기에서 모두 이등을 하는 빼아픈 경험이 있다
일들 중에 빼아픈 것은 고속철역사 설계경기에 6번이나 참여했는데 모
두 다 떨어 진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 중에 광명역사는 저희 계획안
이 월등하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져서 이제는 건축설계만 해서는 안 되겠
다고 생각했습니다.

토털서비스 개념의 집단을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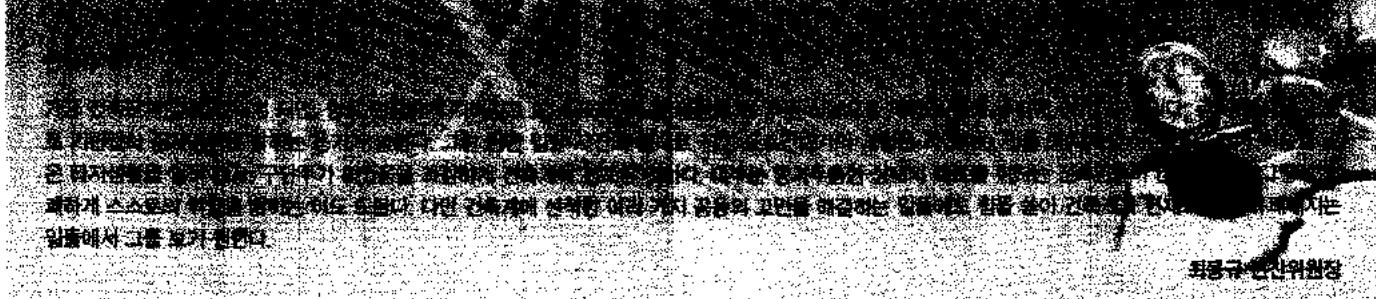
그래서 시공회사, 인테리어회사, 감리회사, 기계설비, 전기설비, 건물관
리 등의 협력사들을 모두 연계해서 운영하면 건축주 만나 설계부터 시공
등등 일사불란하게 될 것 아닌가 생각한 거죠. 일 하나로 일곱 개의 연관
된 일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소위 토클 서비스 개념이지요.

이럴 경우 연관된 회사끼리의 전폭적인 협력이 최우선인데, 전체의 이
익을 보기 전에 각자의 이익이 앞장서는 바람에 잘 안되더군요.

결국 이런 결정 후에 건설회사를 시작했는데 한동안 잘되었지만 1998
년 이후 건설회사 일거리가 별로 없어 한개의 건설회사만 남겨두고 일부
는 정리했습니다.

1996년경에 심장에 이상이 있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바람에 토클
서비스 사업의 추진이 주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않았어도 잘 되었을 텐
데... 현재 전체직원은 이백 명 정도인데 직속회사가 160명이고 라운드 테
이블 연계회사가 30~40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들은 아파트, 박물관,
오피스, 골프장, 리조트시설, 호텔, 병원 등입니다. 닥치는 대로 합니다. 뭐,
가릴 틈이 있나요.

각 팀은 본부장 체제로 14본부로 되어 있고 한 본부에 20명 이상에서부
터 2~3명의 구성으로 된 작은 본부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서울건축에서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었던 프랑스 유학 디녀온 이용익 사장인데 1994년부터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재를 키우고 있다

미래의 인재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버드대학교 CSD에 가 있는 식원이 하나 있고 과거에는 MII에 1년간 직원을 몇 번 보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의 내세울 점은 별로 없고 다만 조금 도덕적이라는 거지요. 일을 수주하기 위하여 비난받을 로비는 제가 천성적으로 못합니다. 명절 때 상식적인 인사치레는 합니다. 그러나 소위 돈 부리지 들고 나니는 짓은 못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디자인이 아직도 두착 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사사무소 보다 놓하다는 뜻이 아니고 저의 눈높이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디자인이 살해지자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이지요.

저희의 영업력은 솔직하게 말해서 대단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빛내서라도 벅고 살아왔지만 외국의 일류 시무소에 비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소의 차세대 후계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영입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았는데, 자체 내부에서 유능한 후계자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익 사장이 질하고 있고 본부장들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삼세대 바통 터치 할 인재는 별 걱정 안 됩니다. 한 사람은 미국에서 예일 대학 나오고 건축사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력이 있던 친구들이 미국에 가서도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뛰어납니다.

큰 딸이 나이가 서른셋인데, 샌프란시스코 KMD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카는 하버드에 있는데 이삼년 있다가 동우건축에 다시 합류할 것입니 다. MIT, 예일 등의 좋은 학교들이 많지만 한국에서는 하버드 대학을 더 청주는 경향이 있더군요.

일생 살아오는 동안의 신조는 '긍정적으로 살자' 입니다

그 동안 살아오면서 저의 태도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자 입니다.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집안에서 우리 어르신 영향권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형제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죽는 날까지 설계를 하겠다

앞으로 희망은, 제가 아직도 30년은 더 일할 것 같습니다. 부친께서 곧 백수(白壽)를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DNA가 있어서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우선 등우건축을 질적 양적으로 'BIG5'까지 올려놓고 싶습니다. 표면상 은퇴는 70세까지로 정해 놓고 죽는 날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저의 자산을 쓸데없이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태인들의 교육에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것이 아주 예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에만 전념하면 아틀리에는 산다

아틀리에 사무소 운영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려면 아주 작게 하고, 프로덕션은 큰 회사에 넘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디자인만 전념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살길이 생길 것입니다. 공동협업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정말 디자인에 자신이 있다면 본인이 주도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거나 못한다면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되물고 싶고
렇다면 건축계를 떠나던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구는지 자기 회사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설계하면서 눈 별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 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벌립니다. 제가 한참 일할 때, 돈 생각 없이 일할 때는 잘 벌리더니 막상 돈 별 생각하니 절 안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돈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도 건강도 생명도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건축에 대한 이해도 올라가니 스스로 자책은 하지마자

문제점은 우선 국민소득이 올라가야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 건축에 대한 이해가 증폭될 텐데 국민들이 가난해서 건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건축인들이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고 자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건축에 대한 업역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조경, 도시 등등 업역이 잠식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싸다고 하는데 경제 원리 자본주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싼 거 탓할 필요 없습니다. 싼 설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마음에 살 및시 않습니다. 그런 고남술들은 이론하는 분들만 말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건축가들이 기학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린 것으로 소말하지 말자는 거지요. 나쁜 것은 나쁜 거고 예쁜 것은 예쁘고 시각적으로 결론이 나는 거이데 그 이상 어령거 말하시 말사는 거지요.

일만 시간의 품을 따라 진정한 프로가 되라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일만 시간의 틀을 지켜 진정 전문가가 되라는 것 하구요. 하루 8시간씩 거의 10년이 채워져야 일만 시간이 되는 겁나나. 사는 일만 시간은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영남대학교의료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Yeungnam University Respiratory
Disease Medical Center

당선작 / 김태집 (주)간삼건축 중합건축사사무소
+ 윤종식 (주)건축사사무소 도시아십일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317-1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시지역
주요용도	의료시설
대지면적	약 7,156.00m ²
건축면적	6,793.27m ²
연 면 적	29,823.41m ²
건 폐율	25.78%
용 력률	89.15%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
규 모	지하 2층, 지상 5층
발 주처	영남대학교
설계담당	간삼_진교남, 김천행, 이주령, 김준엽, 이경민, 박경태 도시21_손세윤, 한병윤

'영남대학교 의료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설계공모에서 간삼건축이 최종 당선 되었다.

영남대 의료원은 200병상 규모의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전분센터 중심의 선진형 병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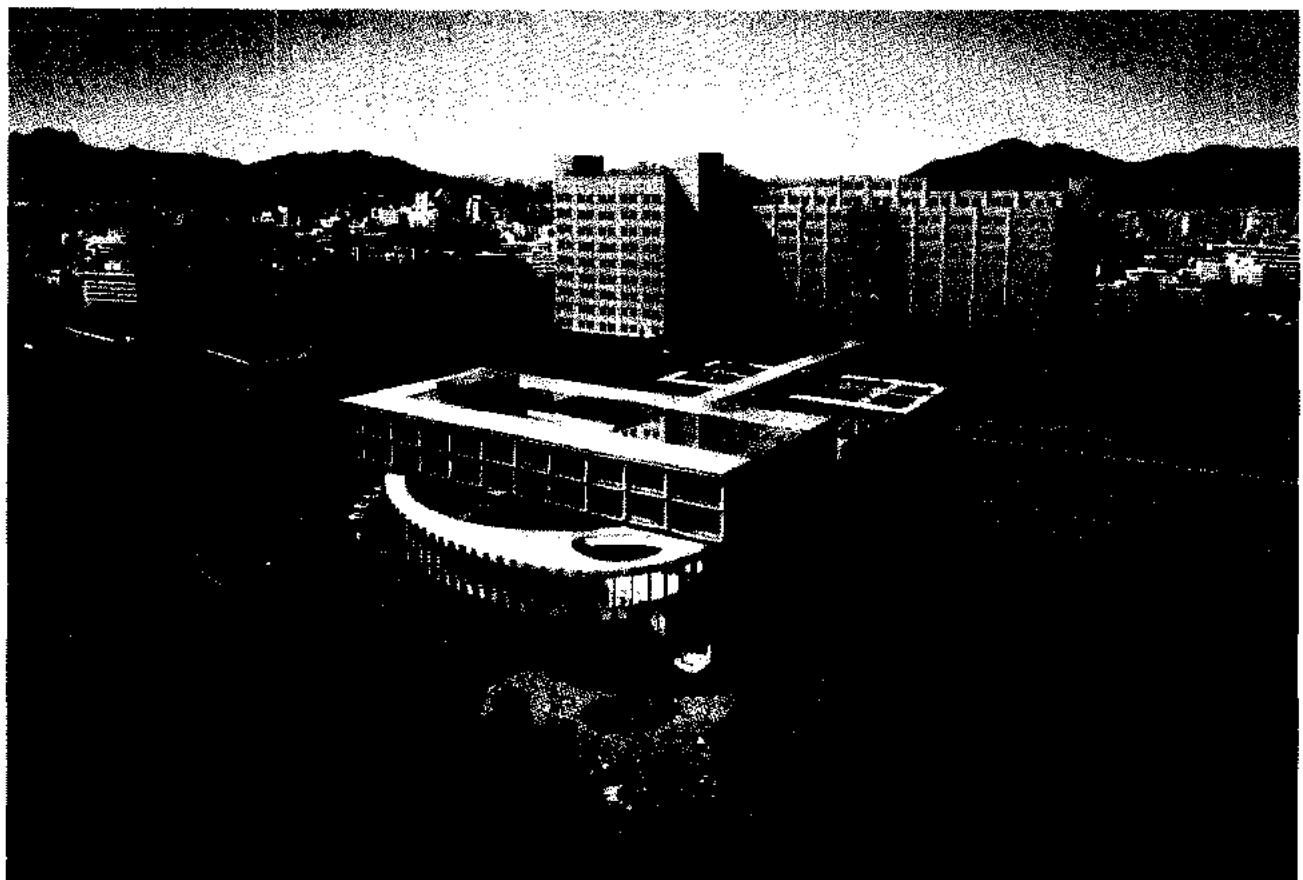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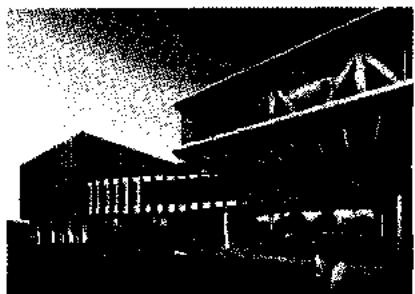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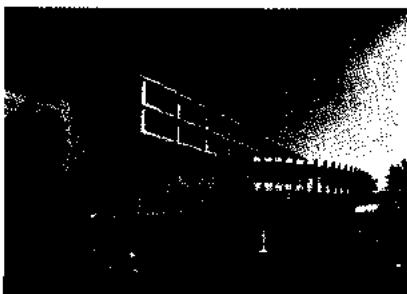
치유, 순환, 소통의 중심으로 건립될 호흡기전문질환센터는 캠퍼스 내 의료원의 앞마당이 되어 고객들이 편안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자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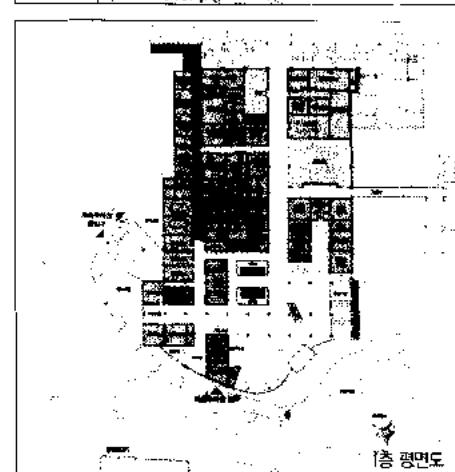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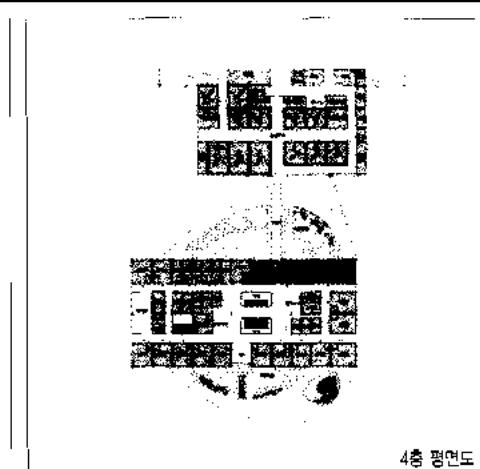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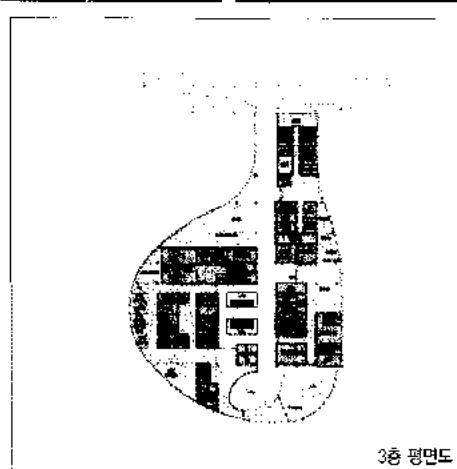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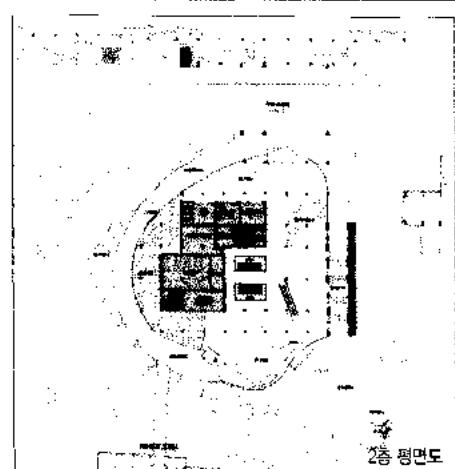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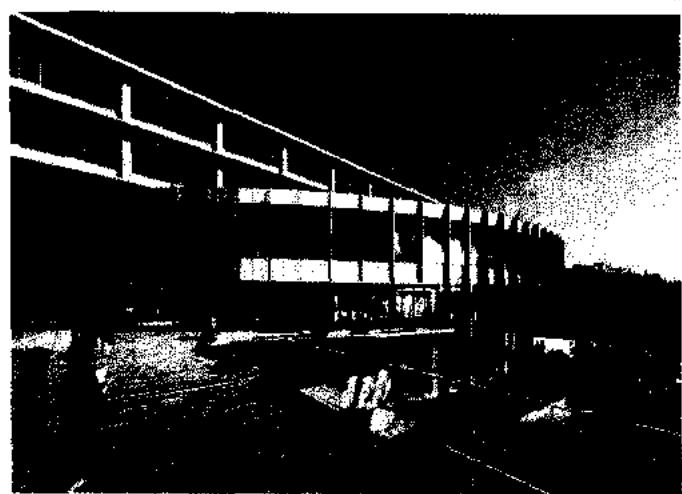
대지의 형성과 원활한 동선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외래부는 풍부한 녹지와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최적의 치유

환경으로 계획했다.

기존 본관과 연계되는 Hospital Street의 형성 및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실내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하였다.

기존 Drop off Zone과는 별도의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만의 Drop off Zone을 계획하고, 기존 건물(본관, 의과대학, 영의관)과 연결되는 데크 / 브릿지를 계획하여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영남대학교 의료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는 환자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편안한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전문의료센터로 지역의 의료산업을 이끌어 갈 정신호가 될 것이다. ■





영남대학교의료원 호흡기 전문 질환센터

Yeungnam University Respiratory
Disease Medical Center

우수작 / 이필준 정회원 • 임진우 정회원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삼원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건축사사무소 이도건축

대지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5동 317-1번지 외
지역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의료시설
대지면적	약 7,156m ²
건축면적	6,077,6m ²
연면적	30,918.5m ²
건폐율	2.93%
용적률	14.89%
구조	R.C, S.R.C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설계담당	박원배, 이호, 유희진, 황재연, 고영칠, 최우석, 김준영, 김선신

SOOM

'숨' / [SU;M] / n. S.O.O.M. = SO₂M _ 영남대학교의료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는 의료원본관 정면 주차장부지에 위치하여 의료원에 새로운 정면성을 부여한다. 또한 주변시설 및 기존 의료원과의 연계됨과 동시에 호흡기센터로서의 독립성이 요구되며, 특히 '호흡기'라는 질환의 특성상 감염관리를 중점으로 한 기능 충족을 위한 계획과 '숨'이라는 개념도입으로 시원, 상쾌하게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Healing Square _ 남향으로 열린 병동은 친환경 호흡기센터의 새로운 얼굴이 된다. 자연을 담고 사람을 맞이하는 넓고 푸르른 진입광장과 함께 그린 파사드를 상징하는 최첨단 의료센터가 될 것이다.

Healing O₂ _ 자연을 담고 외부를 향해 열려 있는 두개의 큰 중정(지상 2층)은 환자들을 위한 따뜻한 치유의 공간과 풍요로운 정서적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이다.

Healing Mall _ Hospital Street을 넘어서는 입체적인 Healing Mall을 제안한다. 햇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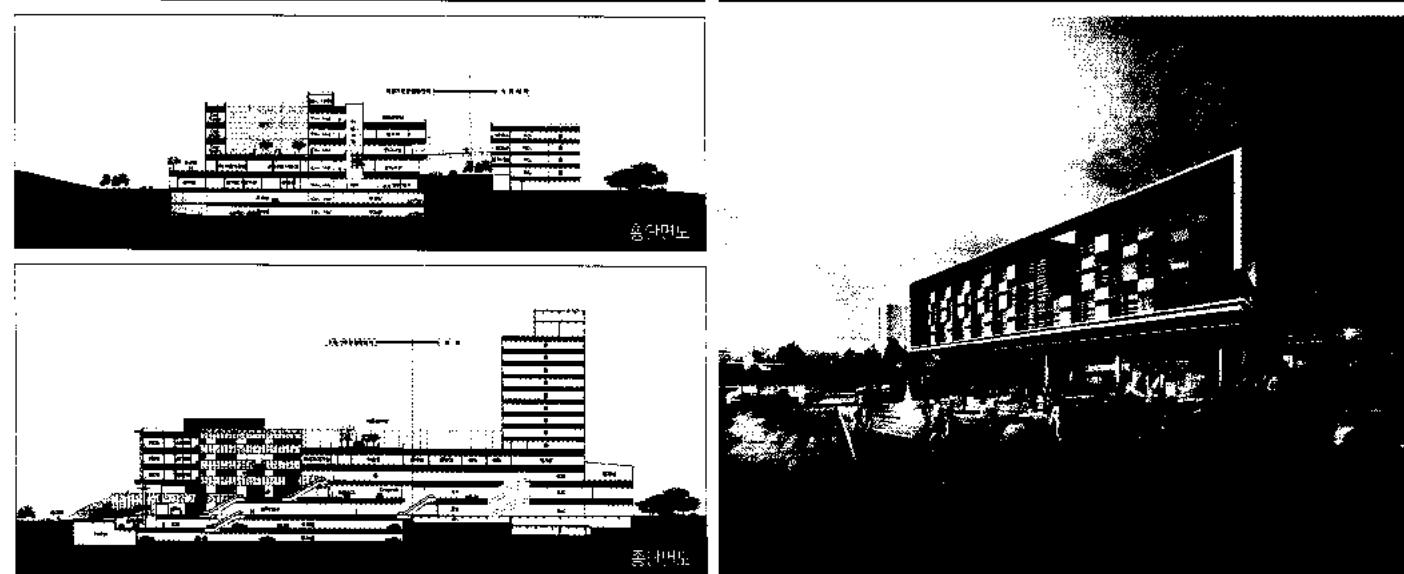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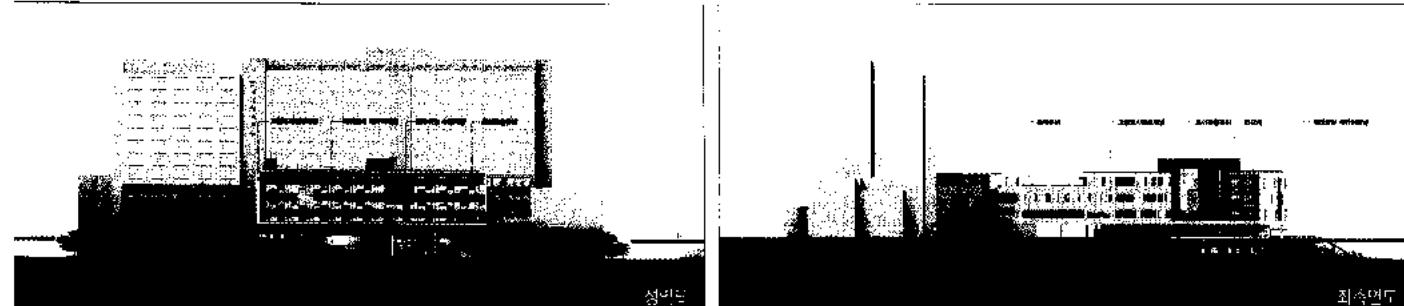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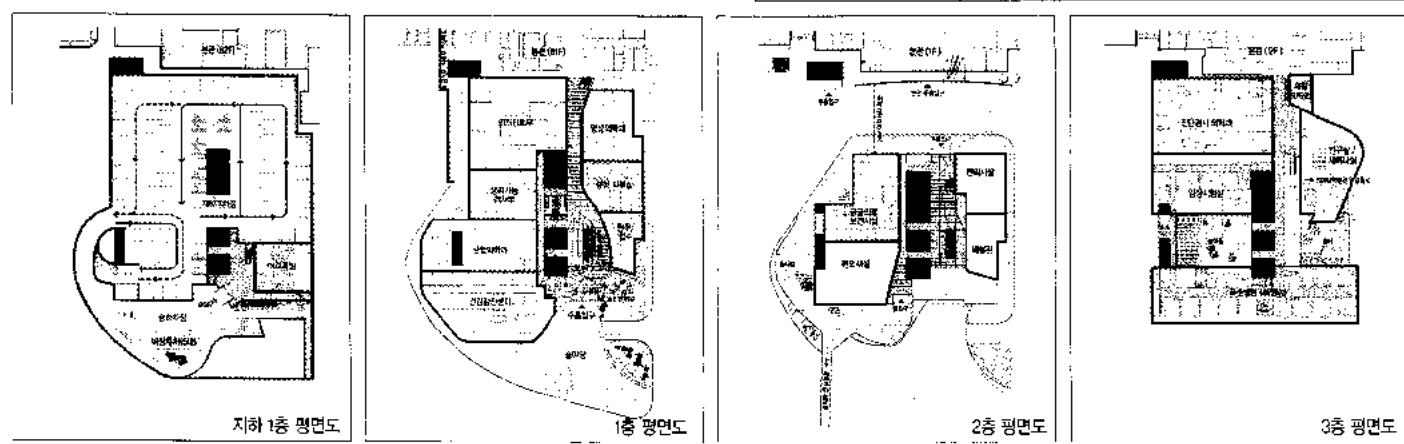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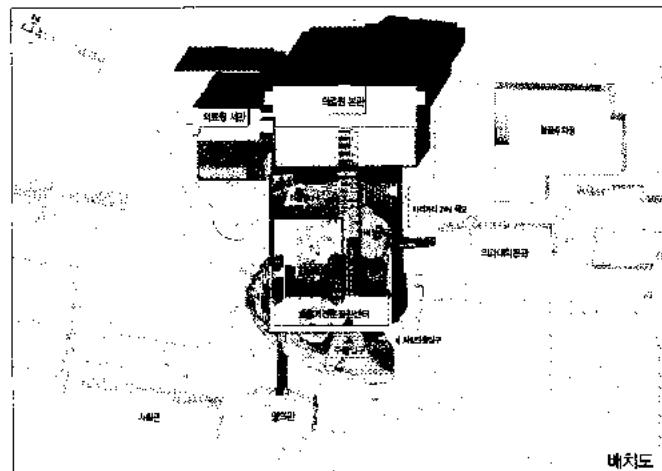
바람이 함께하는 Healing Mall을 따라가다 보면, 본관과 편리한 연계, 즐거운 만남, 편리한 서비스시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평면계획 _ 프로그램은 본원시설의 확장(수술부), 본원에서 이전(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기타 이전시설(건강검진센터), 그리고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병동, 외래, 생리기능, 영상의학과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호흡기센터시설을 독립시켜 호흡기전문센터로써 철저한 감염관리 시스템을 공간적으로 계획하였다. 그 외 각 시설은 기능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배치하고, 건강검진센터, 편의시설, 체험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은 의료원 모든 내원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저층부에 배치하였다. 3개층의 표준병동(각46병상)은 환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인실 100%를 모두 남향배치함으로서 실내 환경의 질을 향상시켰다. 특히 감염병동은 1차, 2차 격리영역으로 분리한 Interlock system을, 수술부에는 청결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전문질환센터로써의 기능적 특성에 맞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친환경계획 _ 남향의 각 병실에는 자연환기형 둘출장호시스템(Unit-Type Double Skin System)을 채용하여 계절에 따른 충분한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에너지를 부하를 낮추었으며, 남측에는 수평차양을, 서측에는 최소한의 개구부계획 및 수직루버를 설치하여 일조에 의한 내부환경 저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Hospital Mall을 구성하는 Atrium은 대류현상을 활용한 환기시스템을 통해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진입광장에서 출발하여 중정, 각 층의 Day room, 그리고 옥장정원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녹색의 흐름은 정서적인 친환경 치유공간으로, 수평루비와 옥상의 본관연결 캐노피는 BIPV로, 중정과 진입광장의 수공간은 우수를 활용하여 신자생에너지와 적극 활용한 친환경 그린병원으로 계획하였다. ■



영남대학교의료원 호흡기 전문 질환센터

Yeungnam University Respiratory
Disease Medical Center

가 작 / 정현화 정희원(주.구간건축 건축사사무소)
+ 홍호용 정희원(주.동우이엔씨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17-1번지 외
지역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의료시설

대지면적 7,156m²

연 면 적 29,009.14m²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규 모 지하 2층, 지상 5층

설계담당 구간건축_김현아, 서혜진, 김연중, 김진희,
유주희, 유희정
동우E&C_서선덕, 김기홍, 안효석

기본계획개념

영남대학교의료원 전면 주차장 부지에 호흡기질환전문센터를 증축하는 설계로 기존병원과 신설센터의 유기적인 기능해결, 노후화된 병원을 새로운 이미자로 정면성 형성,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설계에 임하였다. 또한 경사지형의 협소한 대지여건을 고려하여 선큰정원, 중정, 옥상정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병원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배치계획

약 200병상의 호흡기질환병동을 의료원 본관과 나란한 동서방향으로 배치하고 하부의 원형대지에 중앙진료부, 외래진료부 등을 배치하였다. 대지주변은 일방향의 교통농선을 정비하여 의료원 본관과 신설호흡센터 사이를 관통하는 차량동선과 연계하여 차량Drop공간과 진입마당을 두어 의료원 출입구를 밝고 쾌적하게 계획하였으며 의료원 본관, 의대본관, 영의관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불편한 스텝 동선을 해결하였다.

평면계획

병동은 50병상씩 4개의 간호단위로 구성되며 두 개의 중정을 설치하여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중앙진료부는 기존 병원과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결하여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수술부가 구성되었으며 1, 2층에 아프리움을 계획하여 쾌적한 외래진료부가 되도록 하였다. 경사지형을 고려하여 지하 1층과 2층에서 차량접근이 가능한 Drop Zone을 두어 차량이용객의 편의성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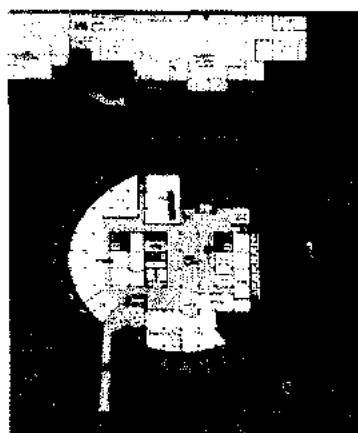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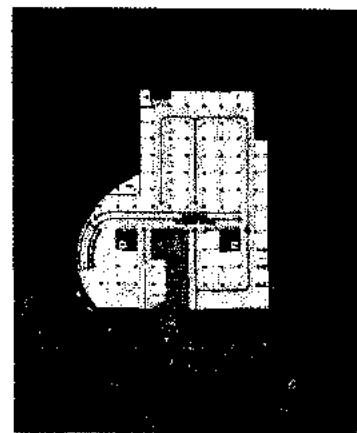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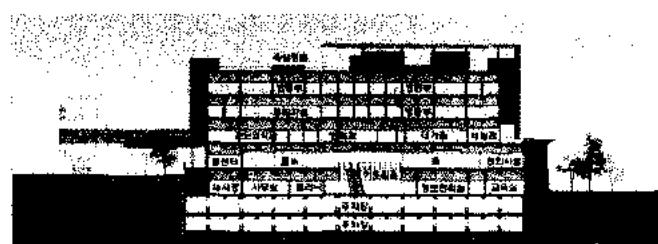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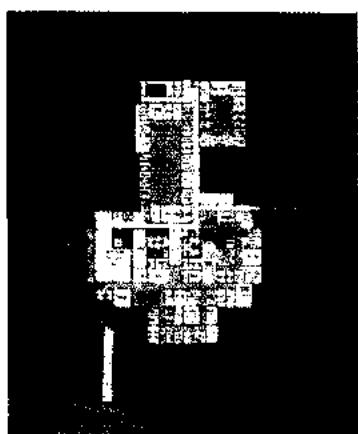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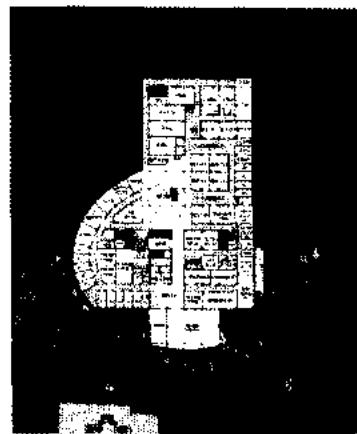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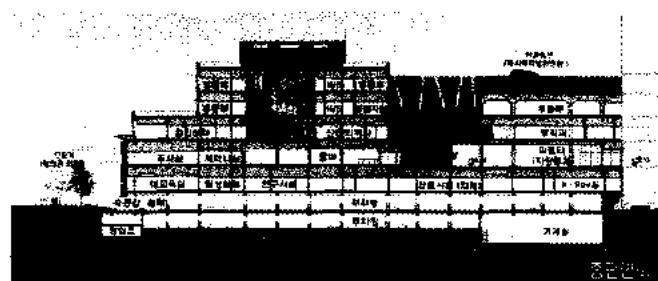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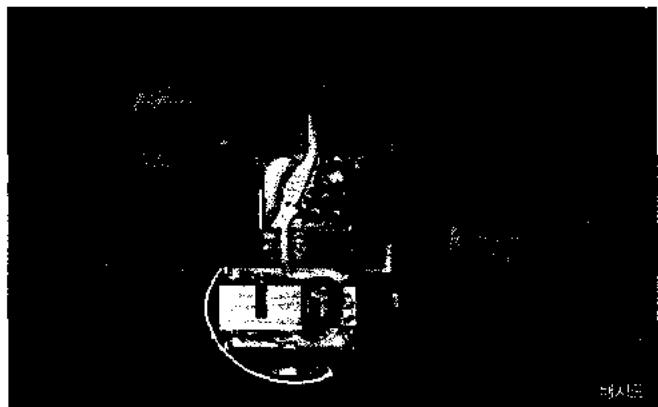
입면계획

기존 병원의 이미지를 탈피한 미래지향적인 첨단의료원이 되도록 상징성이 있는 건물외관을 디자인 하였으며,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마감재료를 채택하였다. 또한 시각적으로 열려야 하는 로비, 식당, 휴게공간 등은 커튼월을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단면계획

의료원 본관과 연계하여 층고 및 흥별 조닝계획을 수정하였고 Mass의 분절을 통한 Open Space를 계획하여 자연채광, 환기가 가능한 쾌적한 병원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단차기가 없는 바닥레벨 계획으로 장애인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 본부회관

National Pension Service Relocation Headquarters

당선작 / 한종률 정희원 · 이상화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577-1 일원
지역구역	준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31,000.00m ²
건축면적	7,557.16m ²
연면적	32,735.10m ²
건폐율	24.38%
용적률	72.81%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8층
발주처	국민연금공단
설계담당	유재홍, 노재만, 김희원, 양신록, 김옹민, 최영진

Dream package¹⁾ _ 꿈을 담는 그릇

경남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본부회관 부지는 북서쪽으로는 공공건물, 남동쪽으로는 아파트, 남서쪽으로는 공원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대지조건에서 '국민연금공단 건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설계팀이 갖게 된 첫번째 고민이었다.

또한 진주성, 남강, 유등축제 등의 진주의 전통을 혁신도시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을 상징할 수 있는 규모의 매스를 찾기 위해 수많은 스터디가 이루어졌다.

주어진 프로그램과 면적으로는 높이에 의한 상징성을 갖기 어려웠으며 높은 건물이 갖는 이미지는 자칫 권위적으로도 보여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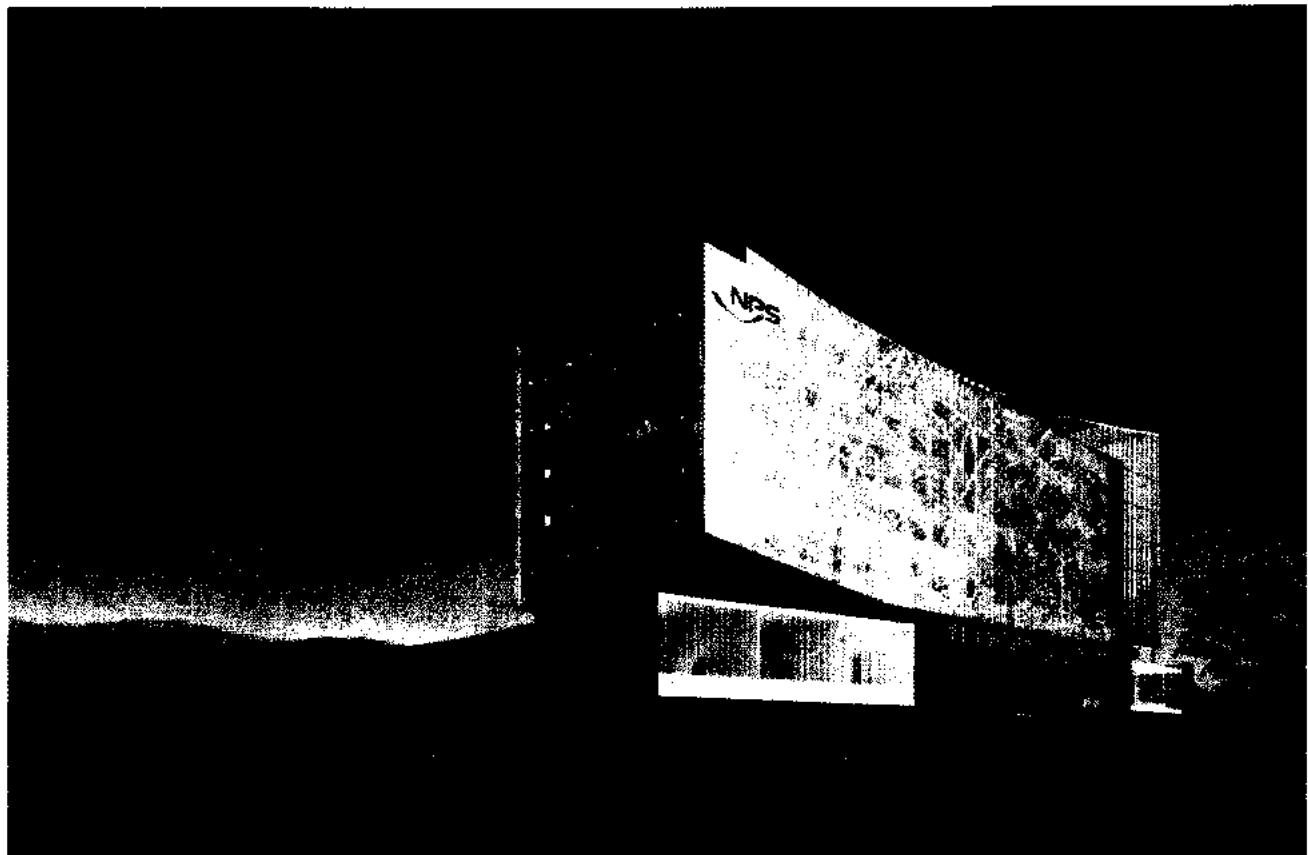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라는 국민연금공단의 슬로건처럼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낮은 건물로 계획하여 공단의 겸손함을 보여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주변의 공원을 대지안으로 적극 유입시켜 선큰가든을 계획하고 그 주변으로 서로 다른 기능의 매스들을 목구조의 결합과 같이 서로 잘 포개놓아 친근한 저층부를 구성하였다. 저층부에서 보여지는 신도시와 구도심을 향한 '포용'의 곡면은 각각 전통과 혁신, 도시와 자연을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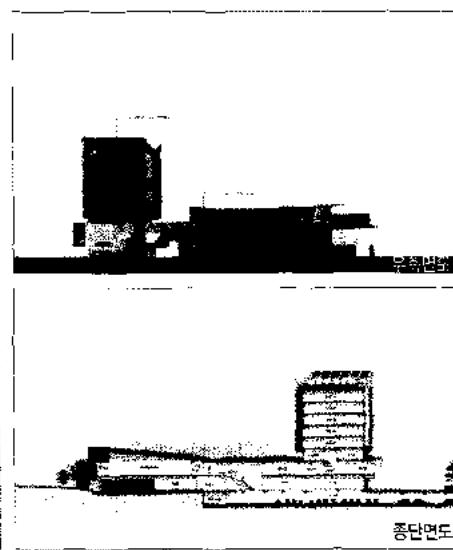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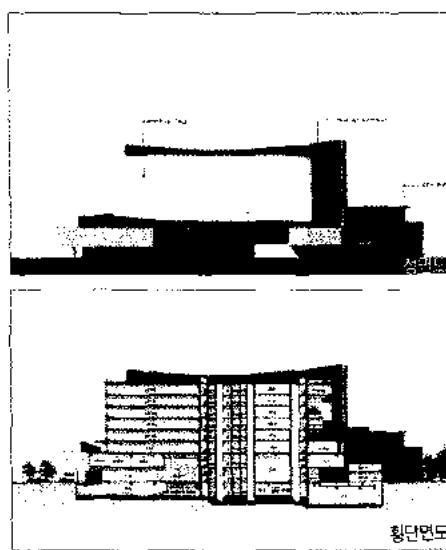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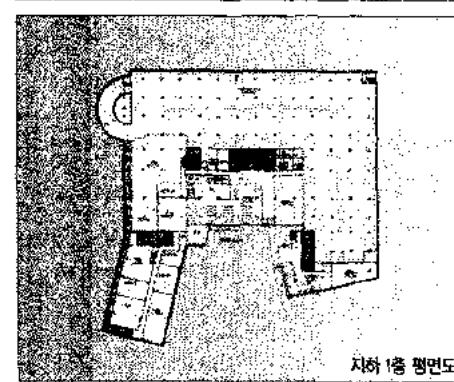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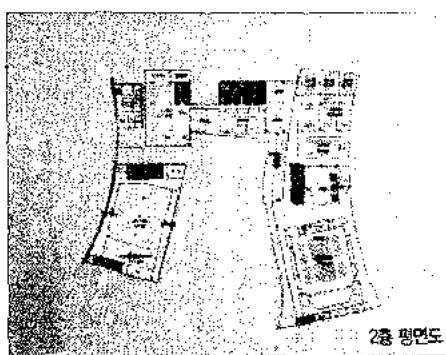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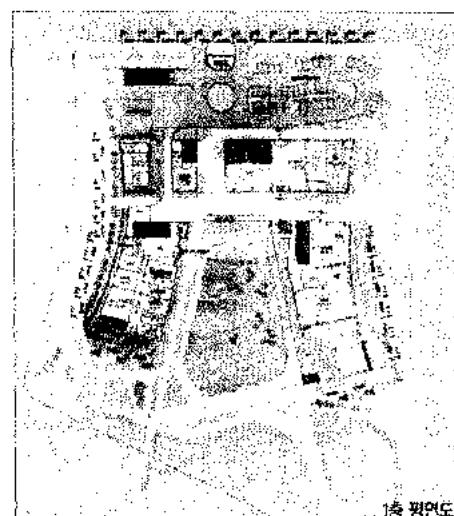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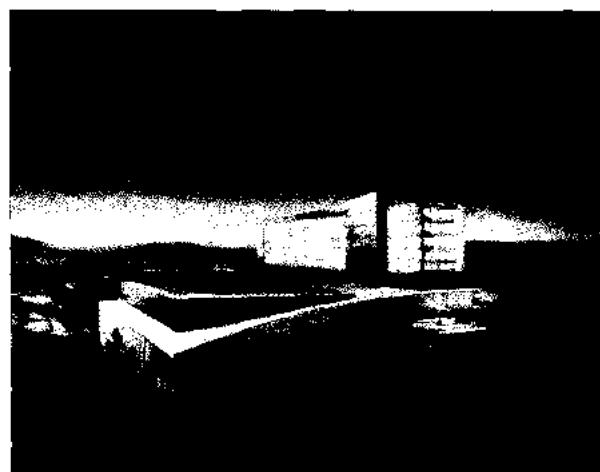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의 앰블렘을 닮은 부드러운 곡선이 강조된 상층부 매스는 공단이 지향하는 신뢰와 투명성을 상징하는 두 개의 매스가 결합되어 구성된다. 이 위에 낮에는 비단포의 부드러움이, 밤에는 한지의 은은함이 느껴지는 입면을 입혀 전통과 현대의 이미지를 모두 갖도록 계획하였다.

대지 안으로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직원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성격이 상이한 시설들을 public zone과 private zone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시민개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램프와 데크를 두어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에게 항상 열려있는 공공건물이 되도록 하였다. 지역주민, 자연, 진주의 전통을 담아낸 악민현금공단의 본부 회관 Dream package는 주변과 하나되어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건물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는 건물이 될 것이다. ■

1) Dream package는 국민의 꿈과 희망, 진주의 성실, 공단의 내일을 상징하는 'Dream'과 하나됨을 약속하는 'Package'를 조합한 것으로 도시와 자연, 전통과 현대, 모든 이의 꿈과 희망을 담아내는 '꿈'을 담은 고봉을 상징한다.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 본부회관

National Pension Service Relocation Headquarters

우수작 / 김회준 경희원 · 이상안 경희원 · 송주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대자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577-1일원

지역지구 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31,000.00m²

건축면적 6,468.63m²

면적률 32,748.96%

건폐율 20.87%

용적률 70.49%

규모 지하 1층, 지상 13층

설계담당 장선도, 김홍일, 강민석, 홍중화, 정지영,
최경철, 오지태

당신과 함께 미소 짓는 미래 With u(you)

미소를 상징하는 건물의 형태는 국민연금공단의 CI를 형상화하여 건축을 통해 공단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연금공단이

현대사회에 전하는 이미지가 건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어느 곳에서나 국민연금의 미소를 보여주는 건물을 계획하였다.

새롭게 생성하는 도시에서 공공의 사옥은 도시 중심의 모습과 시민의 생활을 비롯한 도시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 곳이 국민연금공단이라면 더할 나위없다. 따라서 시민과 소통하는 장소를 충분히 배려하여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도시 속에 자리잡은 질서가 자연과 어울리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진주 남강과 방사선축에 대응하는 늑지공간을 향해 열린 중앙공원이 풍부한 주변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외부공간은 도시의 질서를 반영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였다.

더불어 실제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효율과 편

리성을 중요시하는 합리적인 내외부 동선을 고려하였으며, 자연재광과 환기가 유리하고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쾌적한 업무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Smile with u 우리의 미소를 담다

미소를 달은 공단의 CI를 형상화함으로써 공단의 아이덴티티를 구현, 모든 방향에서 공단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주시의 상징적 랜드마크 재현하여 어디서나 미소를 짓는 형상으로 우리의 미소를 상징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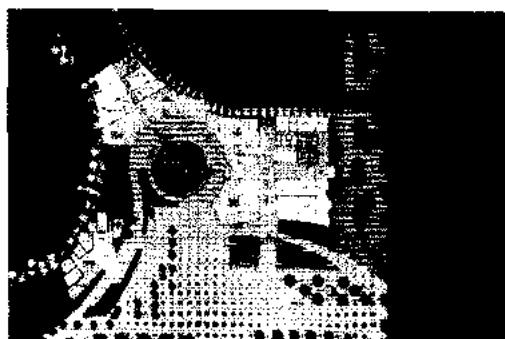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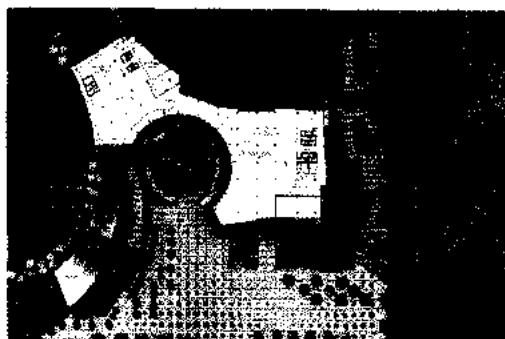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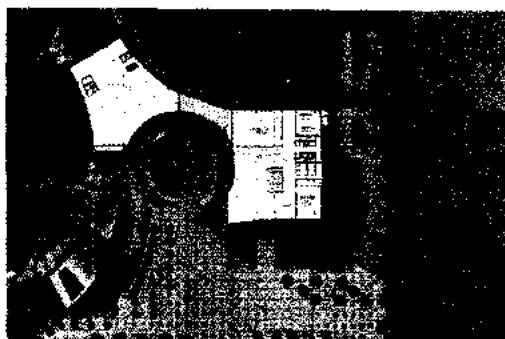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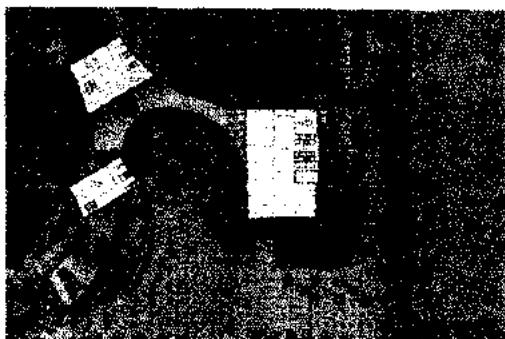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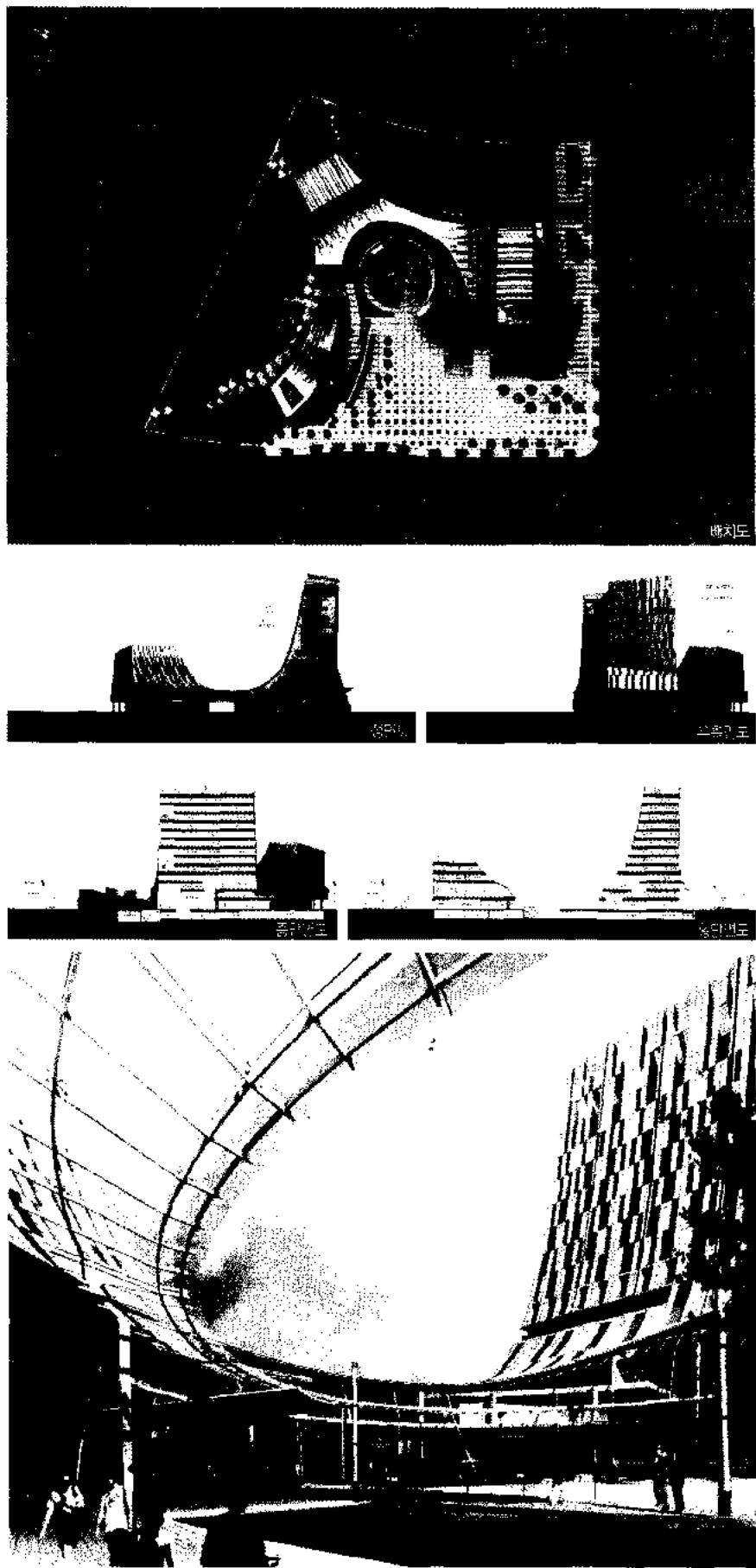
Sharing with u 나눔의 가치를 담다

자연을 품고 도시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공단이 추구하는 나눔의 정신을 표현하였다. 도시와 어울리는 나눔의 공간 계획, 방사형 도시구조를 반영해 중앙을 비우고 자연을 유입하고 도시경관에 대응하도록 계획하였다. 더불어 외부공간의 공공성 확대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교류 공간 제공을 제공하고자 한다.



Tomorrow with u 미래를 담다

첨단디자인과 친환경 설계로 미래지향적 업무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디자인으로 영천강, 남강을 향해 바람길을 열어주고 태양광 입사각에 따라 건물형태와 향을 결정하였으며, 통경축, 바람길, 남향을 고려하고 자연을 담은 친수 및 녹화 계획하였다. 형태는 기류를 유도하는 유선형으로 자연환경 극대화하였고 지열 및 태양열, 전불일체형 태양광 판넬 등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하였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화성동탄 2지구 A81BL 공동주택

Hwaseongdongtan District 2
A81BL Housing

당선작 / 이성립 정희원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일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 택지개발지구
주요용도	공동주택
대지면적	55,537m ²
건축면적	8,356m ²
연면적	113,629m ²
건폐율	15%
용적률	144.99%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규모	공동주택 868세대
발주처	LH공사
설계담당	김학정

대지위치 및 주변환경

본 사업부지는 화성동탄 2지구내,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일대로 경부고속도로에서 동쪽으로 거리 3km 지점에 위치, 신설된 동탄JCT를 통해서 광역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업부지의 서쪽 면에 근접해서 23번 국지도가 신설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인근 도시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주변의 자연환경으로는 화성동탄(2)신도시 동서녹지축의 하나인 화성산에서 산척저수지로 향하는 산세에 의해 사업부지의 3면이 감싸 안겨 있으며, 또한 사업부지에서 산척저수지로 이어지는 동서수계축의 하나인 송방천의 지류를 형성. 전체적으로 배산임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업부지 남측면에 중학교/초등학교와 등쪽 블록(A80BL)내의 유치원이 근접해 있어 교육코어 중심이며, 사업부지를 포함한 동남쪽으로 4개 공동주택 단지가 타운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계획개념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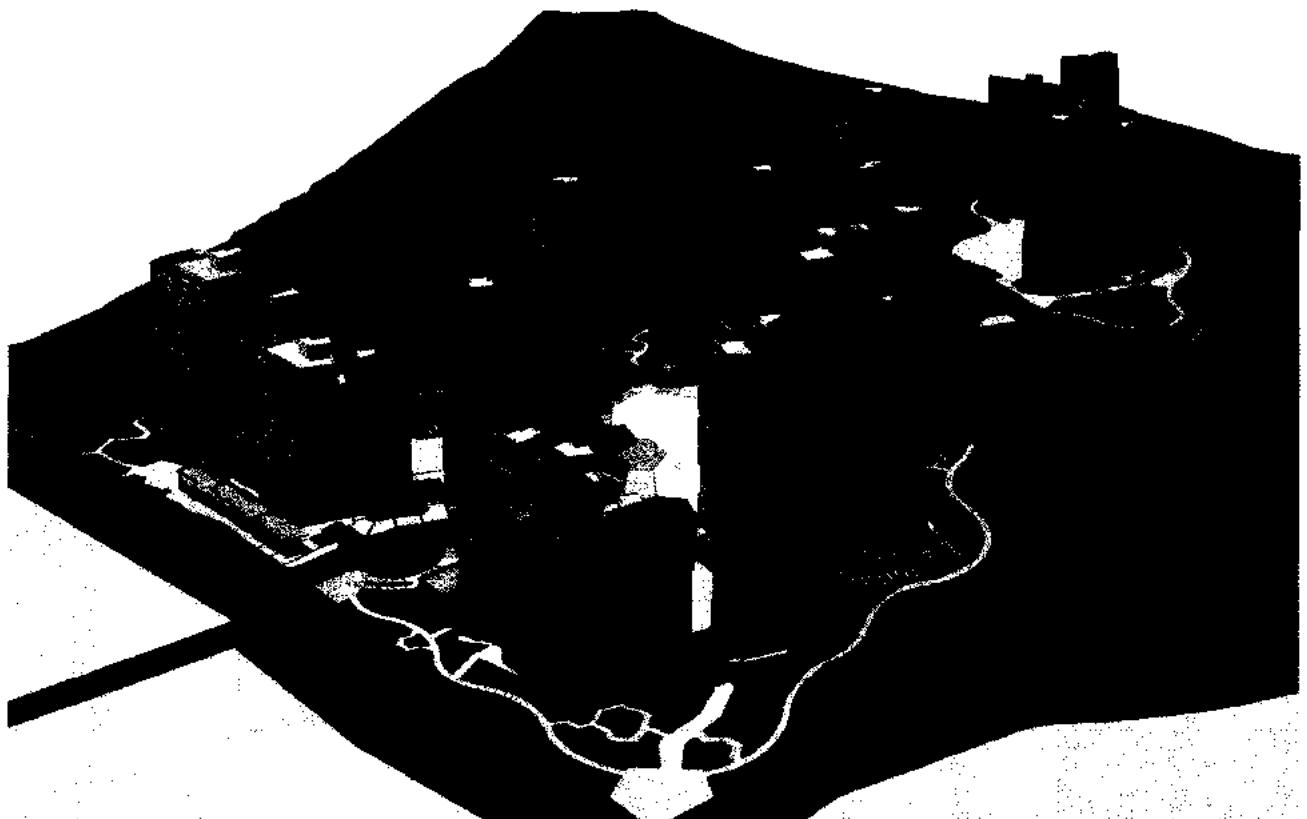
한국의 멋이 담긴 마을 _ 전통건축 고유의 멋진 자연(물/숲), 선(길), 여백(마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단지배치 및 외부공간 구성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주: 현상 설계자침_ 한국적 문화의 정서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모델 제시할 것)

1) 자연(물/숲)_생명의 숨을 상징 자연 속에 스며드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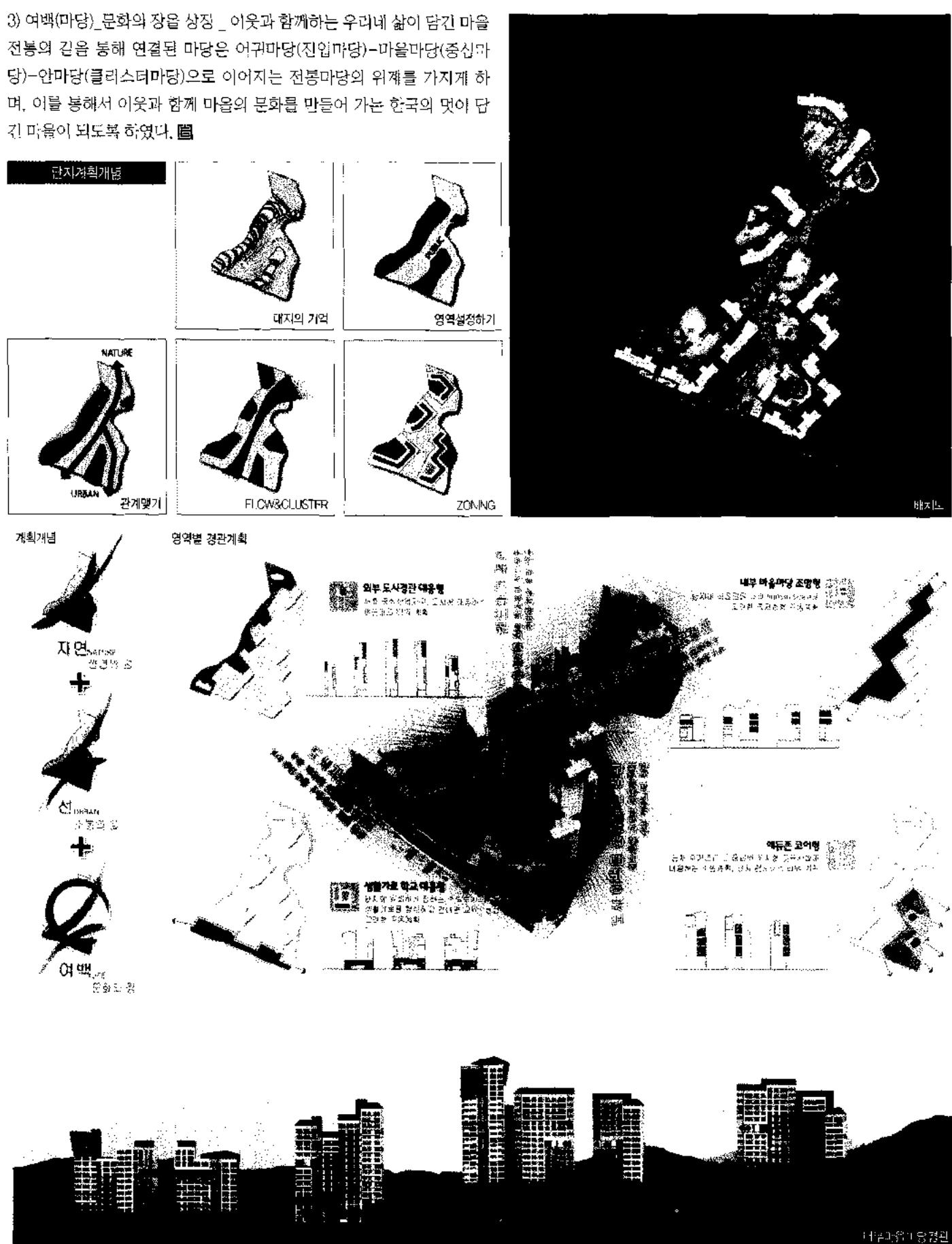
계획대지 3면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고, 산지의 골을 따라 흐르는 물을 갖고 있는 대지의 자연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주변의 숲과 물을 계획대지로 적극 유입,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였다.

2) 선(길)_소통의 길을 상장 _ 도시 그리고 이웃마을과 소통하는 마을

전통마을의 바깥길-어귀길-안길-샛길을 대지에 담아(계획하여) 우리마을과 도시 그리고 인근단지와의 소통의 길로 계획. 한국의 정서가 담긴 길을 통해 이웃과의 만남과 교류의 장인 각각의 마당을 연결시켰다.



3) 여백(마당)_문화의 장을 상징_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네 삶이 담긴 마을 전통의 길을 통해 연결된 마당은 어귀마당(진입마당)-마을마당(중심마당)-안마당(클리스터마당)으로 이어지는 전통마당의 위계를 가지게 하며, 이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한국의 멋이 담긴 마들이 되도록 하였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인천 로봇랜드

Incheon Robotland Public Facilities

당선작 / 이승연 정희원 · 김태명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 주성진 정희원 (성학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천동 440-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변경입안예정)
주요용도 교육 · 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대지면적 37,701m²
건축면적 9,830.99m²
연면적 96,619.76m²
건폐율 26.08%
용적률 194.06%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25층(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연구소, 로봇대학원)
법주처 (주)인천로봇랜드
설계총괄 심재한, 최준섭
설계담당 한상민, 박동국, 이영희, 김성식, 김병진,
김인, 정승철, 함연식, 서동원, 김성산,
김사숙

인간·기술·자연이 하나되는 공간

TRINITY-i

국제경제자유구역 및 첨단산업 인프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인천로봇랜드의 상징성과 인자성을 표현하고, 산·학·연이 융합되는 글로벌 연구단지 구현을 위해 로봇연구소와 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대학원의 유기적인 연계와 프로그램 조성을 통해 「소통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또한 자연과 인간, 기술의 흐름이 대지 중심으로 흘러드는 「공존의 ROBOTOPIA」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세계적 로봇산업 HUB의 중심 LANDMARK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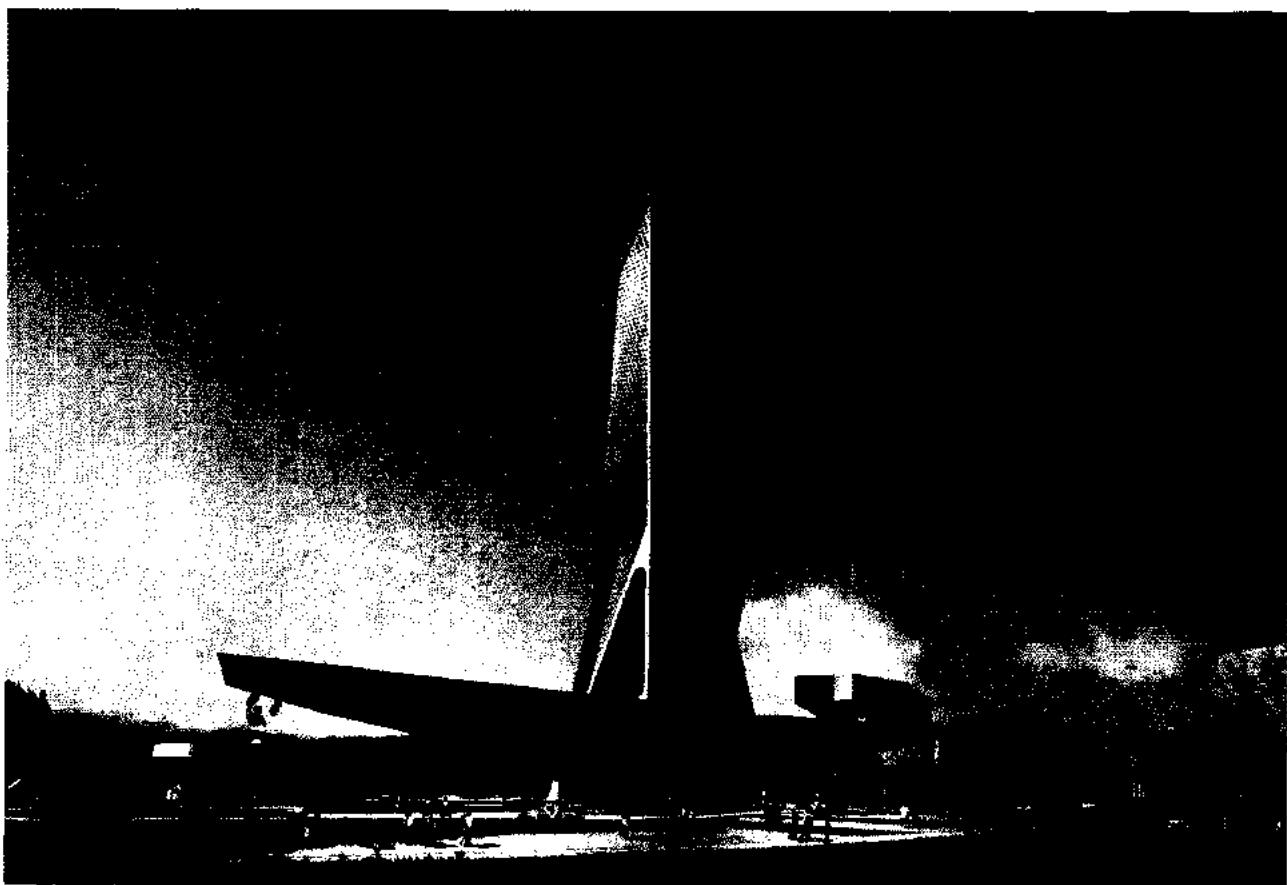
계획부지 중심에 위치한 로봇산업지원센터는 자연의 흐름과 로봇연구·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친환경 타워를 계획하여 국제적 로봇연구개발의 거점으로서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로 걸어가는 로봇을 모티브로 한 상징적 타워는 로봇산업의 메카로서 미래

로 나아가는 이미지를 구현하고, 진입광장에서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포디움 계획으로 관문의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저층부에서의 정면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진입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로봇태권복이 조형물을 설치하여 건축물과 로봇조형물이 융합된 경관을 연출, 로봇랜드로서의 상징적 보행경관을 연출하였다.

인천과 세계로 통하는 열린 연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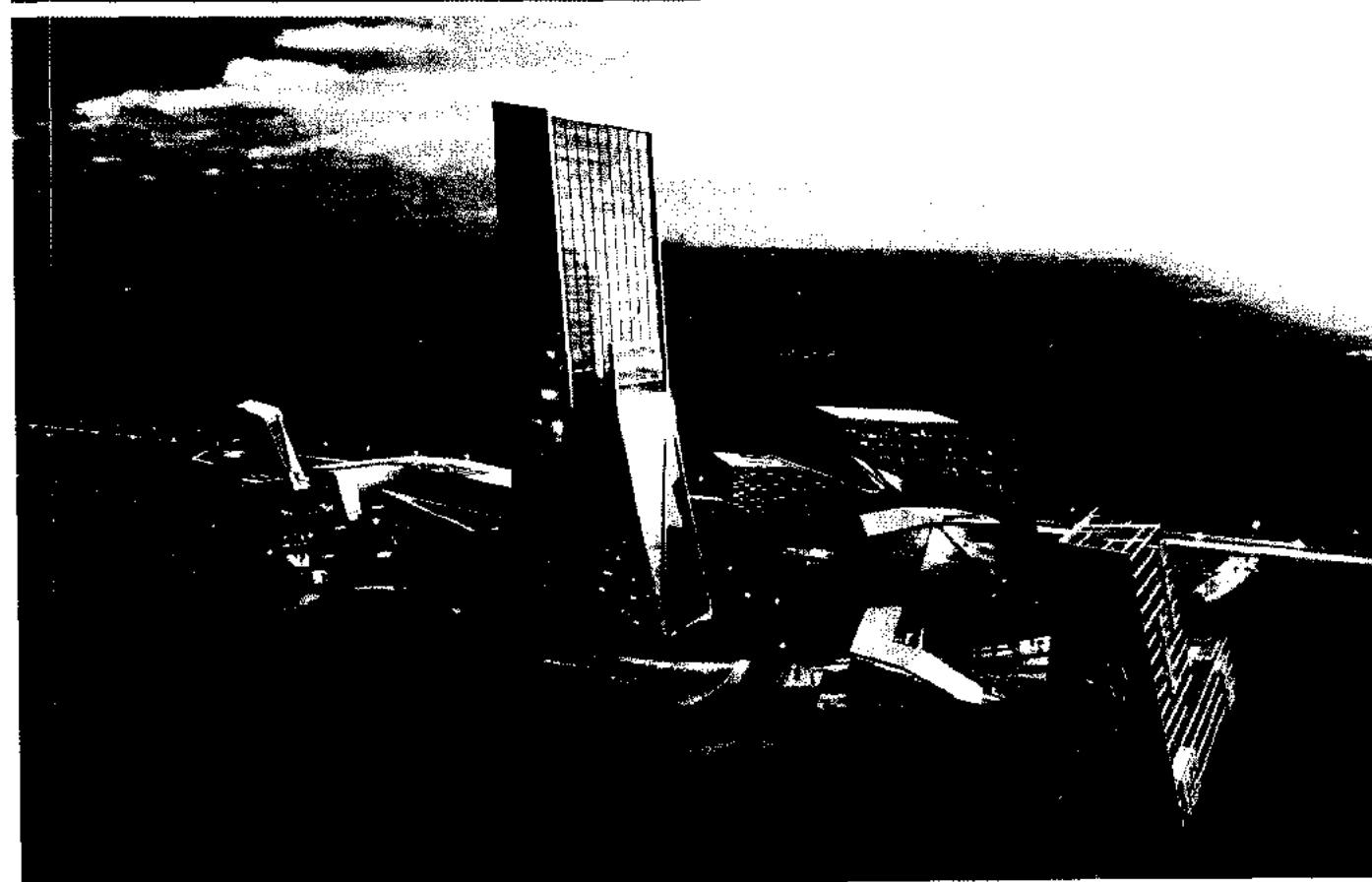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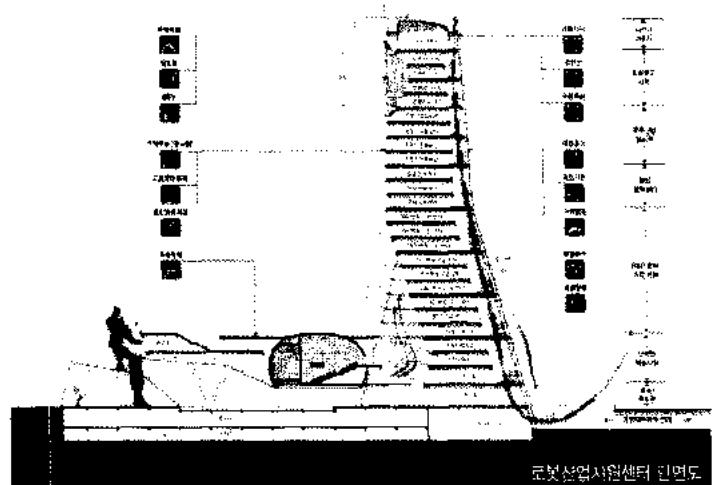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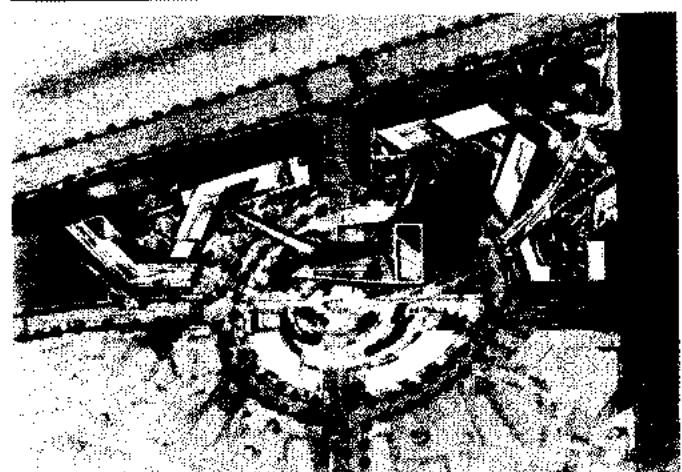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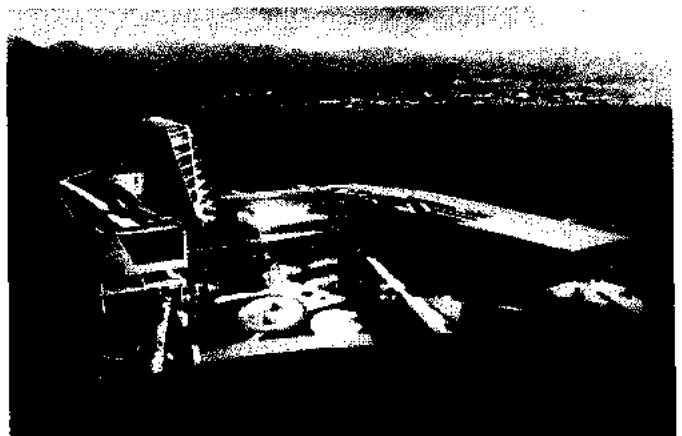
연구시설은 자연과 소통하는 열린공간 계획으로 연구원들간의 원활한 교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열린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계획하였다. 로보타 숲으로 불리는 연구원을 위한 공간과 빛의 정원으로 불리는 공공을 위한 공간을 두어 두 개의 서로 다른 열린공간을 통하여 전시, 체험, 홍보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보안통제관리와 가능에 충실한 연구시설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사람과 로봇이 교감하는 역동적 공간연출

인구 소공원과 연계한 녹지 흐름을 내부 광장으로 유인한 로봇대학원과 가속사는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교수연구동, 강의실험동, 산학연구동으로 분리해 시설별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남측면 베라스 계획과 강의실 및 연구실의 저면배치로 폐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이버 가든, 사색의 정원(큐브쉼터) 등 체험의 성격을 가진 외부공간 조성으로 봄봇과 교감하는 공간을 계획하고, 입체감 있는 스카이라인 및 매스계획으로 로봇의 역동성과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



독일 연방국의 신(新)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 규정’ (HOAI 2009)은 한국의 ‘건축사 보수 및 대가기준’ 개선의 타산지석

The New 'Fee Regulations for Architects & Engineers (HOAI 2009)'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s A Stimulus To Revise the Present Architect's Fee Regulations in Korea

내한건축사협회는 '시급한 제도개선 사안' 중 '건축사 보수 및 대가기준' 개선이 첫 번째 중요성을 가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건축을 제외한 타 산업분야의 경우, 해당분야 진통법 또는 기본법을 통하여 발주 및 지원기준을 만들고 있으나, 현재의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른 기준으로 건축사들을 위한 참고 사항은 될지언정 공공발주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대가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근년 독일연방국의 건축실무계의 최대 관심사는 2009년 8월 18일부터 유효한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규정(HOAI 2009)'에 관한 토론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에 속한 독일 연방국의 경우,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규정”은, 관습법적 전통을 따르는 영·미국 등의 관행과는 달리, 확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90% 이상의 공·사적 건축계약이 이 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사 보수 및 대가 기준 개선의 요구가 지대한 현 시점에 독일연방국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 규정'을 심도 있게 조명함은 우리 제도 개선을 위한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목 차

- 독일 연방국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규정(HOA)'의 변천
The Development of HOAI in Germany
 - 6차 개정 규정의 주요 개선 사항들
The Structure of the 6th Revision of HOAI



로 활동하며 신고된 경상내 고장이 1990년 대비 2000년
증가한 연구, 국립 통계청과 세종대학교 공동으로 2000년
총의 연구와 더불어 주제의 인구와 고장의 관계를
통일도입 현대건축(서고마프레스 2004), 그리고
(별언 1998) 유럽의 도시와 건축학의 관계에
의해 건축 교과과정 1017연구, 고장과 고장에 대한
을 발표하였다.

내원근속사람들이 부끄러운 그림자로
죽으사 - 우물 아래의 그림자는 그려지지
는 이웃집의 비단옷구이다.

2. 6차 개정 규정의 주요 개선 사항들 - The Structure of the 6th Revision of HOAI -

수가규정의 6차 개정

1995년 이래 14년간 수가를 올리지 아니한 점을 배경으로 수가표상의 수가는 일괄적으로 10% 상향 조절되었다. 수가규정은 그 내용과 구성 모두 새로 정돈되고 보다 간결하게 되었다.

구 수가규정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은 신 규정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수가 제 영역상의 최저 및 최고수 가액, 완벽한 과업 제 단계 또 수가결정을 위한 제반 결정요 소(산정 가능한 비용, 과업상(像), 수가영역, 수가표, 과업단 계에 따른 과업범위가 차지하는 배분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신 규정의 새로운 구성

지금까지의 수가규정 총 103조는 56조로 축소되었고 상당수 규정들은 부록으로 바뀌었다. 수가영역 배속을 위한 대상물 일람(부록 3)과 종전 규정을 그대로 담습한 과업상(課業像)(부록 4-14), 특수과업(부록 2) 및 자문 제 과업(부록 1)이 부록편에 속한다.

신 HOAI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분야와 구속력이 없는 분야로 분류되었다. 구속력 있는 규정들은 제 1부로부터 5부 까지와 부록 3(대상물 일람) 및 과업상(부록 4부터 14까지) 속에 포함되었다.

구속력이 없는 부분은, 환경친화성 조사 및 종전 규정 10-13부의 엔지니어 기술적인 제 규정을 포함하는 부록 1과 특수 과업을 포함하는 부록 2로 구성된다.

제 1부는 일반적인 가격법적 및 계약법적 제 규정들을 둘었다. 구 규정의 개축 및 건물 현대화에 관한 제 규정들이 규정 도처에 산재함에 비하여, 신 규정에서는 기존 건물에 있어서의 제 과업(35조)과 유지·보수(36조) 규정으로 학개 묶어 제 3부 1장에 구속시켰다.

신규정 제 2부부터 4부까지와 부록 4-14는 면적계획(도시계획과 조경계획), 대상물 계획(건물 및 실내건축물) 및 전문계획(구조, 기술설비) 또 건축가 과업 제 단계들의 평가/산정(査定)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한다.

9개의 과업단계(1.기초조사, 2.예비계획, 3.설계계획, 4.허가계획, 5.실시계획, 6.하도급 준비, 7.하도급시 협력,

8.대상물 감리)에 따른 구체적인 제반 행위를 보이는 과업상(像)은 구 규정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부록에 함께 둘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본)과업들과 달리 자유로운 협상에 의지하는 특수과업들은 신규정 부록 2에 따로 둘었다.

신규정의 주요 개선 사항들

1995년 이후 수가표의 수가가 인상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새 규정의 구속력 있는 가격법적 규제하의 제 과업들과 자유로운 가격협상이 가능한 과업들 모두에 10% 수가 인상을 실행한 점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관련 측으로부터 사적(私的) 위탁자들에 대한 수가 인상으로 인한 제 비용 상승액이 정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연방, 주 및 지자체에 대한 연간 추가 부담액은 2억 9천만 유로(한화 4천 3백 50억 원)에 달한다.

신 수가규정의 적용범위는 수임자(계획사무소)의 사무소 소재지가 독일 국내에 등록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서비스 제작 지침 16조는 다만 공공질서, 공공 안전, 공공 건강 또는 환경보호의 이유들로만 최저 및 최고 수가를 확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수가규정(HOAI)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과 사회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규정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독일의 수가규정은 독일 내에서만 적용가능하며, 외국의 건축가와 엔지니어의 제 과업은 본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신규정은 그 사무소의 소재지가 독일 국내로서 국내로부터 수행된 제 과업들에만 적용된다.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와 국외 모두에 있는 경우 국내 제한으로 인한 국외로부터의 강한 경쟁 압력이 생길지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전역에 걸친 발주의 경우 국외의 건축가/엔지니어들의 가격제안 역시 이를 수가가 독일 수가영역 밖일지라도 발주 판단의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제안가(價)가 독일 규정의 최저 수가보다 낮을 경우 이를 제안이 충분한지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 6차로 변경된 신 HOAI 2009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1〉 HOAI 2009의 구성

HOAI의 기본 구성		HOAI 2009의 기본 구성	
제 1부	일반 제 규정	제 1부	일반 제 규정
제 2부	면적 계획 제 1장 : 건축지도 계획(도시계획) 제 2장 : 조경 계획	제 2부	건물, 육외 시설물(조경) 및 공간구성 건조물(실내건축)에 있어서의 제 과업
제 3부	대상을 계획 제 1장 : 건물 및 공간구성 건조물(실내건축) 제 2장 : 육외시설물 제 3장 : 엔지니어 건축물 제 4장 : 교통시설물	제 3부	추가 제 과업
제 4부	전문 계획 제 1장 : 구조물 계획 제 2장 : 기술 설비	제 4부	전문가 의견서 및 감정서
제 5부	인도 및 종결 규정	제 5부	도시계획적 제 과업
부록 1	자문 제 과업(종전 규정의 10~13부)	제 6부	조경계획적 제 과업
부록 2	특수 제 과업	제 7부	엔지니어 건축물 및 교통시설물
부록 3	대상을 일람	제 7부a	교통계획적 제 과업
부록 4~14	면적-, 대상을 및 전문계획의 제(諸) 과업상(課業像)	제 8부	구조물 계획상의 제 과업
		제 9부	기술설비상의 제 과업
		제 10부	열역학적 건축물리를 위한 제 과업
		제 11부	방·차음 및 공간음향을 위한 제 과업
		제 12부	지질역학 및 기초공사를 위한 제 과업
		제 13부	측량기술 제 업무
		제 14부	종결 및 인도 규정

신 규정(제 6차 HOAI)의 특성 일람

- 수가의 10% 선형(線形) 인상
- 구(舊) 제(諸) 과업단계의 유지
- 수가표상의 최저/최고 “산정 가능한 비용” 유지
- HOAI 규정의 새로운 구성
- 규정 적용 범위를 국내(독일 연방국)에 사무소 주소를 둔 계획 사무소에만 적용하는 공간적 제한
- 구 규정 X 장(열역학적 건축물리)부터 XIII장(측량 기술적 업무)까지를 법적 구속력 없는 적용 범위로서 부록에 수록
- 건축비 산정모형 도입
- 보너스(제 비용 절감 시)와 벌과금(제 비용 초과 시) 규정 수용
- 시간당 수가 폐지
- 계약법적 제 요소의 유지

과업범위

기본과업은 일반적으로 수탁위임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과업이다. 객관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기본과업은 각각 자체로 마무리 짓는 과업단계들로 묶는다.

특수과업은 일반과업 범위를 넘거나 일반과업을 변경하는 과업이다. 특수과업은 위임실현에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기본과업에 추가로 또는 본 과업 대신 등장 할 수 있다.

제 6차 신 규정에서 “기본과업” 개념은 “제(諸)과업” 개념으로 대체되고, 종전 규정의 “특수과업”은 부록에 포함시켰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격법적 규제하의 기본과업과 자유로운 수가협약이 가능한 특수과업들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여 수가협약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과업의 위상에 따라 하나의 계획업무는

- 완전한 과업상(像)
- 제한된 과업범위(예: 과업단계 1~4)
- 일체의 기본 과업상을 거쳐 단계적으로 부여되거나, 경 우에 따라 특수과업과 교환 또는 특수과업에 추가된다.

수가표

과업단계에 따른 제 과업들은 신 규정 34조의 수가표(건물 및 공간구성 구조물을 위한 수가표)에 의하여 수가상 보상된다. 수가는 5단계의 난이도에 따른 수가영역과 25,565 유로(한화 ~3천 8백만 원)부터 25,564,594 유로(한화 ~38 억 3천 4백만 원)까지의 “산정 가능한 비용(건축비)”을 근거로 계산한다.(25,565 유로 이하 및 25,564,594 유로 이상은 자유 협상)

이번 6차 개정에서 1995년 이후 수가 인상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수가인상은 거의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구속력 있는 가격법적 과업과 그렇지 아니한 과업 모두에 10% 요율인상을 실현하였다.

(표 2) 건물 및 산내 건축물의 최저 / 최고 수가표

Anrechenbare Kosten in Euro	Honorarzone I von Euro	Honorarzone II von Euro	Honorarzone III von Euro	Honorarzone IV von Euro	Honorarzone V von Euro
25.565	2.182	2.654	2.654	3.290	3.290
30.000	2.558	3.109	3.109	3.847	3.847
35.000	2.991	3.629	3.629	4.483	4.483
40.000	3.411	4.138	4.138	5.112	5.112
45.000	3.843	4.657	4.657	5.743	5.743
50.000	4.269	5.167	5.167	6.358	6.358
100.000	8.531	10.206	10.206	12.442	12.442
150.000	12.799	15.128	15.128	18.236	18.236
200.000	17.061	19.927	19.927	23.756	23.745
250.000	21.324	24.622	24.622	29.018	29.018
300.000	24.732	28.581	28.581	33.715	33.715
350.000	27.566	32.044	32.044	38.017	38.017
400.000	29.999	35.114	35.114	41.940	41.940
450.000	32.058	37.820	37.820	45.498	45.498
500.000	33.738	40.137	40.137	48.667	48.667
1.000.000	60.822	72.089	72.089	87.112	87.112
1.500.000	88.184	104.284	104.284	125.749	125.749
2.000.000	115.506	136.436	136.436	164.341	164.341
2.500.000	142.830	168.598	168.598	202.953	202.953
3.000.000	171.226	200.401	200.401	239.295	239.295
3.500.000	199.766	232.158	232.158	275.353	275.353
4.000.000	228.305	263.920	263.920	311.411	311.411
4.500.000	256.840	295.678	295.678	347.465	347.465
5.000.000	285.379	327.439	327.439	383.522	383.522
10.000.000	570.757	648.805	648.805	752.869	752.869
15.000.000	856.136	964.745	964.745	1.109.559	1.109.559
20.000.000	1.141.514	1.275.044	1.275.044	1.453.088	1.453.088
25.000.000	1.426.893	1.586.268	1.586.268	1.798.766	1.798.766
25.564.594	1.459.117	1.621.426	1.621.426	1.837.835	1.837.835

*Anrechenbare Kosten = 신정가능한 비용

*Honorarzone = 수가영역

건축비 산정모형

건축가 수가는 전반적으로 건축비에 따른다. 이번 신 규정에 적용된 “건축비 산정모형(Baukostenberechnungsmodell)”은 지금까지의 3단계에 걸친 건축비 계산방법 – 과업단계 1부터 4까지 비용계산, 5부터 7까지 비용적정, 8부터 9까지의 비용확인 – 의 계속적이며 번거로운 절차 대신, 프로젝트 초기에 한 번에 건축비 계산의 근거 하에 수가 계산을 가능케 하였다.

건축비 산정모형의 근거는 과업단계 2의 예비계획이나 과업단계 3의 완결된 설계계획이며, 종래의 과업단계 8(대상물감리)까지의 비용확인까지의 절차를 절약할 수 있게 하여, 1995년 이래 연방상원이 요구해온 핵심 요구사항인 수가계산을 매(每) 과업 단계의 진행에 따른 해당 시기의 실제 건축비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실현시켰다. 따라서 건축가 수가 확정이 프로젝트 초기에 가능하게 되었다.

수가의 추가 및 감가

계획규모 및 임무의 성격에 따라 위임 협상 시 또 차후 수가 산정 시 추가 및 감가(減價)가 협의되고 산정 될 수 있다.

– 예비설계 또는 설계계획을 개별업무로 따로 수행 할 경우,

1. 예비설계 수가 백분율+매 전(前) 과업 단계(기초조사)의 최대 백분율 : $7\% + 3\% = 10\%$ 추가

2. 설계계획 백분율+전 과업단계(예비설계)의 최대 백분율 : $11\% + 7\% = 18\%$ 추가

– 대상을 감리를 개별업무로 따로 수행 할 경우,
수가영역에 따라 $2.3\% - 3\%$ 추가

기존 건물의 개축 및 현대화(現代化)

신규정 35조는 종전 규정 도처에 산재하던 개축과 건물 현대화에 관한 제 규정들을 한 곳에 둑고, 기존 건물의 계획 및 건축에 관한 제고된 계획상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가 추가의 가능성성을 확장하였다.

개축과 현대화(건물의 사용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건축적 조치)의 경우 종전 규정의 기본수가의 20~33% 대신, 80%까지의 수가 추가를 약정할 수 있고, 특별한 서면 협약이 없는 경우 20%의 개축 추가 수가를 의무화하였다.

36조는 건축물의 유지보수와 수리에 관한 규정으로 과업 단계 8(대상물 감리)에 기본수가의 50%까지 추가할 수 있다.

동일 건물 반복시의 수가

건축적 위임이 시기적/장소적으로 동일한 건축적 여건 하에 계획되고 건립될 경우 또는 동일한 유형 또는 규격 건축물일 경우 과업단계 1(기초조사)부터 7(하도급 협력)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반복의 경우 수가의 50%를 차감하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반복의 경우 60%, 여덟 번째 반복으로부터 90%를 차감한다.

부대비용

신규정 14, 1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우송료, 도면/서면 등의 복사비, 사진 등의 제작비, 여비 등은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들 비용은 개별 증서, 백분율 또는 합산하여 정산하며, 정산 형식은 위임 시 약정되어야 한다.

가점(加點) 및 감점(減點) 규정

신규정 7조 수가협약 7항은 산정 가능한 비용(건축비) 절감 시 수가에 가산점을 주며, 비용 초과 시 감산점을 주는 규정이다.

기술적/경제적으로 또 환경 친화적 해결책을 활용하여, 계약상 확정된 표준을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 제비용을 절감 시킨 경우 약정된 수가의 20%까지에 달하는 수가 가산점이 부여되며, 합의 확정된 건축비를 초과한 경우 5%의 수가 감산점이 부여될 수 있다. 이 규정이 실제 활용될 수 있는지는 아직 더 기다려 보아야 한다.

시간당 수가

수탁자의 과업에 대한 시간당 수가계산에 관한 제 규정은 신 규정에서 전부 삭제되었다. 이로써 계획 사무소들은 재현 가능한 산정에 근거하여 충분한 시간당 요율을 협약 할 수 있다.

수탁 시 시간당 요율을 약정함이 필요하며, 종래의 시간 요율에 10% 가산하여 수가 제안을 할 수 있다.

산정 가능한 제 비용

건축을 위한 제 비용("산정 가능한 제 비용") 산출을 위한 근거로서 독일 공업 규정 2008년 12월 판(DIN276-1 : 2008-12)이 사용된다.

연방 건축을 위해서는 비용 산출에 있어서 대상물의 생산, 개축, 현대화,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제 비용과 이와 상관된 비용을 포함하여 수가 가능한 산정가 산출의 근거로 삼을 것을 확정하였다.

신 규정의 근본적인 변경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1. HOAI의 적용범위는 독일연방국 국내 소재 사무소들의 계획 제 업무에 국한한다. 유럽공동체 내 시장의 서비스 성취지침(2006.12.12)16조는, 특별히 합리화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건축가/엔지니어 사무소 소재지가 독일 연방국 밖일 경우 HOAI 규정의 적용을 금하고 있다.

16조 3항에 언급된 이유란 공공의 질서, 안전, 건강 또는 환경보호이다.

2. 국가적인 가격제시는, 타 분야 자문 업무에서처럼, 계획업무 자체에만 해당되며, 자문 업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 HOAI 규정은 제반 계획업무들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본 규정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을 분리하여 부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열역학적 건축물리(차열, 방습 등), 방·차음, 공간음향, 지질역학 및 측량기술적 제 업무들은 부록으로 대체되었으며, 이 분야 비(非) 전문가인 소비자들을 위한 방향제시 역할을 하게 된다.
3.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은 앞으로 수가계산시, 지금까지의 나중 실제 확인된 비용에 근거하는 대신, 미리 산정된 건축비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요구 점은 연방 상원의 비용절감 요구에 유리한 건축에 관한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고 있다.
4. 가점(加點) 및 감점(減點) 제도의 도입으로, 건축가/건축주 쌍방은, 수가산정의 기초(건축비)가 나중 절감된 경우, 사전 확정된 수가의 20%까지를 보너스로 약정 할 수 있고, 반대로 초과된 경우 5%까지의 벌점을 수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5. 계획가들에게 계약구성 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간당 요율은 폐기되었다. 이로서 사무소들은 보다 정확한 계산 및 계약구성에 관한 능력을 강화하는 자극을 받게 된다.
6. 수가가 1996년 이후 상승되자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수가표 상의 최고가 및 최저가는 일괄적으로 10% 상향 조절되었다. 이로 인한 비용 상승은 2억 9천만 유로(연방정부에 8천만 유로, 주 정부에 3천 5백만 유로 및 자자체들에 1억 7천 5백만 유로)에 달한다. 앞으로 환경 친화성 검토, 방화 또는 에너지 절약 규정 등의 강화된 요구사항에 따른 비용 상승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7. 구 HOAI의 간결화로서 신 HOAI는 가격법적 규정에 집중하며, 전 규정을 일반 규정과 특수 규정 부분으로 나누어 투명성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고하였다.

독일연방국의 새로운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규정(HOAI)"이 2009년 8월 18일 발효함으로써 연방건설부는 이 가격법을 들러싼 장기간의 집요한 협상 끝에 계획자 모두들에게 근본적인 중요성을 뛴 건축 문화적인 표준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연방 건설부 「뤽케·달드름」차관은 본 규정의 발효를 계기로 아래와 같이 천명하였다.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은, 다른 자유직 종사자들처럼 그들의 과업의 대가계산을 위한 분명하고 투명한 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이것이 보장되었다. 이 점은 계획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중요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비용 계획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하는 건축주들에게도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건축문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인 것이다. 좋은 과업은 공정한 대가를 필요로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들의 건조된 환경을 구성함에 있어서 질(質)을 회생한 수가의 덤핑은 있어서는 안 된다.”

HOAI는 내용적으로 새로운 구성을 갖게 되었고 많은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수가율(率)을 선형(線形)으로 10% 올리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과업분야까지도–, 과업상(課業像)(수가영역과 더 상물 일람을 포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의 최저/최고 수가를 포함한 수가표, 분할 불 및 최종자불 같은 계약상의 중요한 제 규정들이 계획 종사자들의 중심적인 이해에 걸맞게 고려되었다.

수가구조와 더불어 직업상(像)의 변천, 환경관련 사항들, 기술적 또 법적인 발전상의 관점아래 과업상(課業像)들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 반영될 것이다.

* * *

이 글 첫머리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건축사의 일부 범위와 대가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대가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 연방국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규정”은 확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공·사적 건축계약이 이 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분명하게 구분된 9개의 과업 단계에 따른 수가의 사정비(查定比)는 계획사무소의 여건에 따라 과업단계 상의 업무를 특화할 수 있을뿐더러, 우리 설계 업계의 고질병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행되는 무비용 계획설계 업무의 두한 경쟁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연방국 수가 규정에 기술된 9개의 과업단계에 따른 과업상(課業像)은 계획사무소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

인 행위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애매모호한 과업의 여지를 없앴다.

과업단계 8(대상물 감리)의 15개로 명시된 과업상들은 “대상물의 실현이 건축허가, 실시계획 및 과업기술(記述)과 일치하는지를 감독”하는 일부터 “계약가(價) 및 비용 견적 대비, 시공업체의 과업정산의 검토를 통한 비용검사”까지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리업계에 그토록 많은 불만과 원성을 야기하는 설계와 감리 분리로 인한 문제는 독일연방국 수가규정의 과업단계에 따른 과업상에 의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일격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사무소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계획사무소들은 그들의 업무를 재량껏 선택할 수 있다.

신 수가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격법적 규정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자문 행위 등에 대한 계약법적 규정을 분리함으로써 구수가 규정의 경작성을 개선하여 계획사무소들의 사업/활동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최종 건축비 절감 시와 초과 시 수가보너스와 별과금 규정을 누이 전체적인 건축비 절약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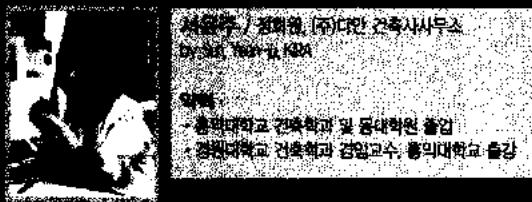
앞으로 기대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우리나라 건축사 용역 대가기준을 통한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맞아 독일연방국 수가 규정(HOAI)의 보다 심도 있는 비교연구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圖

- 참고문헌 -

- Bundesrat : Beschluss des Bundesrates, 395/09
 Verordnung für die Honorare für
 Architekten- und Ingenieurleistungen (HOAI)
(연방상원 : 연방상원 결정, 395/09 건축가와 엔지니어 세 과업을 위한 보수규정 (HOAI))
- 이선구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기초조사
 · 유럽 각국의 건축사 업무와 대가기준에 관하여—
 최종보고서, 대한건축사협회 2009. 2. 24

푸른빛 실크로드

Bluish Silk Road



낯선 사람들과의 4박6일간의 일정, 게다가 이틀조차 생소한 낯선 지역으로의 여행….

설레는 마음과 밀린 업무를 뒤로 한 채 떠나는 일정에 대한 낯선 불안감이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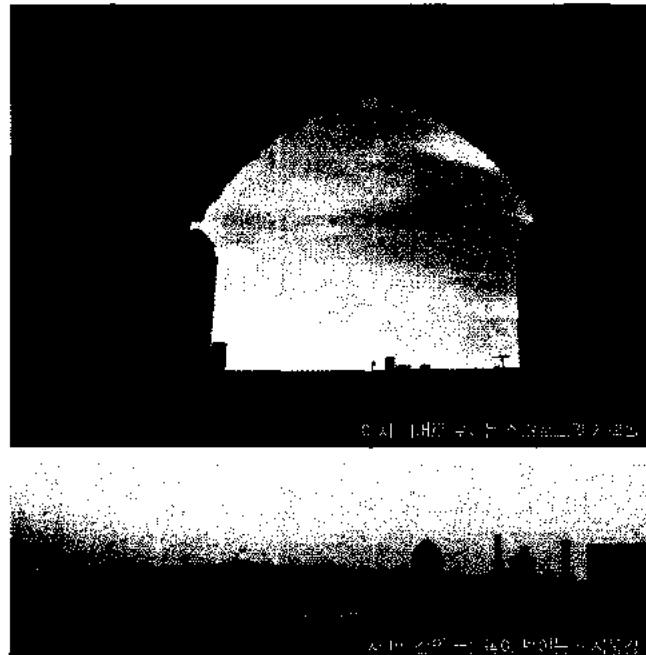
게다가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약속 시간보다 한참 뒤에 공항에 도착한 탓에 일행과는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펼자는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의 이륙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고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나서야 돌아본 기내 안에는 일행인 듯 보이는 사람들의 늘뜬 대화소리가 여행의 시작과 기대를 알린다.

건축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시간이 허락되는 한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경험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쉽게 여행을 결정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업무상의 출장을 제외하고는 스스로를 위한 여행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실로 몇 년 만에 출장이 아닌 여행으로 떠나는 선물을 받은 셈이다. 훌쩍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이나 건축여행을 좋아하던 필자로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참으로 낯선 여행지다.

우즈베키스탄 타쉬겐트, 사마르칸트… 외우기도 낯선 이름이다. 중앙아시아의 심장인 우즈베키스탄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곳 타쉬겐트와 과거의 영화가 있는 사마르칸트 시간여행이 될 듯 하다.

이 여행길에 무엇인가 봐도 좋고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좋지 않겠는가. 그저 때론 광활한 벌판만으로도 먹먹했던 일상을 털어버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 떠나는 여행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숙지 못한 부족함을 위안으로 채우는 동안 비행기는 낯선 땅 중앙아시



아에 도착했다.

그 첫 번째 풍경 공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절차를 기다리는데 묘한 긴장감이 돈다.

아직 사회주의를 백하고 있는 나라이며 외환관리가 철저해서 보유한 현금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말에 갑자기 다들 분주해 진다.

내국인 외국인이 뒤섞이고 줄도 없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태이며 말도 안 통하는 상태이다. 잘못하면 3시간 이상을 공항에 밟아

묶이는 때도 있다는데, 피곤함이 몰려온다.

버스에 올라서 창밖으로 보이는 시내는 약간 어두운 듯 차분하다.
어쩌면 평양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이른 새벽부터 일정의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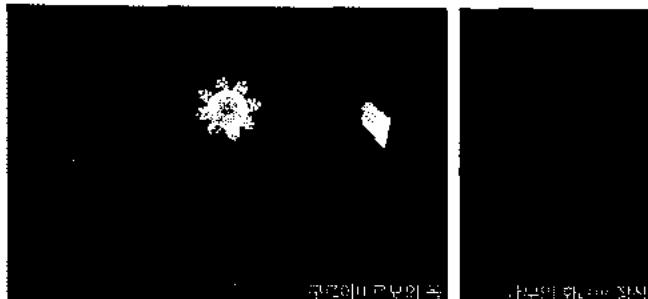
타쉬겐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는 기차로 약 5시간 이동을 한다고 한다. 달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은 때론 60년대 시골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 때론 광활하고 서늘하다.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며 과거의 역사의 중심지인 실크로드를 달리고 있다.

첫 탐방지인 사마르칸트에 도착했다.

사마르칸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서 동방의 로마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는데, 푸른도시라는 뜻을 가진 이슬람의 고노답게 드시 곳곳이 푸른색 돔이다.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빛바랜 벽돌집 이슬람 사원의 푸른색 돔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리다.

구르아미르묘에 도착했다.



구르아미르묘의 밤
구르아미르묘의 밤

티무르 대제와 그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까만 무덤이 티무르왕의 자리이고 실제 무덤은 지하에 있다고 한다. 티무르를 비롯해 여려 개의 관이 있지만 모두 비어있다. 실제 관은 지하 4m 아래에 보관돼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티무르 왕이 손자의 전사를 추도하기 위해 지은 중세 양식의 사원이라는데, 손자를 엄청나게 사랑했음을 푸른 타일의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된 돔으로 이야기하는 듯 하다.

두 번째 탐방지인 아프라시아卜 봄분관은 작은 규모로 찬란함을 가진 프레스코 벽화가 있는 곳으로, 이 박물관이 유명한 것인 고려의 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신라 혹은 고구려인들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다는데, 필자는 가이드의 설명을 뒤로한 채 지금히 한국적인 문에 시선이 멈둔다. 낯선 땅에서 발견하는 한국적 모습은 언제나 즐겁다.



아프라시아卜 봄분관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레기스탄 광장이다.

레기스탄 광장은 사마르칸트의 중심지로서 웅장하면서도 화려하다. 일행은 한눈에 펼쳐지는 스케일감에 압도되면서도 저 돌 꼭대기는 타일을 어떻게 붙였을까 하는 것과 축조법에 대한 고민과 토론 중이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가이드의 설명을 조합해보니 학문의 중심지였으며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필자가 서있는 이 자리가 과거 화려하게 그 명성을 떨쳤던 동서무역의 중심지인 것이다.

비록 지금은 관광 상품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섬세한 모자이크무늬가 아로새겨진 레기스탄 광장과 건물 티무르의 묘…아라비안나이트의 알라딘과 신드바드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듯하다.



다음 탐방지인 부하라에 도착했다. 이제는 그런대로 익숙해진 현지식을 먹기 위해 도시의 꽤 높은 곳에 위치한 식당에 앉아서 돌아보니 골목길을 따라 숨은 도시의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일상의 모습들을 담은 흙벽돌의 건물들이 거대한 스케일의 푸른색 돔과 미나렛과 교차되어 낯선 공간감이 빛을 발하고 있다. 에메랄드색 돔과 칸막 미나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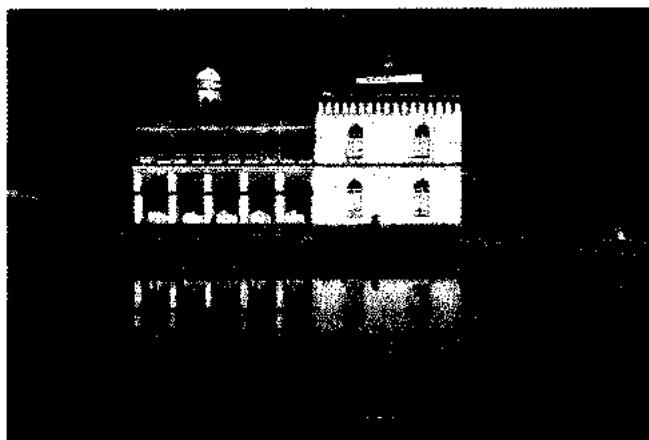
12세기에 건축되었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470미터의 미나렛이다. 코너를 둘면 이 미나렛이 나타나는데 그 존재감이 엄청나다.

칼론 미나렛 주변을 보고 아르크 성쪽으로 걸어갔다 몇 분 걸으면 아르크가 나타난다.

아르크성은 1920년 구소련 공격으로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실제 왕족이 살았던 성이란다. 부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서 그



칼튼미나렛



무슬림의 시내로 풍경



아르크성의 성곽

먼지 황폐하다. 흙벽돌이 과거 영광의 허무함을 이야기라도 하듯이 부서져 있다. 허무한 시간의 흔적을 쫓다보니 일행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조금 지친 듯 시선을 쫓는 일행들과 한편으로 사막의 노을을 뒤로하고 담을 타는 그림자가 앵글에 잡힌다. 형태가 배제되고 남은 실루엣은 형태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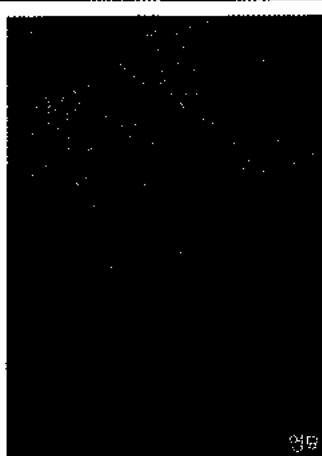
아르크성을 지나 좀 더 가면 사마나 공원에 이르면서 설명을 듣기보다 카메라로 바라보는 작업에 몰입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바라보니 스쳐지나갈 뻔 한 비례가 눈에 보인다.

공원 문을 지나 쪽 직진하니 느닷없이 대 관람차가 눈에 들어온다. 대 관람차를 지나고 나니 이제까지와는 다른 느낌의 영묘가 나타났다. 905년에 만들어진 거라는데, 이제까지 와의 건물과 다르게 화려한 타일이나 색상은 없지만 오히려 정교하게 쌓아올린 축조법과 정교하게 들어오는 빛이 시간여행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듯하다.



비단으로 된 청주 주변

마지막 날이다. 짧은 여정의 빠듯한 일정으로 늘 바쁘게 움직이다가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시간을 즐기며 이제는 제법 친해진 일행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모닝커피를 즐긴 후 버스에 올랐다. 타쉬겐트의 시내를 돌아보고 침간산으로 가는 일정이다. 계획에 없던 일정이



지만 가이드의 제안으로 전철을 이용해서 아무르 타무르 광장에 도착했다. 광장에는 아무르 타무르 기마상이 우뚝 서있다.

사마르칸트에는 고뇌하는 왕이었다면 타쉬겐트에서는 말을 타고 역동적인 타무르 왕이다.

마지막 여정인 침간산을 향해 출발이다. 인솔자의 설명대로라면 광활한 평지인 중앙아시아 대륙에 스키를 탈수 있는 유일한 산이라는데 그곳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어떨지. 케이블카가 아닌 스키 리프트를 타고 오르는 스릴 또한 색다른 경험일 것이다.

도착해보니, 그날따라 운행이 중단이다. 여행지에는 늘 이렇게 일정이 어긋나는 일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이며 즉흥적으로 일행들은 등반을 결정했다. 신이 거기 있기에.

산행을 포기한 몇몇의 동료들이 산 아래에서 여유를 즐기는 동안 어느새 가도 가도 쉽게 정상을 내어주지 않을 듯 한 산을 향해 오르더니, 어느새 종덕에서 카메라 불빛이 반짝인다. 그곳에서 그림같이 펼쳐지는 중앙아시아를 품었으리라.

침간산은 장엄한 산세와 만년설 그리고 산중턱에 자리한 호수 등 절대 청정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버스로 이동하는데, 굽이굽이 준봉들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침간산 중턱인 해발 1600m 고산지대에 차르박 호수가 있다. 텐산과 침간산의 만

년설이 녹아내린 물을 받아 저장하는 인공 담수호라고 한다. 침간산에서 차르박 호수로 이르는 길에는 조원구릉이 계속 이어진다. 나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문득 이맘때면 어딜가나 산세 가득 단풍이 가득한 내 나라의 대지가 더욱 소중해 진다.

절벽을 기다시피 오르내리며 풀을 뜯고 있는 양떼, 노새의 등에 올라탄 어린아이, 하루 종일 지나가는 손님 하나 없는 노점상을 지키고 있는 노인…타임머신을 타고 60년대로 돌아간 듯 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평화롭고 순박한 그들의 표정은 이 나라의 대지를 닮은 듯 하다. 광활한 대지와 척박한 자연이 주는 교훈은 도전 정신과 관대함이리라. 생각이 그렇게 미치다 보니 문득 하루를 본단위로 쪼개 쓰는 도시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중앙아시아의 뜨거운 심장 우즈베키스탄, 촉촉한 자연을 깨안은 둘의 도시 이곳 타쉬켄트에서 인류가 낳아 놓은 가장 길고도 위대한 길 실크로드를 차를 타고 달리는 있다는 기분 탓인지 차창밖으로 펼쳐지는 사막의 길은 아득한 중세의 광야를 거슬러 가는 느낌이다.

타쉬켄트의 구시가지에는 전통 벽돌집 모스크사원 이슬람학교 등 실크로드와 오아시스의 잔영이 남아있고, 대지진 이후 건설된 신시가지는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가로수 사이로 넓은 아파트와 건물들이 눈에 띈다.

젊은이들의 기운을 느끼는 브로드웨이 광장을 들어서니, 골동품과 장신구 등을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고 그림들을 전시해 놓고 판매하고 있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변화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

이런 화색빛 거리를 밝게 해주는 것은 젊은이다. 실크로드의 나파답게 그리스, 러시아, 터키, 아랍, 우즈벡 등 숱한 민족이 섞여 살고 있고, 혼혈 또한 다양하고 여성들은 대부분 미모가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서울로부터 화제였다. 오직했으면 우즈베키스탄에는 김태희가 밭을 갈고 한가인이 물을 길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호기심 많은 여행객의 발걸음을 더욱 설레게 한다.

바자는 언제나 그 지역의 토속적인 삶의 향취를 느끼게 한다. 수많은 상인들이 지붕만 있는 난전에 좌판을 벌려놓고 과일, 빵, 식료품과 일상용품은 물론 카펫과 동제 사모바르, 파파루스, 그림액자 등을 팔고 있다. 실크로드시대의 정취를 가득 담고서. 이제 그 여정을 마무리 하기 위해 전망대로 향한다. 타쉬켄트 TV타워,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375m의 탑으로 1985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100미터 높이의 전망대까지는 6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의해 승강기에 올라간다. 그렇게 오른 전망대에서 타쉬켄트의 도심을 내려다 본다.

돌아보면 건축을 하는 우리들의 여행길은 대부분이 그 도시에서 건축적 특징을 찾아 헤매는 일을 치중했다. 무엇이든 사진에 눈에 담아야 하고, 부지런히 다녀야 하고 빼듯하고 빽빽한 일정 속에 건축적으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명으로 여행이라



타쉬켄트 TV타워에서 바라본 타쉬켄트 전경

기보다는 현장 학습에 기까웠다. 그러하기에 도시 전체가 건축박람회장인 베를린이나 파리 혹은 가까운 동경에라도 가면 새벽부터 밤까지 일상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곤 했다. 언제나 여행지를 출발하기 전에는 일상에서 벗어나 시간과 기회가 닿는 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새로운 공기를 느끼리라 다짐하면서 돌아오는 가방 안에는 찍어온 사진만이 한가득이었고, 그 사진은 때론 너무나 빠쁘게 찍어서 기억하기조차 힘들기도 했다.

이번 여행길은 어떠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밀려온다. 이는 만큼 보이는 건축이기에 각자가 바라보는 앵글은 다르리라. 필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떠난 길이기에 무언가를 보기위해 애쓰기보다는 보여지는 대로 즐길 수 있던 길이었다.

필자는 푸른 실크로드의 꾸며지지 않은 흙냄새와 낯선 이방인을 보면서 때로는 신기하게 때로는 환하게 웃어주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기억하고 싶다.

어린 시절 밤을 새며 읽었던 신드바드의 동화와 바자의 한편에서 찾아내 작은 램프만 보면 꼭 문질려 보면서 지나가 나오길 기대하는 마술램프와 나는 양탄자의 추억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보아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자신의 지난시간과 그 때 꿈꿨던 그 광에서 품었던 희망이 아닐까 이들의 현재처럼.

짧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다.

눈을 잠깐 부치고 나면 서울이고 또 우리는 각자의 바쁜 일상 속으로 마치 어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한참 뒤에나 돌아본 사진은 그 장소조차 낯설 수 있으리라.

필자 역시 널방기를 써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카메라를 엷어보니 불과 얼마 전인데도 아득함에 당혹감이 들었다. 하지만 언제나 여행이 좋은 이유는 일상을 떠나면 무엇이든 해 볼 수 있는 자유때문이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려도 되는 것인 것처럼 무엇을 담았던 각자가 무엇을 기억하던 답사로 시작된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이 탐방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리해두고 싶다.

마지막으로 심사의 주관과 답사를 준비해주시 협회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4박6일정을 보낸 급번 참여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

이사회

제10회 이사회

2010년도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10월 13일 오후 2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정관 개정(안)의 건,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향 연구용역의 건, 중국건축학회 및 태국건축사협회와의 MOU체결의 건, 2010 건축문화행사 협찬금 모금의 건,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3차)을 논의 했으며, 부의안건으로 2017년도 UIA총회 유치활동 예산 분담의 건, 명예회원 추대의 건, 회원인증 및 교육규정 개정의 건, 전국건축사대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2012 전국건축사대회 주관건축사회 선정의 건, 2010년도 시도건축사회 지원금 배분의 건, 울산건축사회 정회원 징계의 건,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향 연구용역의 건이 논의 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안)의 건
 -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주요 쟁점사항 3가지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견을 정리함.
- ▷ 회장직선제 찬성, 상임이사제 도입 반대

▷ 회장임기는 의견수렴 절차 필요

- 제2호 :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향 연구용역의 건
 -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3호 : 중국건축학회 및 태국건축사협회와의 MOU체결의 건
 - 태국건축사협회와의 MOU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중국건축학회와의 MOU는 국제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함.
- 제4호 : 2010 건축문화행사 협찬금 모금의 건
 - 2010년도 건축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이사를 모두가 협찬금 모금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 제5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3차)
 - 법제도개선사업 활동비는 원안대로 집행을 하되, 나머지 하반기 잔여 예산(약 2천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17년도 UIA총회 유치 활동 예산 분담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10년도 본협회 부담금(1천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국제사업비에서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이사회에 상정하여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명예회원 추대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회원인증 및 교육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전국건축사대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동 규정을 원안대로 승인하되, 대회 명칭부분만 이사회 승인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제5호의안 : 2012 전국건축사대회 주관건축사회 선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대회예산은 추후 이사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 ▷ 주관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제6호의안 : 2010년도 시도건축사회 지원금 배분의 건
 - 3안으로 하되,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배분금액을 최우수건축사회에 500만원, 우수건축사회 및 건축사대회 주관건축사회는 300만원, 나머지 건축사회는 200만원으로 축소·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함.
- 제7호의안 : 울산건축사회 정회원 정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8호의안 :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향 연구용역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3회 제1법제도개선위원회

제3회 제1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법 체계 재정비의 방향 및 계획에 관한 건
 - 건축법 체계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① 건축기본법령의 취지 등이 건축법령에 담길 수 있는 법안으로 정립 필요
 - ② 친환경 설계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장으로 정립 필요
 - ③ 감리의 정의 및 업무범위를 별도의 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
 - ④ 건축문화의 장을 별도의 장으로 정립 필요
 - 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대한 기준 강화

- ⑥ 신고제도에 대한 개선(건축허가 대상 확대)
- ⑦ 현장조사·검사확인 제도개선(중간 검사단계 신설 및 업무대가 현실화)

■ 제7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제7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
 - 「건축사법」 제2조 제1호의 「건축사」 용어 정의에 「건축기본법」 제3조 제4호 「건축디자인」에 따른 공간환경 기획·설계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설계」 용어 정의에 「건축기본법」의 공간환경 기획·설계행위 내용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과 같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겸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보수 등이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함

- 「건축사법」 제19조(업무내용)에 국토해양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의 업무범위가 모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기술자 범위에 건축사를 포함하고 비고에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제8회 친환경위원회

제8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0 녹색설계를 위한 친환경 건축·리모델링 포럼'에 관한 건
 - 2010 녹색설계를 위한 친환경 건축·리모델링 포럼'의 진행사항 점검
- 제2호 : '2010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설계사례집 계획(안)'에 관한 건
 - '2010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설계사례집' 제작의 진행사항 검토

■ 제9회 친환경위원회

제9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0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설계사례집 계획(안)'에 관한 건
 - 사례집 제작을 위한 세부 담당자 확정
 - 발간사·축사자 선정
 - 사례집의 분량 조정
 - 사례집 제작을 위한 자료요청
 - 월고에 대한 마감기한은 11월 22일 오후까지로 함

■ 제8회 공제사업위원회

제8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출자금 모집 등에 관한 건
 - 출자금 모집 등을 위한 설명회의 대상은 16개 시·도 건축사회와 서울·경기지역 건축사회로 대별하고, 우선 16개 시·도 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비용과 효율 등을 고려할 때 따로 설명회 일정을 잡기보다는 각 건축사회의 회의 일정

등을 파악하여 공제사업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1인 1조 또는 2인 1조로 편성하여 이사회 등 회의에 참석하여 시·도건축사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출자금 모집 및 공제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협의함.
-홍보 리플렛은 자체 경비로 제작하고, 리플렛 시안은 공제사업위원장과 담당이사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함.
• 제2호 : 공제요율(안) 재검토의 건
-한국화재(주)가 제출한 최종 공제요율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검토한 결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비교했을 시 경쟁력이 없다고 확 인되어 추후 한국화재와 업무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 재 논의하기로 협의함

■ 제1회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

제1회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공제사업 관련 협의내용 검토
-공제사업 관련 협의내용을 검토함.
- 제2호 : 개별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 등 협의
-개별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 등을 협의함
- 제3호 : 출자금 모집 및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출자금 모집 및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협의함.
- 제4호 : 회의 개최일시에 관한 건
-제2회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 회의 개최일시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협의함.

■ 제10회 사업위원회

제10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0한국건축산업대전' 개막식 및 전시회 준비 총점검의 건
-개막식은 10/20(수) 15:00시로 문화 대상 시상식이 끝나면 진행함.
- 내빈응접(단장, 부단장), 개막식 사회(조재용 위원), 전시소개(사업위원장), 전시장 안내(이규환 위원)를 맡음.
- 협회회원들의 편리한 전시회 관람을 위하여 협회전용 등록대를 설치키로 함

■ 제16회 행정위원회

제16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안) 검토의 건
-제10회 이사회(10.10.13) 협의결과에 따라 (가칭)정관개정검토위원회 구성 위원 중 행정위원회에서 참여할 위원 2명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이영복 부위원장, 최영희 위원
-이사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정관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사무처에서 해당 조문을 정리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기로 함.
-이사회에서 협의된 사항중 협회의 중 차대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가칭)정관개정검토위원회에서 논의함.

■ 제4회 여성주거복지위원회

제4회 여성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노인주거복지관련 세미나 및 시설물 견학 세부계획(안)의 건
-노인주거복지관련 세미나 및 시설물 견학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 함.

■ 제7회 정책위원회

제7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방송사업 평가 및 후속조치에 관한 건
-'한국건축문화 60년' 방송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건축 홍보 및 교육에 방송결과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키로 함
- 제2호 :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직능적, 실천적 영역확대에 관한 건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직능적, 실천적 영역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첫 번째 의제로 'Passive House 선도'의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차기 회의부터 선도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제8회 회관관리위원회

제8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 하자보수공사 시방검토의 건
-방수하자보수공사는 부분보수가 아닌 전면적인 시방으로 설계도면에 의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도록 통보키로 함.
- 제2호 : 회관 주차장바닥 콘크리트하자보수 법적절차 검토의 건
-콘크리트하자공사는 법적대응을 추진키로 하고 자문변호사와 선임계약 하며,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키로 함.

- 제3호 : 예식사업자 선정의 건
- 기예식업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기로 하고 현 예식업체에는 계약 만료문서를 통보하며 구체적인 입찰세부조건은 차기 회의시 논의키로 함.
- 제4호 : 입주사 임대계약 갱신조건 검토의 건
- 입주사에 대한 원대료 및 관리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함.
- 제5호 : 서울건축사회 회의실 사용료 검토의 건
- 서울건축사회의 트단을 완화하고자 제2회이사회(10.2.10)에서 회관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예외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사용료는 납부토록 함. 다만, 산학협력계약학교·강의실 사용은 대외기관(서울산업대)과의 협약과 학위취득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금번은 면제토록 협의함.
- 제6호 : 임원실 환경관리 추진의 건
- 임원실 환경관리를 위해 1년에 2회 카펫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는 렌탈하여 설치키로 함.
- 제7호 : 회관관리매뉴얼 검토의 건
- 협회 회관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체와 프로그램 구축문제를 논의키로 함.

우리협회, 태국건축사협회와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 협약 체결



우리협회는 태국건축사협회와 지난 10월 21일 건축사회관 8층 회의실에서 양국의 건축지식을 확장하고 전문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

과 태국건축사협회 찬드라사카 회장을 비롯해 양 단체 임원들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전문가를 위한 법적 필요조건과 구조적인 기준의 상호 이해와 정보교류 △신기술 정보교환 및 건축, 계획 및 구조의 실무 지원 방법 교환 △건축 교육 및 건축대학의 인증을 빌전시키기 위한 정보교환 등에 대해 다각적인 협력을 할 방침이다.

쳤다.

한편 차기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2011년 11월경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한 뉴스킨 컨벤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컨테이너하우스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발표



최우수작, 드랑이 마을(TRANS-HOUSE)



우수작, DUPLEX TERRACE-HOUSE



입선 컨테이너 하우스

우리협회가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단지실현을 전제로 한 컨테이너하우스 건축설계경기'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는 단지실현을 전제로 한 컨테이너하우스의 건축설계경기로, 진화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건축가능성을 제안하는 이이다에 공모였다.

최우수작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안의식)의 <드랑이 마을(TRANS-HOUSE)>이 선정됐으며, 우수작은 큐브디자인 건축사사무소(한영식)의 <DUPLEx TERRACE-HOUSE>, 입선은 자연디자인건축사사무소(전태운)의 <컨테이너 하우스>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최우수작은 자연지형을 이용한 친환경적 인 배치계획과 단지실현을 전제로 한 아이디어에 충실했다고 평가되었으며, 각종 Kit와 본체의 조합이 다양하게 계획되어 공간의 확장성에 대비한 점이 높게 평가됐으며, 단지 계획 측면에서도 자연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하며 도로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위치에 커뮤니티 시설을 입지시켜 운영과 유지 관리 체계를 단순화 시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안으로 평가 되었다. 우수작은 실제로 현실화가 가능할 정도로 세부적인 문제가 잘 다루어진 수작으로 다양한 공간 조성의 가능성에 제시 되었으나, 제시된 안은 컨테이너의 구조적, 기능적인 요소가 많이 약화되고 고 비용의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입선작은 설비, 전기 unit가 system적으로 적용된 시도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평가됐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21일 '한국건축산업 대전2010'이 열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2010 인천건축문화제 개최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임창희)와 인천신문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한 2010 인천건축문화제가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2010인천건축문화제는 근대 건축물과 21세기 선진수준의 다양한 건축양식이 혼재하면서도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시민과 함께하고 도시건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의 인천모습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많이 보여줌과 동시에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일과 미래를 향하기 위해 '來日(Tomorrow)' 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전시장 로비에서 인천시정무부시장,

인천시교육감,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등 건축단체장 등 약 400여명 모인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부대행사로 인천시광역시 건축상, 인천학생건축공모전, 건축백일장, 도시건축사진 공모전, 학생 우수 작품전(대학부, 고교부)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시켜 시민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켰다.

인천건축문화제는 예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각종 공모전과 초대전 등의 작품 출품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례로 인천건축학생 공모전의 경우는 인천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인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전국 규모의 건축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더불어 매년 시행되는 행사이지만 단순한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백일장 행사와 같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축제'의 장이 됐다.

전라북도건축사회, 건축문화탐방 개최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엽)는 지난 10월 21일 수도권 건축문화 탐방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일정과 맞춰 진행했으며, 전북지역건축사 40여명이 참석했다.

건축물 탐방지역으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서울시신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탐방에 참가한 한 건축사들은 "건축전문가로서 새로운 디자인과 공법을 익히기 위한 정기적인 탐방행사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걷기행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 9일 '2010 건축인의 날'기념 행사와 연계하여 회원 및 직원가족,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사려나숲길 걷기행사를 가졌다.

강서구건축사회, 수해복구 봉사활동

강서구건축사회(회장 김용찬)는 건물 및 죽대 등의 붕괴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폭우가 시작된 지난 9월 21일 위험한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전담반을 건축사회원 15명으로 구성했다.

전남반은 10월 7일까지 16일간 강서구 침수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및 건축물·담장·죽대 등의 안전점검을 자원봉사로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 수해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10 건축 법령집 판매



우리협회는 건축업무를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을 3단대조식으로 편집하고, 건축관련법령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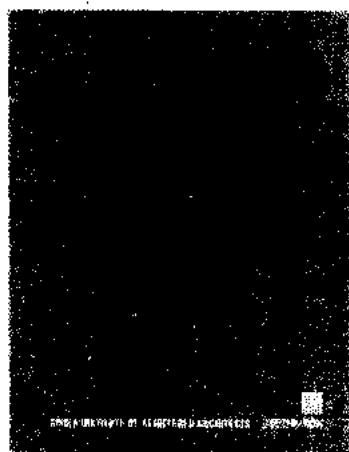
기준을 담아 「2010 건축법령집」을 발간·
보급한다.

발송료를 포함하여 1만 5천원에 판매하
며, 구매희망자는 입금 후 입금증과 구매
신청서(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를 팩스
(02-3415-6899)로 보내면 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
02-3415-6834

작품집

「KOREAN ARCHITECTURE 2009」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
에 한해 3만 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건축계소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산업학과 편입 학사과정 학생모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
교간 산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 제2호에 의거 계약학과(건축산업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서울건축사회 회원 또는 회원사 소속 임·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
산업학과 3학년 편입생(야간)을 모집한다.

- 모집학과 : 건축산업학과 3학년 편입(야간)
- 모집인원 : 40명
- 최저학력기준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

※ 세부기준 : 모집요강 참조

- 지원자격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소속 회
원 또는 회원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해
당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모집
종료 일자 기준)
- * 임·직원의 경우 대표자의 추천을 받
은 자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1. 29(월)
~ 12. 10(금) 09:00 ~ 18:00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시건축사회
총무운영팀 (건축사회관 7층)
- 입시 전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입학안내서 다운로드 : www.sira.or.kr
⇒ 공지사항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총무
운영팀 02-581-5715

연계되어 개최됐다.

올해로 5회째인 「2010 한국농어촌건축대
전」은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을 위한 주거
환경 제안'이라는 주제로 녹거노인, 조손
가정 등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대안 주택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2010년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80개 권역
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가 있는 지자체 6곳(가평, 횡성, 단양, 고
창, 의성, 서귀포)을 대상지로 선정해 진행
했다.

대상은 '흩뿌려진 씨앗, 꽃을 피우기'를
출품한 전북대 강영길, 김선혜, 김태영 팀
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의 충남대 김준보, 김유미, 한종
운 팀과 'Bo에서 Being되기'의 울산대 이
안나, 강진아, 김진익 팀이 차지했다.

부대행사로는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제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
엄도 열렸으며, 저렴하고 유지관리비용도
적게 드는 에너지절약형 '농어촌주택 표준
도'도 선보였다.

‘2010 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 개최



2010 한국농어촌건축대전 개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
공사가 주관한 「2010 한국농어촌건축대전」
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칸텍스
에서 개최된 「한국건축산업대전2010」과

대구지역 건축단체법인 (사)대구건축문
화연합이 주최하는 「2010 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2010 Daegu Architectural
Culture Biennale)」가 지난 11월 17일부
터 21일까지 5일간 두산 위브더제니스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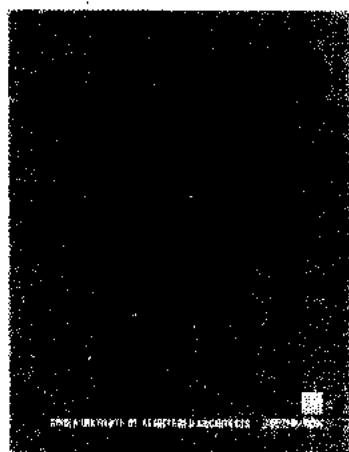
기준을 담아 「2010 건축법령집」을 발간·
보급한다.

발송료를 포함하여 1만 5천원에 판매하
며, 구매희망자는 입금 후 입금증과 구매
신청서(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를 팩스
(02-3415-6899)로 보내면 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
02-3415-6834

작품집

「KOREAN ARCHITECTURE 2009」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
에 한해 3만 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건축계소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산업학과 편입 학사과정 학생모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
교간 산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 제2호에 의거 계약학과(건축산업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서울건축사회 회원 또는 회원사 소속 임·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
산업학과 3학년 편입생(야간)을 모집한다.

- 모집학과 : 건축산업학과 3학년 편입(야간)
- 모집인원 : 40명
- 최저학력기준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

※ 세부기준 : 모집요강 참조

- 지원자격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소속 회
원 또는 회원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해
당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모집
종료 일자 기준)
- 임·직원의 경우 대표자의 추천을 받
은 자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1. 29(월)
~ 12. 10(금) 09:00 ~ 18:00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시건축사회
총무운영팀 (건축사회관 7층)
- 입시 전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입학안내서 다운로드 : www.sira.or.kr
⇒ 공지사항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총무
운영팀 02-581-5715

연계되어 개최됐다.

올해로 5회째인 「2010 한국농어촌건축대
전」은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을 위한 주거
환경 제안'이라는 주제로 녹거노인, 조손
가정 등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대안 주택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2010년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80개 권역
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가 있는 지자체 6곳(가평, 횡성, 단양, 고
창, 의성, 서귀포)을 대상지로 선정해 진행
했다.

대상은 「흩뿌려진 씨앗, 꽃을 피우기」를
출품한 전북대 강영길, 김선혜, 김태영 팀
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의 충남대 김준보, 김유미, 한종
운 팀과 「Bo에서 Being되기」의 울산대 이
안나, 강진아, 김진익 팀이 차지했다.

부대행사로는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제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
엄도 열렸으며, 저렴하고 유지관리비용도
적게 드는 에너지절약형 「농어촌주택 표준
도」도 선보였다.

‘2010 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 개최



2010 한국농어촌건축대전 개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
공사가 주관한 「2010 한국농어촌건축대전」
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칸텍스
에서 개최된 「한국건축산업대전2010」과

대구지역 건축단체법인 (사)대구건축문
화연합이 주최하는 「2010 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2010 Daegu Architectural
Culture Biennale)」가 지난 11월 17일부
터 21일까지 5일간 두산 위브더제니스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35.87N 128.63E, 분지'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의 특성 이해를 통한 대구 건축의 정체성 재고 및 세계 속 대구건축의 비전 모색과 건축전문인과 시민의 소통을 통한 건축문화의 자부심 고취 및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17일 세계적인 건축가 '다니엘 라벤스킨' 초청강연을 비롯해 건축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대구건축문화 투어 등과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는 '건축과 패션', '건축과 영화'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사)대구건축문화연합은 '2008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의 대구개최를 계기로 대구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인 운영체계와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 내구지역 6개 건축관련 단체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오토데스크코리아, '찾아가는 인벤티 세미나' 프로모션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제조회사 오토데스크코리아(대표이사 김동식, www.autodesk.co.kr)는 기계설계/제조분야 설계자를 위한 '찾아가는 인벤티 세미나'를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고객들이 최신 디지털 프로토 타이핑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오토데스크에서 직접 고객사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업무로 바쁜 고객들도 부담 없이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찾아가는 인벤티 세미나'는 3D를 넘어 디지털 프로토 타이핑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사용자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인벤티 구버전 사용자 대상으로 '인벤티 2011 신기능 소개 및 디지털 프로토 타이핑을 이용한 제품 데모'를 선보이며, 2D 사용자, 타제품 사용자 및 신규 사용자 대상으로는 인벤티 최신기능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성공사례, 타제품 설계 데이터 협업/관리 및 2D에서 3D제품 도입 성공사례 등이 소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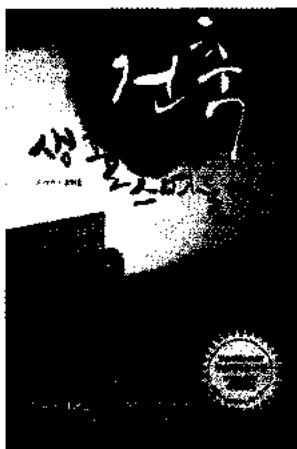
특히 세미나 기간 동안 방문 기념 이벤트로서, 신청 고객에게 CGV영화 예매권(2매)를 무료로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추가로 증정한다.

또한 세미나 신청고객이라면 인벤티 제품 구매 시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구매 개수에 따라 HP 워크스테이션 Z400, 아이패드, 아이팟터치3세대 등 푸짐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 문의 : 02-2028-9495

신간안내

건축, 생활속에 스며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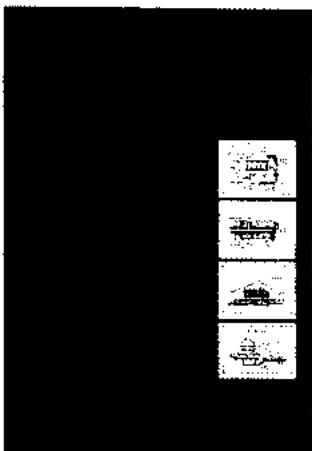
조원용 저 | 287쪽 | (주)창의체험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2010 우수저작공모전 당선작으로, (사)환경미술협회의 추천도서이며, 우리협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조원용 회원이 집필한 저서이다.

"건축을 알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작가의 메시지가 책의 전반에 걸쳐 담겨 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건축 안에서 생활하고, 그 생활 속에서 놀 접하는 건축이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작가는 건축전문가로서 이러한 부분을 명쾌하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장마다 소개되는 다양한 건축이야기들은 독자의 건축 상식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특별히 건축가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과 작가 자신이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듯이 풀어내고 있다.

• 문의 : (주)창의체험 02-761-1913

건축계획의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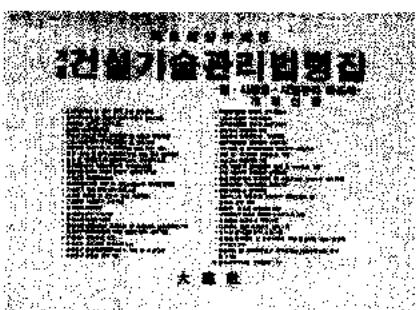
엄학진 저 | 340쪽 | 기문당

이 책은 서울에서 환경포럼 건축사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엄학진 회원이 30여년간의 건축사사무 실무, 대학 강의, 건축사 준비 학원 강의 등을 통해 고민한 건축계획에의 보다 효율적인 접근에 대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건축계획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종·소규모의 계획을 실제로 제시하여 건축계획 및 설계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건축계획 능력이 필요한 건축실무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 문의 : 기문당 02-2295-6171~5

개정, 건설기술관리법령집



편집부 | 1035쪽 | 대건사

신간 '개정 건설기술관리법령집'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기술관리법령집'·법·시행령·시행규칙 대조식의 2010년 10월 20일 개정 신판이다.

건설기술관리법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출제기준까지 다양한 건설기술관리 법령이 수록되어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에서 꼭 필요한 책이며, 대학에서도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보증 또는 공제 업부요령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 문의 : 대건사 02-715-6683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8~8
강남구건축사회/57-307 · 강동구건축사회/477-943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
6009 · 관악구건축사회/889-2400 · 광진구건축사회/446-
5244 · 구로구건축사회/5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
1588 · 노원구건축사회/6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2-
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027-0503 · 용산구건축사회/
614-8843 · 미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내동구건축
사회/224-0810 · 시로구건축사회/3474-6000 · 성동구건축
사회/2202-5866 · 성북구건축사회/307-3236 · 송파구건
축사회/223-9158 · 양천구건축사회/5644-6688 · 영등포
구건축사회/2634-1302 · 용산구건축사회/719-5902 · 은평
구건축사회/357-6633 · 송로구건축사회/725-3914 · 종
건축사회/2200-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590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2)437-333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6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6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0-5661
- 경기도건축사회/(031)217-6129~30
- 고양시·연건축사회/(03) 8963-8902 · 광명건축사회/
(02)2684-5845 · 봉화지역건축사회/(03)1683-2337 ·
부천시·연건축사회/(03)2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
(03)755-5440 · 수원시·연건축사회/(03)1480-
9130 · 안양시·연건축사회/(03)149-2698 · 북부지역건축
사회/(03)870-0458 · 이천시·연건축사회/(03)620-0545 ·
미주지역건축사회/(03)6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
(03)657-6119 · 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03)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
(03)757-2202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시·연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
(033)835-668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021 · 영평
정읍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시·연건축사회/
(033)745-2906 · 춘천시·연건축사회/(033)251-242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34~6
- 청주시·연건축사회/(043)223-3034 · 익산지역건축사회/
(043)322-5782 · 청주시·연건축사회/(043)647-060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
(043)973-010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전안지역건축사회/(041)561-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
(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832-8830 · 아
산시·연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
(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11)662-3388 · 금산
지역건축사회/(041)75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
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연
건축사회/(011)62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11)632-2756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
(041)674-3733 · 담양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
역건축사회/(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0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전주시·연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시·연건축사회/
(060)631-2223 · 무안지역건축사회/(063)882-16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6944-364-7567
- 목포시·연건축사회/(062)722-3349 · 순천시·연건축사회/
(062)726-6877 · 여수시·연건축사회/(062)886-7023 · 니주
지역·연건축사회/(061)862-9942
- 경상남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시·연건축사회/(053)800-0380 · 경주지역건축사회/
(054)72-4110 · 대구시·연건축사회/(054)445-1537~22 ·
김천시·연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시·연건축사회/
(054)382-1412 · 상주시·연건축사회/(054)636-3866 · 안
동시·연건축사회/(054)833-4455 · 영수지역건축사회/
(054)631-4536 · 영천시·연건축사회/(054)970-2195 ·
포항시·연건축사회/(054)1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
사회/(054)831-3577
- 경상북도건축사회/(055)246-4530~1
- 기자재·연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
(055)443-003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3 · 익산
시·연건축사회/(055)634-6844 · 마산시·연건축사회/(055)245-
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연건축
사회/(055)832-301 ·靈山·연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
지역·연건축사회/(055)762-6434 · 부하시·연건축사회/(055)547-
4530 · 청양시·연건축사회/(055)532-0913 · 충주시·연건축
사회/(055)282-4364 · 통영시·연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
지역·연건축사회/(055)833-6111 · 함안시·연건축사회/(055)588-
6583
- 세종도·연건축사회/(054)752-3248
- 서귀포시·연건축사회/(064)763-1010

KOREAN ARCHITECTS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회원수)

2010년 9월말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총 면 적	평 면
	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합계	5,314	5,314	102	204	8	24	5,424	5,542	1,651	1,651	246	492	60	180	27	108	25	166
서울	899	899	27	54	2	6	928	959	989	689	146	290	38	114	13	52	15	89
부산	472	472	16	32	2	6	490	510	96	95	18	36	3	9	0	0	3	23
대구	419	419	20	40	3	9	442	468	65	66	18	36	3	9	3	12	2	10
인천	269	269	3	6	0	0	272	275	62	7	14	0	0	1	4	0	0	
광주	202	202	1	2	0	0	203	204	40	40	7	14	3	9	2	8	0	0
대전	242	242	5	10	1	3	248	255	35	35	9	18	3	9	1	4	1	17
울산	178	178	5	10	0	0	183	188	17	17	2	4	1	3	0	0	0	0
경기	718	718	2	4	0	0	720	722	233	233	17	34	3	9	2	8	1	5
강원	171	171	2	4	0	0	173	175	25	25	2	4	0	0	1	4	0	0
충북	209	209	4	8	0	0	213	217	30	30	5	10	1	3	1	4	2	15
충남	238	238	1	2	0	0	239	240	45	45	5	10	2	6	2	8	0	0
전북	238	238	4	8	0	0	242	246	22	22	2	4	2	6	0	0	0	0
전남	191	191	1	2	0	0	192	193	16	16	2	4	0	0	0	0	1	7
경북	351	351	5	10	0	0	356	361	36	36	4	8	0	0	1	4	0	0
경남	404	404	7	14	0	0	411	418	28	28	3	6	0	0	0	0	0	0
제주	113	113	0	0	0	0	113	113	10	10	0	0	1	3	0	0	0	0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원				비율	준회원
	건축사	2인	3인	4인		
한 계	8,139	10	8,149		100%	23
서 울	2,393	3	2,396		33.9%	10
부 산	674	1	675		7.9%	9
대 구	601	0	601		7.7%	0
인 천	355	0	355		3.8%	0
광 주	275	0	275		3.7%	0
대 전	338	1	339		3.7%	0
울 산	212	0	212		2.6%	0
경 기	1,011	2	1,013		12.2%	2
강 원	208	0	208		2.6%	0
충 북	279	0	279		3.0%	0
충 남	308	3	312		3.1%	0
전 북	278	0	278		3.0%	0
전 남	220	0	220		1.9%	0
경 북	409	0	409		4.6%	1
경 남	452	0	452		5.0%	1
제 주	126	0	126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업마처리	총 면	비
회원수	5,542	2,597	-	8,139	
비율	68.09%	31.91%	-	100%	
사무소수	5,424	2,009	-	7,433	
비율	72.97%	27.03%	-	100%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 「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it.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